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독 일

1.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면적	357,588 km ²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2020.12.기준)
수도	베를린(Berlin)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어	독일어
종교	가톨릭(26.7%), 개신교(24.3%), 유대교(0.1%), 무교(40.7%), 기타(8.2%) (2020년 기준)
기후	온대성
국가원수	대통령 :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수상 : 올라프 솔츠(Olaf Scholz)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883-11-26 (자료원 : 독일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1883-11-26	고종 20년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 우호, 항해 조약	
민첼훈 공사, 신임장 제정	1901-08-31	민첼훈 주독 전권 공사가 처음으로 부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3국 겸임	
외교관계 재개	1955-12-01	1949년 11월 동독과 북한 간, 1955년 12월 서독과 남한 간 외교관계 수립	
주독 대사관 설치	1958-08-01	1958년 8월 1일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1-12-13	상공부장관 정내혁(丁來赫)이 독일을 방문, 한국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 1억 5000만 마르크의 장기 재정차관 수령	
한독 투자보장 협정	1964-02-04	국가 간 투자를 촉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에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으로 현재 한국은 독일을 비롯해 총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독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64-12-07	한국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유럽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독일 에르하르트 수상 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독 양국 간에 우호와 협조를 증진시키고, 국토가 분단된 공동운명체로서의 유대 의식을 재확인,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해 동일보조를 취한다는 데 합의, 1억 5,900만 마르크 규모의 차관을 공여받음	
한독 무역협정 서명	1965-04-08	양국 간의 교역을 위한 국제법상의 기초 마련, 양국은 최혜국 대우와 최소한 1년에 1회 현실적인 경제문제를 논의할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66-09-28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모든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근거로 작용, 독일과의 기술협력은 이 협정을 근거로 독일이 기술원조를 하는 형태로 추진됨.	1967-02-13 발효
한독 문화 협정	1970-05-16	1970년 5월 독일의 외무장관 쉘이 한국을 방문, 한독문화협정과 부산직업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	
한독 사증면제 협정	1972-11-17	대 독일 무비자 입국 및 90일 간의 체류 가능	
한독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1978-05-04 발효)	1976-12-14	양국의 합의 하에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체결	1978-05-04 협정 발효
한독 정부간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82-09-22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기존우호 관계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업자 정신에 따른 재정협력을 통한 우호 관계 확대강화	
한독 과학기술협력 협정	1986-04-11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기관 간 공동연구사업, 과학기술자 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대등한 호혜협력 관계로 전환	

한독 원자력협력 협정	1986-04-11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한독 항공운수 협정	1998-07-19	국제 민간 항공운수에 대한 양자 간 항공협정 체결, 한-독 양국 정부 간 항공노선 확대, 항공 운수 확대 합의	
한독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	2002-10-31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과 소득원천지국(투자유치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 1976년 체결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이후 양국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협정 체결, 구 협정 대체	
한독 사회보장 협정 발효	2003-01-01	현지 자회사 및 계열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 등 주요 쟁점 사항 해소, 독일 장기체류자가 귀국할 경우 한독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의 합산을 통해 양국 연금을 지급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 각서	2005-01-01	독일 장기체류 비자 취득 절차 대폭 간소화 등 선진국에 준하는 최혜국 대우, 상호주의에 따라 독일 국민에게도 동일한 조치 적용	

한국교민 수

44,864 명 (자료원 : 한국 외교부/ 격년)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2018년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방한 및 한?독 정상회담 개최

2018년 2월 7일~2월 11일 독일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은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룬 국가로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중요한 파트너이자 앞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독일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친환경에너지, 원전 해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하였으며, 방한 기간 중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 2018년 10월 19일 한·독 정상회담 개최

2018년 10월 19일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 한독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우호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더 나아가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육성 등 공동의 관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독일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2020년 4월 3일 한국과 독일 정부 합동 화상회의 개최

2020년 상반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한국이 대대적인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한 확산 억제 및 봉쇄 완화 등 코로나19 대처의 모범 사례로 부상하자 독일 정부는 연방총리실 주도로 '독일 대표단을 보내 한국 상황을 보고싶다'고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단 화상회의부터 개최할 것을 제안해 양국 정부 측은 코로나19 대응 상담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수석대표로 보건복지부 방역 전문가 등 8명이, 독일 측에선 총리실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사전에 한국 측에 진단검사와 검역 관리, 출입국 통제 문제 등과 관련해 질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일간지 Sueddeutsche Zeitung은 독일 내무부 지시로 질병관리기관인 로베르트-코흐 연구소 등에서 작성한 코로나19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라고 소개됐다고 밝혔다.

○ 2020년 8월 19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2020년 8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6개월 만에 첫 해외출장에 나선 강경화 외교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마아스(Heiko Maas) 외교장관과 한·독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주요 글로벌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2018년 7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전략대화의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2차 전략대화를 2020년 베를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회담 후 현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이 핵심 우방국으로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긴밀히 협력 중이며, 양국 공히 코로나19 대응 모범 국가로 국제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경제지원·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전력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안정과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아스 장관은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독일이 다자주의 연대를 주도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국도 다자주의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하고, 양국이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군축·비확산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해 강 장관은 독일이 2020년 하반기 EU 의장국으로서 EU의 대내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에 희망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해온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마아스 장관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2021년 10월 31일 한·독 정상회담 개최

유럽 3개국 순방과 더불어 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1일 퇴임을 앞둔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독일 방문 당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05년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견실하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메르켈 총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의 발전은 물론 기후변화, 난민, 전염병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간 쌓아 온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가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양 정상 간 마지막 정상 회담으로 지난 16년간 독일을 이끈 메르켈 총리는 지난 12월 2일 공식 퇴임했다. 이 회담에는 전 독일 재무장관 겸 부총리이자 현 신임 총리인 올라프 쉘츠(Olaf Scholz)도 배석했는데, 문 대통령은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통해 앞으로 한·독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쉘츠 부총리도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제

○ 2020년 5월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 체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토르스텐 헤르단(Thorsten Herdan) 에너지정책실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 이는 2019년 12월 산업통상부와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 간 체결된 한·독 에너지 전환협력 공동의향합의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는 애초 3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베를린 에너지전환대회(BETD 2020)에서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독일은 매년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실장급)를 개최하고, 협력위원회 하에 ① 에너지전환, ② 신재생에너지기술, ③ 원전해체 등 3개의 실무분과(Working Group)를 운영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산·학·연 대표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 제조업 국가이자 에너지전환 추진국가인 양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한국과 독일 정부 간 에너지 전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4월 한·독 스마트제조 워킹그룹 발족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 중소기업이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제조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독일과 본격적으로 협업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2021년 4월 29일 한·독 스마트제조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한·독 워킹그룹은 양국 전문가들로 구성해 스마트제조 표준이나 보안기술 분야 등에서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며, 협력이 시급한 주요 현안인 국제표준 개발, 가가아엑스(GAIA-X,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칙과 범위를 정의하는 규정), 사이버 보안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는 차후 5G,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등의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독 워킹그룹 발족은 국제표준에 기반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제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추진 등을 위한 한·독 간 협력이 본격화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양국 간 협력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이 향상되고 기업 간 협업모델 개발과 표준화 참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021년 9월 한·독 제1차 산업협력대화 개최

2021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와 '제1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양측의 협력대화는 지난 2019년 12월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독일방문 시 논의한 한·독 고위급 대화 개설과 3개 부문 실무그룹 운영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해에는 에너지(5월), 통상 부문(9월) 실무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여건 속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 부문 최대 화두인 탄소중립·반도체 공급망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

한·독 양측은 탄소중립이 '달성하기 어렵지만 꼭 가야할 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추진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산업부는 민간부문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확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개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산업부문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해 개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기존에 양국이 추진하던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외에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국제표준과 보안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차량용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한 대응경험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도 모색하였다. 이는 특히 에너지와 통상 부문 실무 회의에 이어 향후 양국 간 산업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볼 수 있다. 주영준 산업부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한국과 독일이 산업부문의 협력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한국과 독일은 튼튼한 제조기반을 보유한 산업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는 수출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이번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1년 11월 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 및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 개최

2019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국가표준기관인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한·독 표준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한·독 표준협력대화의 정례회의를 매년 순환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9년 11월29일 제1차 한·독 표준협력대화(2020년 11월26일 한·독 표준 컨퍼런스(Korean-German Conference on Technology and Standards))에 이어 2021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제2차 독일 국가표준화 대표기관인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2019년 한·독 표준협력 대화 출범 이후 2회째 맞은 이 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술표준 전문가가 참여해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을 공

유하고, 국제 표준화 상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은 양국의 표준협력 범위에 배터리를 추가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배터리, 고용량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 분야 국제표준화에 있어 독일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협력대화에 앞서 개최된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의 창시자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카거만 박사(Dr. Henning Kagermann)의 '디지털경제와 순환 경제의 공동 창조'란 주제의 기조강연과 더불어 한국과학기술원 한순홍 교수가 '한국의 산업자동화 및 스마트제조 표준화 협력'에 대해 강연을 하며,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했다. 이어진 기술 발표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배터리 안전과 표준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한-독 기술협력, 스마트기술의 사이버보안 표준화 적합성 평가 등을 발표하고 기술개발과 표준화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독일은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협력 전략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가속화되는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에 독일과의 표준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1년 12월 9일 한국외교부·독일경제기후보호부 '제33차 한-독 경제공동위' 개최

한국 외교부와 독일경제에너지부는 1965년 10월 이래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협의체인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2021년 12월9일 개최된 '제33차 한-독 경제공동위'는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니콜린(Andreas Nicolin)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아시아 무역진흥 담당 부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년에 이어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12월8일 사민당(SPD) 솔츠(Olaf Scholz)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 출범에 따라 기존 경제에너지부가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확대·개편된 이후 첫 정부간 회의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역 규모가 역대 최대치(2020년 기준 교역규모 303억불 달성)를 기록한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제조강국인 양측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공통관심분야 주요사업(IPCEI) 등 EU 차원의 지원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황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소개하면서, 양측의 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독일의 Industrie 4.0, GAIA-X 등의 디지털 이니셔티브와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EU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독일·EU의 인도·태평양정책 간 조화로운 연계를 추진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기반을 다졌다.

문화

○ 독일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 내 최초로 의무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채택

독일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노이슈트렐리츠(Neustrelitz) 카롤리눔(Carolinum)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에서는 2021/2022년 겨울학기부터 한국어를 처음으로 10학년 의무 선택과목으로 채택해 주목을 끌고 있다. 10학년생은 한국어를 의무선택과목으로 선택하면 주당 2시간 수업을 듣게 되며, 제1외국어인 영어와 제2외국어인 스페인어, 러시아어, 라틴어, 제3외국어인 스페인어, 고대 그리스어 외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2013년 헤센주 비스바덴의 빌헬름 로이쉬너 종합학교(Wilhelm-Leuschner-Schule)에서 5~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된 적은 있으나, 독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교는 이미 2016년 11월 전북외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7년부터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쌓은 바 있다. 주 독일 한국교육원은 9월 9일 카롤리눔 김나지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팝 등 우리 대중문화의 인기를 바탕으로 독일 내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보다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린 사고방식을 향상시키는 기회이자, 한·독 간의 문화 교류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독 청년 네트워크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

독일 프랑크푸르트市에서 2012년 이래 매년 개최되는 한국 영화제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최대의 한국영화제이다. 2021년 10회를 맞이하는 프랑크푸르트 한국 영화제는 10월 20일~10월 24일에는 오프라인, 이어 10월 25일~10월 31일에는 온라인 등 2주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2020년에는 11월 18일~11월 30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 있다. 기존보다 상영 장소가 대폭 확대돼 프랑크푸르트 최대 멀티플렉스인 시네스타 메트로폴리스(CineStar Metropolis)와 더불어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인 엘도라도(Eldorado), 온라인 플랫폼 페스티벌 스코프(Festival Scope)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40편의 한국영화가 선보였는데, 15편 장편, 18편 단편 애니메이션은 영화관에서, 스크리닝 플랫폼인 페스티벌 스

코프를 통해 상영된 7편의 한국 영화는 PC와 태블릿, 모바일 디바이스 등으로 제공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는데, 'K-Pop 콘테스트'와 더불어 한국식 도자기 공예, 한식 등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 길잡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선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상영관 내 25% 좌석만 운영되었으며, 관람객은 3G(백신접종자, 완치자, 음성테스트)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등 위생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영화진흥위원회(KOFIC)와 더불어 헤센주영화진흥위원회, 프랑크푸르트市 등 한-독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한국영화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독일 내 한국 영화 보급과 한국 문화의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

1988년 이래 8월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인강변에서는 매년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가 열린다. 2019년 8월 23일(금)~8월 25일(일)간 개최된 박물관 강변 축제는 전년에 이어 축제 3일간 약 23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독일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2011년 이래 매년 한국관을 구성해 한식과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응용예술박물관(Museum Angewandte Kunst Frankfurt)과 협력하여 다양한 한류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한식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먹거리와 볼거리가 결합된 한국 문화의 단면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탁본체험, 합죽선 꾸미기,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B-Boy 공연 및 워크샵, 전통복(비봉) 등 예년에 비해 한층 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2019년 행사는 크게 K-Food, K-Culture, K-Beauty, K-Music 등의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등 예년 대비 한층 체계화되었고,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지원 하에 KOTRA 프랑크푸르트 주관으로 마련된 한국 상품관에서는 직접 판매를 통한 판촉 행사도 마련되었다. K-뷰티 및 K-Food를 위시한 한국 상품과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행사는 한국 제품이나 문화를 맛보기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어 마케팅 효용도도 높은 편이며, 해마다 특색 있는 한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며, 지역문화 축제 속에 한류를 심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유럽 속에 큰 반향을 보이고 있는 한류의 붐을 독일에서도 이어나가는 한편, 이를 문화 마케팅과 연계한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로 이끌어내고 있어 향후 더욱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2020년과 2021년 강변축제는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개최가 취소되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2.6	1.3	0.6	-4.9	
명목GDP (십억\$)	3,681.3	3,965.5	3,861.6	3,803	
1인당 GDP (PPP, \$)	53,254.7	55,058.9	56,226.2	54,075.7	
1인당 명목 GDP (\$)	44,537.1	47,832.1	46,472.6	45,732.8	
정부부채 (% of GDP)	65.1	61.8	59.6	68.9	
물가상승률 (%)	1.7	1.94	1.35	0.37	
실업률 (%)	3.76	3.4	3.15	3.83	
수출액 (백만\$)	1,448,191	1,560,538	1,489,411	1,380,647	
수입액 (백만\$)	1,162,907	1,284,351	1,233,978	1,170,441	
무역수지 (백만\$)	285,284	276,187	255,433	210,206	-
외환 보유고 (백만\$)	200,093.8	198,242.8	223,887.7	268,890.3	
이자율 (%)	0	0	0	0	
환율 (자국통화)	1.13	1.18	1.12	1.14	

<자료원 : IMF,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중앙은행(ECB), 독일연방은행>

경제 동향

2020년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대내외 수요 부진의 영향 하에 -4.6%(실질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기록한 2009년 금융위기(-5.7%)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2021년 들어 전 세계적인 백신 보급 확대와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이 경기를 견인하며, 2분기 독일 GDP는 전분기 대비 +2.0%, 전년동기 대비 +10.4%를 기록하며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델타 변이 확산 우려와 더불어 원자재 및 전자부품 공급 및 운송 차질이 비용 상승과 제조업의 둔화로 이어지면서 2021년 3분기 독일 경제는 실물지표 개선 흐름이 다소 약화되며, 전년동기 대비 +2.5%, 전분기 대비 +1.7% 성장에 그쳤다. 하반기 민

간소비가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되며 유례없는 중간재 부족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3, 4분기 산업 경기 둔화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도 공급망 병목 현상 지속과 에너지 가격 상승 폭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를 기록하며,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독일 통일 이후인 1992년 6월(+5.8%) 이래 약 30년 만에 최고치이다.

한편, 2021년 10월 누계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9%, +15.7% 증가하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독일 고용시장 역시 코로나19 위기의 여파에도 단축근무 지원 등이 실효를 거두며,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 11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p, 전년동기 대비 0.8%p 낮은 5.1%를 기록했다. 독일 연방노동청(BA)은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고용과 기업의 신규 채용 수요가 증가하며, 단축근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고, “우려할 만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 연평균 5.7%의 실업률이 예상되며, 고용시장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독일 경제는 특히 하반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19 영향 외에도 중간재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중단되는 등 큰 타격을 입으며 다소 예상을 하회하는 2.6%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4분기에도 원자재 및 전자부품 공급 병목 현상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며 제조업계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월 초 독일 DIW 경제 연구소는 올 한 해 독일 인플레이션이 5%대를 상회하고, 배송 병목 현상으로 성장이 둔화되며, 연말까지 경제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독일정부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지자체별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종 서비스 및 문화 행사의 이용 자격 요건을 3G(백신접종자(Geimpfte), 완치자(Genesene), 음성확인자(Getestete))로 제한한 데 이어 각 연방주 별로 9월 16일부터 이를 부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7일간 누적기준)가 11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진행되며, 독일 정부는 11.18일(목)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결정 결정하였다. 이는 11.24일(수) 발효되었으며, 연방주별로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입원자 수를 기준 지표로 하며, 이를 3단계(3·6·9)로 분류해 적용하기로 했다. 단계별로 2G(백신접종자·완치자), 2G+(백신접종자·완치자 + 음성확인서 제출)를 비롯해 최고 단계인 9 이상에서는 연방주의 회 의결을 통해 광범위한 조치(18세 미만 제외)도 시행 가능하다.

또한 사업장 근무자격을 백신접종자·완치자·음성확인자로 제한(3G 규칙)하고 사업주에게 동 규정 준수에 대한 확인 의무 부과, 재택근무 의무화(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등을 재도입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및 철도 이용 시 기존 마스크 착용의무와 더불어 백신접종자, 완치자가 아닐 경우, 음성확인서 휴대 의무 부과(3G, 18세 미만 제외), 요양·교육 시설(양로원, 요양원, 학교, 유치원 등) 등 취약시설 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테스트 등이 시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12.2일(목) 독일 신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등 4차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의료시설 과부하 방지 위한 추가 방역조치에 합의하였으며, 연방주 별 확진자 규모에 상관없이 생필품 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 2G 규칙(백신접종자 및 완치자) 도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이견이 상존하나 내년 2월경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제 전망

경제전망

2021년 상반기 독일 경제는 글로벌 백신 보급 확대와 더불어 독일 제품에 대한 탄탄한 해외 수요에 따른 수출 호조 및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자재 및 전자부품 공급 병목현상 장기화에 따른 생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경기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3분기 들어 경기 회복세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 독일 정부는 2021년 경제전망을 기존의 3.5% (2021년 4월 27일) → 2.6%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2022년 전망은 기존의 3.6% → 4.1%로 상향 조치 발표하였다. 전 독일 경제에너지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은 “2021년 경제성장 전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으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다시 성장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며, 특정 분야의 원자재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증가 추세를 보이는 코로나19 감염 현황은 우려할 만하다”고 전하고, “경기회복의 전제 조건은 ‘글로벌 공급망 안전’이라고 강조하였다. 독일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으며, 예상대로 공급 병목 현상이 점차 해소된다면, 2022년에는 상당한 추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나, 독일 정부는 2022년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내수 회복과 개인소비 지출 증가 및 고용 안정 등을 토대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의 독일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로 독일 수출이 6.3% 증가하며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정부는 2022년 높은 성장세 이후 2023년에는 +1.6%로 예년에 준하는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9월 독일 총선 후 12.6일(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등이 신정부 주요 정책 과제로 거론되며, 구조적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향후 독일에서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오르며, 독일 경제성장을 한층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12월 15일 독일 신임 솔츠(Olaf Scholz) 총리는 첫 연방의회 연설에서 사민당(SPD), 녹색당, 자민당(FDP)이 이끄는 신호 등 연정은 향후 몇 년간 보다 진보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 기후 중립국 실현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독일을 위한 기술적 진보를 강조했다.

* 한편, 지난 2021년 10월 말 독일정부의 공식 발표 후인 11월 등장한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이 추가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월 15일 독일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독일 Ifo 경제연구소와 할레 경제연구소(IWH) 등을 인용해 독일 내 4차 팬데믹 유행은 지속되는 소재 병목현상과 더불어 강한 경기 상승세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세계 경제발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다소 상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27,528,317,208
2	프랑스	121,913,558,647
3	중화인민공화국	98,427,348,877
4	영국	96,803,292,335
5	네덜란드	92,196,848,814
6	이탈리아	76,246,926,799
7	오스트리아	70,321,036,099
8	폴란드	67,173,234,351
9	스위스	63,203,013,215
10	벨기에	51,288,729,62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35,718,400,614
2	프랑스	128,445,812,288
3	중화인민공화국	111,513,551,797
4	네덜란드	101,249,624,521
5	영국	97,549,619,317
6	이탈리아	85,120,074,307
7	폴란드	76,074,491,608
8	오스트리아	75,832,053,173
9	스위스	66,545,957,507

10	벨기에	54,273,632,847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34,826,688,906
2	프랑스	121,389,784,906
3	중화인민공화국	109,299,416,677
4	네덜란드	94,350,418,015
5	영국	89,326,253,488
6	이탈리아	78,502,289,911
7	폴란드	74,528,053,720
8	오스트리아	71,755,114,473
9	스위스	65,818,409,944
10	벨기에	52,784,159,48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20,740,019,373
2	중화인민공화국	111,403,725,543
3	프랑스	105,560,460,448
4	네덜란드	90,676,881,740
5	영국	77,061,018,485
6	폴란드	74,864,949,669
7	이탈리아	70,918,653,016
8	오스트리아	68,043,373,685
9	스위스	67,094,196,593
10	벨기에	50,245,804,207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16,847,052,655
2	네덜란드	95,969,888,618
3	프랑스	73,309,079,942
4	미국	71,872,287,636
5	이탈리아	62,592,910,299
6	폴란드	57,134,812,623
7	스위스	52,521,649,040
8	체코	51,695,518,232
9	벨기에	45,820,523,916
10	오스트리아	45,313,114,842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26,850,221,205
2	네덜란드	105,787,310,875
3	미국	78,425,092,835
4	프랑스	77,473,785,727
5	이탈리아	71,472,890,773
6	폴란드	65,445,748,902
7	체코	56,728,178,004
8	스위스	55,428,117,755
9	벨기에	54,044,077,250
10	오스트리아	49,513,244,75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24,669,037,832
2	네덜란드	97,975,021,471
3	미국	81,977,057,361

4	프랑스	74,195,987,630
5	폴란드	64,730,744,260
6	이탈리아	64,042,630,000
7	체코	53,613,481,342
8	스위스	52,802,080,868
9	벨기에	48,055,541,346
10	오스트리아	46,430,031,03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33,591,527,876
2	네덜란드	90,969,205,742
3	미국	78,556,498,077
4	폴란드	66,865,968,744
5	프랑스	64,725,901,781
6	이탈리아	61,543,043,183
7	스위스	53,661,906,823
8	체코	49,778,280,415
9	오스트리아	44,069,075,902
10	벨기에	42,711,841,609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61,602,402,793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7,980,800,914
3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45,537,493,674

4	300490	기타	42,334,100,034
5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29,551,216,868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17,464,406,105
7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5,138,907,387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2,607,800,458
9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1,687,386,898
10	271121	천연가스	11,459,928,784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5,013,762,764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63,598,171,126
3	300490	기타	45,077,302,394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7,980,617,816
5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29,915,138,103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1,681,695,970
7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6,688,055,215
8	271121	천연가스	16,507,209,042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4,363,157,927
10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2,666,397,40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9,390,768,023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7,585,765,286
3	300490	기타	45,781,333,289

4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30,885,561,699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0,341,558,119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0,063,066,610
7	271121	천연가스	16,552,745,787
8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6,146,107,572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4,473,929,315
10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2,916,992,94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9,844,603,408
2	300490	기타	49,110,964,552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1,924,282,956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2,253,698,629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1,273,693,904
6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9,346,254,293
7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4,925,498,497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2,314,946,667
9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1,633,070,592
10	271121	천연가스	10,619,448,724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3,547,674,21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6,159,970,633

3	271121	천연가스	32,851,886,719
4	300490	기타	22,630,111,446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9,486,934,883
6	271019	기타	13,971,276,027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3,018,228,876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941,761,047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1,681,098,921
10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1,157,355,307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5,159,476,803
2	271121	천연가스	45,538,960,023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5,081,721,378
4	300490	기타	25,055,489,218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8,870,480,804
6	271019	기타	17,528,886,179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3,558,856,439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3,041,289,937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2,903,481,117
10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1,462,412,78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7,029,136,214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0,745,646,709

3	271121	천연가스	38,897,956,145
4	300490	기타	26,761,662,835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0,710,760,600
6	271019	기타	17,458,364,695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6,217,295,638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4,046,188,172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582,851,897
10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830,820,13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4,173,512,993
2	300490	기타	29,444,704,296
3	271121	천연가스	28,690,233,164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502,475,108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6,202,319,254
6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3,510,122,582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3,294,329,334
8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12,132,566,872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1,368,278,329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0,780,126,679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8,484	19,749	-11,265
2018	9,373	20,854	-11,481
2019	8,686	19,937	-11,251
2020	9,576	20,681	-11,105
2021	10,196	19,836	-9,64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1,877	1,150	726
2	8352	축전지	1,011	35	976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700	627	73
4	7414	전기자동차	499	70	428
5	7411	승용차	819	5,703	-4,884
6	7420	자동차부품	575	678	-104
7	8121	무선전화기	239	1	237
8	2140	합성수지	199	334	-136
9	8138	전산기록매체	143	7	136
10	3203	타이어	152	73	7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1,706	1,333	373
2	8352	축전지	889	43	846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869	766	103
4	7414	전기자동차	819	165	654
5	7411	승용차	773	4,714	-3,941
6	7420	자동차부품	546	657	-111
7	8121	무선전화기	426	0	426
8	2140	합성수지	276	311	-35
9	8138	전산기록매체	184	7	177
10	3203	타이어	179	58	12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819	5,703	-4,884
2	2262	의약품	1,877	1,150	726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700	627	73
4	7420	자동차부품	575	678	-104
5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89	555	-467
6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1	399	-378
7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29	296	-168
8	8151	계측기	37	376	-339
9	7112	펌프	49	300	-251
10	2140	합성수지	199	334	-13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773	4,714	-3,941
2	2262	의약품	1,706	1,333	373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869	766	103
4	7420	자동차부품	546	657	-111
5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10	551	-441
6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8	443	-415
7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98	403	-305
8	8151	계측기	45	399	-354
9	7112	펌프	53	324	-271
10	2140	합성수지	276	311	-3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소스		
HS Code	210390	수입액('20/US\$백만)	507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2.4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간편 소스 수요 급상승 · 한국산 제품 브랜드 인지도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해, 독일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소스류(소스, 드레싱 및 조미료 포함) 매출은 '20년 47억 유로를 달성, 이는 '06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 시현, '21년 매출은 49억 유로로 전년 대비 4.3% 증가 전망 (자료원 : Euromonitor) · '20년 독일의 소스 및 소스용 조제품 수입 시장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 · '20년 대한 수입은 총 241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 '21년 7월 누계 +45.3% 증가하며 수입 지속 증가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소스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는 Knorr, Kuehne, Maggi, Thomy, Ostmann, Fuchs, Barilla 등이 있으며, 상위 4대 기업이 약 28%의 시장 점유율 보유 (자료원 : Euromonitor, '20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사용이 간편한 다양한 소스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편승한 시장 확장 노력 필요 · 독일인의 야외 그릴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특히 한국산 갈비 양념 소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를 보이는 경향 · 국내 기업은 독일 소비자의 취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독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권장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품 사용 설명과 라벨 표기로 제품에 대한 신뢰 제공 필요 		
품목명 2	변압기 부품		
HS Code	850490	수입액('20/US\$백만)	826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8.3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송전망 정책으로 디지털 친환경 변압기 부품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21년 독일 핵심 테마의 공통점이 전기 에너지 기반인 만큼, 독일 내 변압기 확보 중요성 증가 · 한국산 부품 수입액은 '20년, 전년대비 147% 증가 및 최근 3년 사이 3배의 증가세 시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하여 친환경 변압기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EU와 독일은 에코 디자인이 적용된 변압기 설치의 의무화(EU 548/2014)로 인해 관련 제품만 변압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 · 스마트 그리드를 목표로 한 전력망의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 변압기와 인쇄회로가 들어간 변압기용 부품이 변압기 시장에서 더 주목받는 추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기업 외에도 우수한 해외 기업이 독일 시장에 이미 진출 · 스위스 ABB, 독일 지멘스(Siemens), 보쉬(Bosch) 및 SEW-Eurodrive 등이 강세 · 국내 기업 현대 일렉트릭, (주)효성, LS 산전 등이 진출해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통해 유통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필수 관문 · 현지 시장에서 4대 전력망 공급사가 주요 고객이라는 점은 반드시 숙지해야함 · 독일 현지 기업과 전력 변압기 관련 기술협약, 제품 개발 및 해당 기업의 도움을 받아 독일 시장을 파악한 후, 진출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 · 유럽권 지역의 국가에 진출 후 이를 바탕으로 독일에 진출하는 전략도 시도되고 있음 		
품목명 3	스낵		
HS Code	190590	수입액('20/US\$백만)	1,745
수입관세율(%)	01	대한수입액('20/US\$백만)	2.6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내 웰빙 스낵(비건, 무설탕 및 슈퍼푸드 등)이 급부상하는 추세 · 특히 독일 현지 내 비건 인구(완전 채식주의자)가 몇 년 사이 급증하는 등, 비건 트렌드는 더욱 확산될 전망 · 김은 '비건(Vegan) 트렌드'와 맞물려 건강식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주목받으며 수요 증가 전망 · HS코드 190590을 기반으로 한 비스킷, 제과류의 경우, 독일의 대한민국 수입이 전년 대비 24.7%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사비, 견과류, 치즈 등이 첨가된 김 스낵과 같이 김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면서 독일 현지 대형 유통체인(Edeka, Rewe, HIT 등) 및 아마존(Amazon.de)을 통해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중 · 북독일 방송 NDR의 2020 보도 내용 중,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특히 비건 애용자에게 이상적인 식품이라고 소개 · 독일 최대 비건 매거진 'Deutschland is(s)t vegan' 에서 김을 비건을 위한 슈퍼푸드로 소개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브랜드 'Veganz, Heimatgut'의 다양한 제품을 비롯하여 Kuehne, Funny-Frisch 및 the nu company GmbH 등의 완두콩, 병아리콩, 파스닙, 레드비트 및 라즈베리 등 슈퍼푸드라 불리는 식품을 활용한 다양한 스낵이 독일 대형 유통업체인 Rewe, Edeka 등을 통하여 꾸준한 판매되는 추세 · 이밖에도, 기존의 식품 업체들이 비건 및 슈퍼푸드와 관련한 제품을 꾸준히 출시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독일 내 비건 및 슈퍼푸드 스낵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현지 시장 적극 공략 필요 · 독일 연방 정부가 '25년까지 식료품의 트랜스지방, 나트륨 및 설탕 함유량 규제를 시행 계획을 밝힌 만큼, 독일 내 함유량 규제 준수 필요 · 독일 내 소비자 취향(글루텐 프리, 유당 불포함 식품 선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독일 소비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포장재 사용에 대해 적극 고려 필요 		
품목명 4	드론		
HS Code	852580	수입액('20/US\$백만)	2,62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38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연방정부가 도심 항공 교통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드론 운송 상용화에 공공투자 가능성 증대 · 촬영 등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 성장으로 드론 수요 증가 예상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20년 드론 시장 규모('21년 3월 기준)는 총 8억 3,900만 유로로 '19년(5억 7,400만 유로)대비 약 46% 증가 · 독일무인항공협회는 독일 드론 시장이 '25년까지 연평균 14.5%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5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6억 4,9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독일 드론 시장에서 조사, 측량, 매핑, 데이터 수집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크게 증가. '20년 분야별 시장 규모 중 서비스 시장은 전년 대비 102.7%나 증가한 6억 유로를 기록하였고, 전체 시장에서 71%의 점유율을 차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창립된 독일 스타트업 볼로콥터가 20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대형 화물 드론 볼로드론(VoloDrone)을 개발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드론 시장에서 서비스 분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 산업용 드론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용 드론 또는 부품 수출에 주목할 필요 · 도심 항공 교통 상용화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 지원을 받는 독일 업체와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 모색 		
품목명 5	반려동물 트래커		
HS Code	851718	수입액('20/US\$백만)	233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0.3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의 연구 보고서 'Pet Care in Germany(2020)'에 따르면, 향후 독일 반려동물용품의 트렌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여 반려동물을 케어 및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 · 이러한 맥락에서 반려동물 피트니스 트래커, GPS 트래커와 같은 디지털 반려동물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독일 반려동물용품 온/오프라인 소매 총매출은 전년(50억 3,000만) 대비 6.1% 증가한 53억 3,500만 유로로, 이 중 오프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84.6%인 45억 1,300만 유로, 온라인 매출은 8억 2,200만 유로를 기록 · '13년부터 온라인 소매 유통시장이 연평균 10.8%의 성장률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오프라인을 통한 유통이 주를 이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독일에서는 오스트리아 업체 Tractive, 벨기에 업체 Inoxia, 이탈리아 업체 Kippy 등의 반려동물 트래커 제품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한국 제조사들은 독일 시장에서 현재 선두 브랜드의 기본 입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통계 전문 기업 Statista의 글로벌 소비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디지털 반려동물용품의 사용률은 4%로 중국 24%, 미국 10%, 영국 8%에 비해 낮은 편, 디지털 용품 사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 따라서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이 우수하고 상시 보안 업데이트가 가능한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품목명 6	대체육		
HS Code	210610	수입액('20/US\$백만)	89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0.002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비건(완전채식주의자, Vegan) 인구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체육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고기, 햄버거, 소시지 등 대체육 식품 종류가 다변화하여 비건이 아니라도 건강식 차원에서 대체육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 추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비건 박람회 베지월드(VEGGIEWORLD)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 비건 인구는 '20년 기준 113만~260만으로 추정되며, 이는 과거와 비교할 때 급격한 증가세 * 예를 들어 '08년 독일의 비건 인구는 8만 명 미만에 불과 ·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비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육 생산량도 증가, '20년 독일 대체육 생산량은 8만 3,700 t으로 전년 대비 2만 3,300 t이 증가 · '20년 독일 대체육 총매출은 3억 7,490만 유로로 전년(2억 7,280만 유로) 대비 37.4%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 전문 업체 SPLENDID RESEARCH가 '20년 6월 유연한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독일의 채식주의자 1,464명을 대상으로 대체육 생산 업체의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독일 대체육 생산 업체 중 인지도 1위는 Alnatura(68%), 2위 Ruegenwalder Muehle(67%), 3위 Alpro(63%) 순으로 나타남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육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독일인들의 식품 소비 성향을 파악하여 접근할 필요 有, 독일에서는 대체육 중에서도 소시지와 햄과 같은 품목의 수요가 많으므로, 독일인들의 식품 소비 성향을 고려한 대체육 소시지나 햄 등의 개발이 필요 · 다만, 독일 대체육 생산 업체와의 차별성을 위해 예를 들어 간장, 고추장소스를 활용하여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차별화 전략도 요구 		
품목명 7	산업용 협동로봇		
HS Code	847950	수입액('20/US\$백만)	368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3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설치 기준 221,500대로 유럽 전체 규모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최대 시장 · 협동 로봇은 전자산업 분야와 자동차산업에서의 활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 반도체, 식품, 플라스틱 제조 산업분야 순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독일은 아주 매력적인 시장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로봇비율 지수를 나타내는 로봇밀도 통계에서 독일은 전 세계 상위 10개국 중 4위를 차지, 산업인력 10만 명당 로봇설치 대수 기준 싱가포르(918), 한국(855), 일본(364)에 이어 독일은 346대로 유럽 내 로봇 사용 비율이 최고 수준 · 전 세계 협동로봇 시장의 경우 '28년까지 매년 15~20% 규모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특히 일반 산업 분야 외에도 교육, 의료, 물류, 소매 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산업용 협동로봇 경우, 덴마크 Universal Robots의 인지도와 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일본, 스위스, 중국, 한국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협동로봇 제품의 가격대는 가반하중 5~7kg 모델 기준 17,000~30,000 유로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제조사 및 제품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나 협동 로봇의 제품은 단순 가격으로만 구매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제품별 특성이나 서비스 지원 등 제품의 구매 결정에 다양한 요소가 고려됨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로봇제품 유통기업과 협업) 협동로봇 제품의 경우 제품의 성능 외 현지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제품 문제 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이 필요함 		
품목명 8	피트니스 용품		
HS Code	950699	수입액('20/US\$백만)	482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1
선정사유	· 독일은 생활 스포츠가 발달된 나라로 EU 국가 중 피트니스 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트니스 시장이 주춤하다가, 비대면 디지털 피트니스가 트렌드로 떠오르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 '20년 독일 피트니스 분야 총매출액은 41억 6000만 유로로 지난 십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24.5% 감소함 · 코로나19 이후 독일 록다운에 따른 운영 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피트니스 산업 내 부에서는 플랫폼의 변화(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 홈 트레이닝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활기를 띠고 있음		
경쟁동향	· 독일 시장점유율은 중국(45.85%), 프랑스(6.26%), 체코(6.25%) 순임 · 현재 독일 피트니스 산업에서 주목을 받는 부문은 비대면 퍼스널 트레이닝 디지털 플랫폼과 홈 트레이닝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트니스 코칭 앱 등이 있음		
진출방안	· 현재 유행하는 운동 플랫폼들은 디지털과 운동기구의 만남, AI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IT 관련 스타트업들이 독일 피트니스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독일 피트니스 시장 진입을 노려볼 만함		
품목명 9	전기차 충전기		
HS Code	850440	수입액('20/US\$백만)	5,07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35
선정사유	· 독일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정책적으로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되고 있으며,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가는 모빌리티 격변기와 맞물려 미래 성장 낙관		
시장동향	· 현재 EU에는 175,000개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며 '30년까지 EU의 정치적 목표(탄소 배출 감소)에 근거하여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충전소(220만개)가 필요함 · '20년 4분기 독일에 설치된 총 전기차 충전기수는 20,755대로 전년도 대비 약 18% 증가했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		
경쟁동향	· '20년 독일의 전기차 충전기 수입규모는 총 50억 6,950만 유로이며, 전년대비 37.7% 증가함 · '20년 전기차 충전기 대독일 수출국 1, 2, 3위는 중국, 헝가리, 오스트리아로 수입시장의 약 45%를 차지, 지난 3년간 중국은 부동의 1위 유지		
진출방안	· (협업 및 연구개발) 독일에는 규모가 큰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가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충전기 가운데는 IT 기술이 결합된 결제 수단과 계량기, IoT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제품도 있음 · 꼭 완성이 아니어도 IT 기술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독일 기업과의 협업 및 연구개발 참여로 시장진출을 노려볼만함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p>품목명 1</p>	<p>금융</p>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브렉시트 선언 이후 독일(프랑크푸르트)가 런던의 대체 가능한 주요 금융 중심지로 주목 ·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현지 사무소 소재, 특히 국내 자동차 금융 서비스 제공 기업 및 손해보험사 진출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신차 구매 고객의 80% 이상이 자동차 판매사의 전속 금융사 이용 · 코로나19 이후 독일 내 금융 분야에서 온라인 banking, 모바일 banking 및 비접촉 결제 수단의 확대 ·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인해 현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독일의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높은 성장이 지속될 전망 · 아울러 디지털 전환·민간 가상화폐 확대로 인해 디지털 결제 수단의 효율성과 중앙은행 화폐의 안전성을 결합한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도입이 앞당겨질 전망 * 독일 내 주요 완성차 기업은 자동차 관련 금융상품 판매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현지기업이나 인근 유럽국가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나, 자동차 금융과 같은 특수 금융의 경우 현대 캐피탈이 진출하여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할부와 리스, 딜러 금융, 보험 중개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 중 · 이 외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지점 및 사무소 형태로 독일에 진출 *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 법인은 주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출, 송금, 외환(수출입), 자금 등 은행 전반 서비스 제공 · 현재 독일 내 26개 로보어드바이저가 있으며, 'Evergreen'은 독일 투자 전문사이트 ExtraETF의 최고점을 부여받은 신흥 스타트업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보다는 자동차 할부 금융과 같은 특화된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이 보다 유리하나, 이 역시 대기업 계열사와의 협업 하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 · 현지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 절차 소요 · 한국과 비교하여 보수적 성향이 강한 독일 금융 소비자들을 고려하여,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맞춤형 고객서비스, 유선/온라인 상담 기회 및 투자 관련 교육컨텐츠 등 다양한 전략 필요
<p>품목명 2</p>	<p>물류</p>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유럽 제1의 물류국이자, 세계 3위의 수출국 및 수입국으로 국제 물류 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 국내 주요 물류 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편 · 독일은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통 인프라, 고효율 물류 구조 및 Amazon, Zalando 등을 주축으로 한 온라인 유통 증가로 시너지 효과 창출 ·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하여, 기업들은 독일을 유럽 내 주요 거점으로 진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은 꾸준히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독일 내 물류 분야 예상 매출은 2,720억 유로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대비 대략 5% 감소 · '20년 독일 물류 분야의 매출은 EU 매출의 25% 차지하며, '21년 독일의 물류 분야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 전망 · EU는 '21년 3.15일 새로 도입된 ICS2(Import Control System 2)를 기반으로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상품을 사전에 신고하는 새로운 EU 관세 프로그램 IOSS을 도입해 전자상거래 시장 규제 강화 추세 · * IOSS '21년 7.1일부터 시행되는 150유로 이하의 B2C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 폐지 및 부가세 부과, ICS2는 배송상품에 대한 전자보안신고관리시스템임 · 따라서 기존의 3PL 물류 서비스에 IT와 컨설팅 분야까지 통합하는 4PL(Forty Party Logistics)의 중요성 확산 · 많은 업체들이 지연된 물류 업계의 여파로 추후 재고 매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인공지능, 자동화는 물류 분야 투자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독일의 물류창고·스토리지 사업은 '20년까지 연 13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2% 이상 성장 전망, 단, 화물 하역(cargo)분야 매출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최근 독일은 물류운송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4차 산업과 ICT 환경과의 결합을 통하여 자동 화물처리·배송 시스템, 지능화된 물류창고 운영 등의 기술을 선보이며 부가가치 창출 · '21년 기준, 독일의 물류 분야의 투자 계획은 물류 소프트웨어가 69%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 그 뒤를 이어 창고 부문이 52%로 2위를 기록 (자료원 : Statista)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70,000개 이상의 기업이 독일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중소·중견 기업 · 독일 Deutsche Post DHL, 도이체반(DB)(물류)이 연매출 각각 104억 유로, 75억 유로로 1, 2위('19년 기준,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자료), 이 외 Dachser, Kuehne + Nagel, Rhenus 등이 높은 입지 보유, 이외에도 미국의 UPS, 프랑스의 DPD 및 스위스의 Panalpina 등도 독일 시장 내 높은 인지도 보유 (자료원 : Statista/ DVZ(독일교통신문)) · 특히, 독일 Deutsche Post(DHL)은 '21년 전 세계 브랜드 가치 부분에서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5위 달성 · 세계 제1의 물류업체 Deutsche Post는 전기운송차량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 등 친환경 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동화·ICT 기술 도입 시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MAT, LogiMAT 등 주요 전시회 참가를 통한 거래선 접촉이 중요 · 유럽 제3의 항구이자 독일 최대 물류 집적지인 함부르크, 독일 내륙운송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등을 거점으로 고려 가능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초기 시장 진출 이후, B2C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독일을 주요 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 권장 · 코로나19 이후 해상 운임 비용의 급증으로, 철도 운송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철도 운송 진출 모색 권장 · 물류기업의 경우 현지 물류 전문 인력 고용에 큰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인력 채용 준비 역시 매우 중요
품목명 3	관광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관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음 · 특히 록다운으로 인해 여행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보복 소비'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7월 독일 숙박업 매출은 전월에 비해 약 21% 상승하였으며, '21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자료원 :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는 아니며, 이후 EU외 국가에서의 관광객 유입이 커질 것으로 보여 관광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서비스로는 전통적인 패키지여행인 ‘출발지여행업’과 로컬 워킹 가이드 투어 및 현지화 서비스 등의 ‘도착지여행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여행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로컬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기가 많음 ·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티켓, 투어, 쿠칭클래스 등 여행 관련 예약앱 플랫폼 겐유어가이드(GetYourGuide)는 '21년 총 1.35억 유로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독일 내 스타트업 중 6번째로 많은 투자액을 기록함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색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투어가 인기가 많음. (예 : 냉전과 제3제국 역사 투어 및 드랙퀸이 보여주는 베를린 등) · 쉬운 예약 또한 중요하여 접근성이 좋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수
품목명 4	의료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의료기관의 44%만이 의료데이터를 디지털로 주고 받고 있으며, 일반의들의 93%는 아직까지 주로 종이형태의 자료를 사용 · E-헬스 부문(M-헬스, 모바일 건강의 줄임말)은 수년 동안 창업 현장에서 떠오르는 주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음. 기술 부족, 도시화 및 인구변화는 의료시스템의 현대화를 필요로 함 · 코로나19는 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소비자 내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시켰음 · 독일 연방 보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의료 디지털화의 많은 이점을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며, 다가올 미래의 의료혁신을 위해 준비 중임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헬스 관련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DiGA)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19년 12월 디지털 의료법을 제정한 후, 독일 창업 현장에서 유행하는 주제 중 하나임 · 독일의 성공적인 디지털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Digital Health 2025' 혁신 포럼을 시작했으며, 20개 이상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자 치료 개선 프로젝트 진행 중임 · 독일 의료의 디지털화의 중점은 전자 건강 기록(ePA), 전자 처방전의 도입, 디지털 의료 어플리케이션 개발, 원격 의료, 연구 데이터 센터 설립, 의료 웨어러블을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 등임 · VC투자자 Speedinvest는 지난 10년간 총 9억 유로를 DACH 3국(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지역의 디지털 건강 스타트업에 투자, 이와 같이 DACH는 유럽의 디지털 건강 환경에 매우 중요 · 의료 분야의 디지털 솔루션은 특히 팬데믹 시대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제임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E-health 관련 많은 스타트업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그 중 주목할 만한 기업들로 'Medloop Kamet'(환자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elfapy'(온라인 치료 프로그램), 'Caspar'(디지털 치료 플랫폼), 'Temedica'(동반의료 및 건강 예방 관리 디지털 솔루션) 등이 있음 · 한편, 스위스의 헬스 관련 투자자인 MTIP 등은 제2형 당뇨병 치료법을 제공하는 오비바(Oviva)에 2,100만 달러를 투자함 · 뮌헨 E-헬스 스타트업인 테메디카(Temedica)는 의료 지원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며, 1,700만 유로 투자유치를, 의료 시설에서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 카스파(Caspar)는 520만 유로의 투자 유치에 성공함 · 이외에는 골반 운동을 위한 B2C 앱인 펠비나(pelvina), 등허리 치료를 위한 개별 의료지원 시스템인 미네오(Mineo) 등이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헬스) 독일 사용자는 자신의 건강 지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관심이 있지만, 혈압, 맥박수, 수면 시간, 이동 거리, 스텝 수 등을 추적하는 것에는 달가워하지 않음 - 앱은 정확도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추적하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표시 및 저장하고, 사용자 지표를 통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한 건강 지표 개선에 대한 조언 제공 필수 · (B2G 모델)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독일 내 환자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의사들의 더 빠른 진단을 도울 것임. 요즘 암 치료처럼 인공지능 요법은 또한 개별 환자를 조정하는 데 사용될 전망 - 따라서, B2G 모델로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의 개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이 외, 현지 스타트업 행사 참여 및 현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 ·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현지기업과의 협업 관련 전시회(Medica) 참가
품목명 5	게임(SW)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독일 게임 관련 매출액은 85억 유로로 세계 5위의 게임소비국임 · 독일 게임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전 세계 게임 관련 기업의 활발한 마케팅 활동의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게임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플랫폼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며 '20년 독일 In-App 구매 매출액은 약 22억 유로로 지속 증가 예상 · '20년 기준 약 2,260만 명의 독일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을 하며, 990만 명의 독일인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기준 독일 내 게임 및 제작 판매하는 기업은 총 749개사 有 · '20년 기준 독일 내 게임 제작 및 배급사 종사자 수는 10,071명이며, 게임 유통 및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18,164명으로 게임관련 종사자는 총 28,235명임 · '20년 독일 게임 제작사 자체개발 게임의 매출액은 1억 9,100만 유로로 전체 매출액 4.2% 차지함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게임시장 진입 시 보통은 게임 유통사 및 퍼블리셔를 통해 수출이 이뤄지며 합자 및 투자법인 설립을 활용할 수 있음· 독일 게임 트렌드를 파악, 문화 분석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한 마케팅으로 진출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게임 산업 전문 전시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진출방안 중 하나임
------	---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 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 4.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6-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0. 9.)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름(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 1.)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EPA(Ec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on omic Partnership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5.)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6.10.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함의 2009.12.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중, 직전 협상 2021.11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중, 직전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중, 직전협상: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직전 협상 : 2013	2021.5.8. 협상 재개 합의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중, 직전협상: 2021.6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중, 직전협상: 2021.6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중, 직전협상: 2020. 7.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중, 직전협상: 2019. 4.	
FTA(Free Trade Agreement)	영국	협상중, 직전협상: 2020. 6. 1.	2020.12.31. 협상완료를 목표로 두고 추진 중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o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o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o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 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o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 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o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공개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환 기간을 두고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인증서 구매 필요 없이 탄소배출량에 대한 신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으로,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기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계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

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한편, 22유로 미만 소규모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수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가격을 22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빈번했다고 밝히며 면제제도의 폐기이유를 설명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1.4.19.)

2021년 4월 19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

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

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함부르크(Hamburg) 무역항: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한 함부르크 항은 유럽 내 물류 이동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교통망이 잘 발달해 화물 하역 후에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도시 간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함부르크항은 주간 1,300대의 화물열차가 운행되는 유럽 최대의 철도항으로, 총 물동량의 50%는 철도, 10%는 내륙 수로를 통해 운송하고 있다. 함부르크항은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구이며, 유럽 제3위 세계 제18위의 무역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4개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3개의 크루즈 터미널이 구비되어 있다.

○ 브레멘(Bremen) 항구는 브레머하펜(Bremerhaven)과 브레멘 항구를 아울러 이르는 명칭으로 독일 제2항, 유럽 제4항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물동량 세계 1위 항구이기도 하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 아래 TEU는 'Twenty 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20피트 컨테이너를 의미한다.

2020년 기준 독일 함부르크 무역항의 화물 처리량은 1억 2,630만 TEU이다.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벌크화물은 3,850만 TEU로 6.7% 감소했으며, 일반화물 8,780만 TEU로 6.7% 감소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850만 TEU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이중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420만 TEU로 전년 대비 8.2% 감소를 나타냈으며,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440만 TEU로 7.8% 감소를 기록했다.

브레멘 항만 물동량: 2020년 브레멘 항만의 총 화물 처리량은 6,650만 t으로 전년대비 4.2% 감소를 기록했다. 컨테이너 총 물동량은 480만 TEU로 전년대비 1.8% 감소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총 화물 처리량은 3,520만 t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를 기록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11.1%가 증가한 총 259만 TEU를 기록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독일의 주요 국제공항은 주요 대도시에는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으로는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과 뮌헨 공항을 들 수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독일 항공 물류 산업의 주요 허브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공항,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쾰른/본 공항이 대표적이다. 2020년 항공 물류 물동량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전년 대비 8.6% 감소한 191만 t,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은 12% 증가한 138만 t, 쾰른/본 공항은 5% 성장한 84만 t 등의 순이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2020년 기준 연 21만 2,235회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는 1,877만 명이다. 뮌헨 공항의 2020년 항공기 운항은 14만 회이며 승객수는 1,100만 명이다.

3) 유의사항

독일 정부는 지속 가능,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7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포장재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순환 경제 실행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포장의 등록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판지 상자, 배송 포장재, 완충 포장재, 라벨, 팔레트 등과 같은 모든 포장재로 확대 적용된다.

독일 포장재 법은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 포장재 법 개정안은 포장의 등록 범위와 책임을 확대해 포장재의 재활용·수거·폐기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독일 진출 국내 제조 및 물류 유통기업은 독일 포장재 법을 잘 준수해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4) 기타 참고사항

독일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페마른(Fehmarn) 섬과 덴마크 로란(Lolland) 섬 사이를 연결하는 페마른벨트(Fehmarnbelt) 해저 복합 터널은 2021년 1월에 건설 작업을 시작하여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Fehmarnbelt 터널은 길이 18km의 도로 및 철도 교통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긴 침수 터널이 될 것이다. 향후 함부르크 항과 스칸디나비아를 잇는 철도 운송이 본격화되고 물동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함부르크 무역항 홈페이지, 브레멘 항구 홈페이지, ADAC, Statista, Handelsblatt, 물류전문지 DVZ,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수입 통관

□ 구비 서류

-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Konnossement)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 원산지 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 Ursprungszeugnis) (경우에 따라 필요)
-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 Luftfrachtbrief): 항공편을 이용해 물품 운송 시

□ 수입 통관 절차

- 1단계: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 2단계: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2) 수출 통관

○ 1단계: 통관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수출 면장(수출신고필증, Ausfuhranmeldung 또는 Ausfuhrerklaerung 또는 ABD(Ausfuhrbegleitdokument))
 - * 독일에서는 EU 역외 수출 시 수출품이 1,000유로 또는 1,000Kg 이상의 경우 제출 의무 (EX-1 양식)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 물품의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 수출품

○ 2단계: 고유번호 발급

-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받는다.
- 통관시스템으로 함부르크항은 Dakosy사의 ED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 ZAPP: Zoll Ausfuhrueberwachung im Paperless Port
- * B-Nummer: Bearbeitungs-Nummer

○ 3단계: 운송

- 수출품을 해상, 항공편 등을 통해 운송

3) 전시 물품 통관

한국과 독일은 전시 통관 관련 협정을 통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까르네를 통해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7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전문장비(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

(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 독일 세관
- 독일 세관 홈페이지(zoll.de) - Unternehmen - Fachthemen - Zille - Zollverfahren - Vorübergehende Verwendung
- 링크: https://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verfahren/Voruebergehende-Verwendung/Carnet-ATA/carnet-ata_node.html

4) 기타 개인 물품 통관

독일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배편으로 받는 경우 약 50~70일이 소요되며, 대부분 함부르크 무역항으로 도착한다. 항공으로 배송되는 경우 약 5~7일이 소요되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포에는 제품 구매 가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 포함돼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 배송 지역 세관에 1차적으로 보관을 하게 된다. 수신자는 세관으로부터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소포를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때 편지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관으로 찾으러 가야 하며, 2주 경과 시 반송이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관에서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건이 즉시 배달되지 않고 세관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으므로, 중요 행사 등 특정 시기에 꼭 필요한 물건일 경우 3~5일 전에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세관에서 지체될 것을 감안해 최소 2~3주일 전에 물건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2025년부터 EU 내 중앙집중식 통관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 상당한 애로로 작용하였다. 이에, 향후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

- DDP 조건의 경우,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

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2007년 19%로 인상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독일 부가세 환급 시 별도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이는 환급 관련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환급 기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o DAP: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 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독일 베를린 상공회의소(IHK)에서 제공한 인코텀즈 무역 운송 조건 내용에는 DAP와 관련 수입자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Import customs clearance(수입통관)와 Import taxes(수입관세, Einfuhrumsatzsteuer) 등은 수입자 부담으로 기재돼 있다.

2) 수입 제한, 감시, 관리를 요하는 품목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at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 경제수출관리청(BAFA, Eschborn 소재)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관리 관청의 선택 기준, 즉 BAFA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3에 명기돼 있다). 수입목록(Einfuhrliste)에 'EKM(Einfuhrkontrollmeldung, 수입 관리 신고)'로 명기된 품목(예: 시장 관찰, 수입 할당량 감시 품목)들은 BAFA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으나 통관 시에 세관에 수입 관리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o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 허가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 수입 허가(Genehmigung)를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제 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수입 라이선스(Lizenz)를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 4컬럼에 'L'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라이선스(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이 별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 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 원산지 증명(UZ: 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5컬럼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예: 특정 원산지 국가의 섬유제품)하다. 또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신고서(UE: Ursprungserklaerung)가 필요하다.

o 수입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수입 규제 품목

- 일반적 규제: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 차원: 무기, 탄약, 화학무기 제조를 위한 화학물질, 폭발물, 방사성 물질, 청소년 유해 및 위위 서적 또는 미디어 등
- 환경보호 차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존층 파괴 물질(불소화가스 등), 살생물제(살충제), 유독 화학물질(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 수은혼합물, 폭발물, 화학 무기 제조를 위한 화학 물질 등)
- 건강보호 차원: 화장품, 담배류, 식품류, 와인, 유기농제품, 의약품, 마취제 등
- 이 외 동물, 식물,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재 보호 차원의 수입 제품

3) 2021년 7월 1일 신규 시행 예정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o 22유로 이하 물품 수입/배송 시 적용되던 소액면세 규정이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며, 이에 따라 150유로 이하(배송료도 포함)의 물품 배송에도 부가세 적용

- 150유로 미만의 물품은 수입 관세는 면제이지만, 부가세와 물품세(소비세)는 적용

- 150유로 이상의 물품은 수입 관세 및 부가세와 물품세(소비세) 적용

* 부가세는 품목에 따라 19% 또는 7% 적용/ 물품세(소비세)는 담배, 주류, 향수 등에 붙는 특별 소비세임

- 또한 이와 관련해 소액 물품 역시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 세관 신고*의무화
 - 독일의 경우 www.zoll-portal.de 상 ATLAS 시스템, 특히 150 유로 이하의 소액 물품 배송 시 ATLAS-IMPOST(2022년 1월 15일 오픈 예정)
 - 개인 이용은 자유이며, 기존과 같이 DHL 등 배송업체가 대신 신고 가능(대행 수수료는 배송업체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 요망)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CJ 대한통운(株) 독일법인 CJ Logistics Europe GmbH

주소	Isarstrasse 4 , 65451 Kelsterbach
전화번호	070 4990 7774
이메일	sk.park1@cj.net
홈페이지	https://www.cjlogistics.com
비고	* 인터넷 전화로 국가번호 불필요하다고 함.

○ 에이치앤 프렌즈 H and Friends GTL

주소	Cargo City Sued, Geb.641, 6054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6959 2129
이메일	fra@hnfriends.com
홈페이지	http://www.hnfriends.com
비고	문의접수 : http://www.hnfriends.com/user/action/contactForm.do

○ 판토스 Pantos Logistics Germany GmbH

주소	Waldecker Str. 6-12, 64546 Moerfelden-Walldorf, Germany
전화번호	+49 (0)6105 4053 126
이메일	jack.kim@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

○ IMPEX GLS GmbH

주소	Am Gruenen Weg 2a, 65451 Kelsterbach, Germany
전화번호	+49 (0)6107 7576 00

이메일	fra@impexgls.de
홈페이지	http://impexgls.com/
비고	함부르크 지점 : Alter Fischmarkt 1, 20457 Hamburg, +49 (0)40 2483 566, ham@impexgls.de

◦ 카고킹 Cargo King GmbH

주소	Werrastr. 6, 65479 Raunheim, Germany
전화번호	+49 (0)6142 87389223
이메일	admin.de@cargoking.eu
홈페이지	http://cargoking.eu/
비고	함부르크 지점 : Chilehaus A. Fischerwiete 2, Hamburg, Germany, +49 (0)40 3200 5133, sesil.kim@cargoking.eu, 현재 홈페이지 조정 작업으로 접속 불가

◦ 퀴네앤드나겔 KUEHNE + NAGEL

주소	Cargo City Sued, Gebaeude 554, 60549 Frankfurt am Main, Germany
전화번호	+49 (0)69 40040
이메일	admin.de@cargoking.eu
홈페이지	https://de.kuehne-nagel.com/de_de/
비고	본사는 브레멘 소재, 문의접수 : https://de.kuehne-nagel.com/de_de/media/kontaktieren-sie-uns/, 한국에서 문의시 https://kr.kuehne-nagel.com/ko_kr/sangdan-ringkeu/gogaegsenteo 사용

◦ 유수로지스틱스 EUSU Logistics B.V. Germany

주소	Fasanenweg 10, 65451 Kelsterbach, Germany
전화번호	+49 (0)6107 989 8380
이메일	csgermany@eusu-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www.eusu-logistics.com

◦ World Asia Logistics, Inc

주소	Cargo City Sued, Geb. 644, 60549 Frankfurt Flughafen, Germany
전화번호	+49 (0)69 653 0020
이메일	fra@myworldasia.com

홈페이지	http://www.myworldasia.com/
비고	함부르크 지점 : Suederstrasse 63, 20097 Hamburg, Germany, +49 (0)40 2380 5870, ham@myworldasia.com

◦ Atlantic Integrated Freight GmbH(A.I.F.)

주소	Am Prime Parc 13, 64579 Raunheim, Germany
전화번호	+49 (0)6142 60370
이메일	davidcho@atlanticif.com
홈페이지	http://aifcompany.com/
비고	함부르크 지점 : Frankenstr. 3, 20097 Hamburg, Germany, +49 40 548 0460, seanham@atlanticif.com

◦ 리 글로벌 로지스틱 LEE Global Logistics GmbH

주소	Cargo City Süd 537D, 60549 Frankfurt, Germany
전화번호	+49 (0)69 697 699 420
이메일	info@lee-global.com
비고	별도 홈페이지 운영은 하지 않으나, JCL사(www.jcl-logistics.co.kr)의 에이전트 역할

◦ 센토스 CENTOS Central Logistics GmbH

주소	Karl-Ferdinand-Braun-Str. 16, 21423 Winsen(Luhe), Germany
전화번호	+49 (0)4171 59450
이메일	info@centos.com
홈페이지	https://www.centos.com

◦ DK Europe GmbH

주소	Max-Planck-Str.16, 63303 Dreieich, Germany
전화번호	+49 (0)6103 995 8887
이메일	info@dk-networks.de
홈페이지	http://www.dk-networks.de

◦ 롯데 글로벌 로지스 독일법인 LOTTE Global Logistics.Germany GmbH

주소	Seinestr.2, 65479 Raunheim, Germany
전화번호	+49 (0)6142 921241
이메일	jackielee@lotte.net
홈페이지	https://www.lotteglogis.com/english/logistics/international
비고	함부르크 지점 : Teilfeld 5, 20459 Hamburg, Germany, +49 (0)40 1897 119 20, jackielee@lotte.net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및 각 업체 홈페이지 및 개별 유선 확인>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독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특별한 투자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단, 독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유치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외국인 투자가 구별 없이,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현금지원, 저리 대출 등의 인센티브는 부여하고 있다.
- 낙후된 지역경제개발(특히 구 동독지역)을 위한 EU 차원의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지원이 지속되고 있다.(이하 투자인센티브제도 참고)
- 최근 독일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은 미래산업을 비롯해 기반산업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제조업 및 특정 서비스 산업(숙박 및 관광산업 등)과 창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으므로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투자기업에 대한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지원사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 현금지원제도

-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이하: GRW) 프로그램은 지역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 처음 도입된 연방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이며, 주로 구동독 지역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4년 7월 1일부로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동 지원책은 관련 유럽 보조금 지원 규정이 계획대로 연장되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현 지역 지원제도 유지를 승인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 주 관할기관은 연방 주 정부 산하 투자 지원기관 및 연방주 지원기관이며, 산하 연방주 및 도시별 투자지원기관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인센티브 신청 대상기업은 GRW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조업 또는 상공업 및 관광업 분야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36개월 이내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농경업과 어업 관련 제품의 단순 가공 및 유통 분야의 경우 지원이 다소 제한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투자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 신규 사업장 구축
 - 기존 사업장 확장(중소기업에 국한)
 - 제품 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 기존 고정 사업장의 전체 생산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투자
 - GWR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역에 위치한 폐쇄된 사업장 또는 폐쇄 위기인 사업장 인수
 - 대기업에 경우, 독일 및 유럽연합의 환경 보호 기준 이상의 환경보호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할 경우 환경 보호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가능
- 인센티브 지원규모는 기업의 규모와 투자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규모는 중기업의 경우 20%, 소기업의 경우 30%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의 경우 유효 산정비용의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투자실행 이전에 연방정부 및 관할 주의 공공 투자지원은행(KfW 또는 Foerderbank)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향후 2년간 투자규모 포함)를 제출한다.

2) 재정 지원 제도

- 연방 및 연방주 차원에서 공공 투자지원은행(KfW 은행 또는 각 연방주 Foerderbank)을 통한 저리대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유럽 투자은행(EIB) 역시 독일을 포함한 유럽 내 투자자를 위한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독일 내 해외 투자기업도 이러한 투자지원은행의 대출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이자는 시장 내 평균 수준을 밑돈다.
- 공공보증 프로그램(Public Guarantees)도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공공은행(Public Bank)이 신규로 설립되는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도록 마련된 금융 제도이다.
 - 동 프로그램은 필요한 자금, 기업규모 및 투자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투자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기업 유동자금 대출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 만기는 일반적으로 15년(자금 대출) 또는 8년(기업 유동 자금대출)이며, 대출 기간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3) 투자유치지원기관을 통한 투자자 지원

- Germany Trade and Invest(독일무역투자청, 이하 GTAI)
 - GTAI는 2009년 1월 1일 설립된 독일의 무역투자진흥기관(TPO 및 IPO)이다.
 - 본사를 베를린과 본에 두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5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GTAI는 세계 92여 개국에 약 14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해외 상공회의소(AHK: Auslandshandelskammer, Germ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등과의 밀접한 협력 속에 잠재 투자자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초기부터 지원하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투자유치 업무에 경우 크게 프로젝트 관리 지원(시장 및 사업 잠재력 분석, 시장진입 전략 기획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투자 입지 자문(투자입지 물색, 비용분석, 입지실사 지원 등) 및 정착 서비스(프로젝트 관련 법률 및 회계 이슈 설명, 자금조달 및 인센티브 상담 지원 등) 등으로 분류되는데, 산업별로 투자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한 기업 정보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tai.de/gtai-en/meta/contact>
 - 독일의 연방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에는 별도 경제 개발 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GTAI를 통해 투자 수요가 접수될 경우, 동 기관이 가장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 연락을 취하면 지자체는 투자자의 요청에 맞는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다.

- Hessen Trade&Invest (헤센 연방주 무역투자청, 이하 HTAI)
 - 헤센 무역투자진흥기관인 Hessen Trade&Invest(헤센 연방주 무역투자청, HTAI)는 2012년 11월 설립되었다.
 - 독일 헤센 주 수도인 비스바덴(Wiesbaden)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GTAI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헤센지역에 관심있는 투자자에게 맞춤형 투자입지 정보 제공, 투자입지 방문 및 각종 허가 절차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관은 헤센주 경제지표 현황이나 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상업용 부지, 조세, 체류 또는 노동법 관련 자문을 하며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상담하는 등 다양한 법인설립 및 정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외 HTAI는 독일 또는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여 공동부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나 기관, 기업, 협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도 중개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독일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개방적이며, 독일의 대외 경제법(Außenwirtschaftsgesetz) 및 대외 경제령(Außenwirtschaftsverordnung)에 따라서 대외 무역 및 지불 거래의 자유 원칙을 지지한다. 다만, 독일 연방 정부는 독일기업 인수 과정

에서 독과점 위반 또는 EU 및 EFTA지역 이외의 외국인투자자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심사 및 제한할 수 있다.

1) 대외경제령(AWV) 개정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 독일 정부는 2017년 7월 독일 대외경제령(AuBenwirtschaftsverordnung;AWV) 개정으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 2020년 10월 개정으로 독일 연방 정부는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독일 주요 핵심 산업 및 주요 인프라 보호와 동시에 EU 안보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목적으로 투자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였다.

- 이전에는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인투자자가 독일기업 의결권의 25% 이상을 취득하고 또는 공공질서나 보안 측면에서 '현존하는 실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독일 연방 정부가 투자를 심사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독일 연방 정부가 폭넓게 심사가 가능해졌다. EU 및 EFTA 지역 내 기업(자본)의 독일기업 매입 및 대지분 매입은 기본적으로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매수 과정에 비합리적인 방식 또는 우회 방법으로 조사를 피하려는 조짐이 있을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

- 더불어 독일 정부는 2017년 7월 대외경제령에 따라 군수무기, 특정전략물자나 암호생산 관련 기업들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던 정부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6월에 헬스분야(백신, 의약품, 의료장비 및 전염성 질병 치료 관련 의료제품의 제조업 등) 및 안전 관련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닌 다른 외국자본의 투자에 정부가 폭넓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령안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외국자본의 투자규제 대상업종에서 통신인프라, 개인보호장비, 헬스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시설 등 첨단 기술분야 독일기업으로 확대되었고, 최신 2021년 5월 법정개정으로 첨단 기술분야가 더 구체적으로 정의 되었다. 기본적으로 동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의결권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에 무조건 보고하여 심사를 받게 되나, 특히 2021년 5월에 새로 추가된 첨단 기술분야(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차량, 무인항공기, 양자 기술, 특정 원재료 등)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의결권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의 심사 대상이다.

2) 독과점 방지를 위한 투자제한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은 독일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 동 법에 따라 50% 이상의 자산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으로 매수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규모가 아래 기준보다 높을 경우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수합병 전년도 글로벌 매출이 5억 유로 이상이며, 참여하는 기업 중 한 기업이 독일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 두번째 참여기업이 1,75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을 경우, 또는

-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인수금액이 4억 유로 이상이며, 인수기업이 독일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 기본적으로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은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에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며, 매각대상 기업도 50% 이상의 자산, 25% 이상의 의결권 또는 중대한 기업 자산을 매각할 시 사전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인수합병 조사를 신청한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1개월 내 독과점 조사 시행을 통보하고, 신고된 인수합병에 대하여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에 따라 인수합병을 금지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5개월 내 신청 기업에 전달되며 5개월이 지난 경우 통보가 없으면 해당 인수합병건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해당 정보 없음(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부재)
-----------------	------------------------------

산업단지

◦ Hamburg Aviation

위치	함부르크(Hamburg)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화: +49 (0) 40 227019 477홈페이지: www.hamburg-aviation.de이메일: info@hamburg-aviation.com

◦ EffizientCluster LogistikRuhr

위치	뮐하임(Muelheim)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화: +49 (0)231 70096 503홈페이지: www.effizienzcluster.de이메일: info@digitalhublogistics.de
비고	홈페이지에서 Digital Hub Logistics로 연결

◦ Software-Cluster

위치	다름슈타트(Darmstadt)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화: +49 (0)681 85775 5271홈페이지: https://software-cluster.org이메일: Tilman.Becker@dfki.de, fabian.biegel@sap.com
비고	홈페이지에서 Saarland대학교로 연결

◦ Cool Silicon

위치	드레스덴(Dresd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화: +49 (0) 351 8925 800홈페이지: www.cool-silicon.de이메일: info@cool-silicon.org

◦ Ci3, Cluster fuer individualisierte Immunintervention

위치	마인츠(Mainz)
----	------------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6131 5019 322 ○ 홈페이지: www.ci-3.de ○ 이메일: mail@ci-3.de
------------	--

○ Solarvalley Mitteldeutschland

위치	에어푸르트(Erfurt)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361 600 85 700 ○ 홈페이지: www.solarvalley.org ○ 이메일: info@solarvalley.org

○ Medical Valley EMN

위치	에얼랑엔(Erlang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9131 91617 0 ○ 홈페이지: www.medical-valley-emn.de ○ 이메일: team@medical-valley-emn.de

○ Muenchner Biotech Cluster

위치	뮌헨(Muench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89 89 96 790 ○ 홈페이지: www.bio-m.org ○ 이메일: info@bio-m.org

○ M A I Carbon

위치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821 2684 110 ○ 홈페이지: https://composites-united.com ○ 이메일: info@composites-united.com

○ Elektromobilität Sued West

위치	슈투트가르트(Stuttgart)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711 8923 850 ○ 홈페이지: www.emobil-sw.de ○ 이메일: info@e-mobilbw.de

<자료원 : 독일 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홈페이지(www.clusterplattform.de)>

주요 지역별 여건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

- 면적: 23,212km²
- 인구: 160.8만 명

- 주도: 슈베린(Schwerin, www.schwerin.de)
- 공식 웹사이트: www.mecklenburg-vorpommern.de
- 주요 산업: 농업, 기계, 에너지 기술, 식품 및 생명공학, 의료기기, 항공 및 우주 분야 등에 우수기술 보유
- 외국 기업: Sakthi Group(인도)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46.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3% 감소, 독일의 총 경제 생산에 1.3% 기여
 - 가장 인구밀도가 적고 산업이 적은 독일 주 중 하나
 - 실업률: 7.1%(2021년 8월 기준)

○ 니더작센(Niedersachsen)

- 면적: 47,614km²
- 인구: 799.4만 명
- 주도: 하노버(Hannover, www.hannover.de)
- 공식 웹사이트: www.niedersachsen.de
- 주요 기관: 연방 물리기술 센터
- 주요 산업: 자동차(폴크스바겐, 콘티넨탈), 철강(잘츠기터), 화학, 식품, 기계, 전시회
- 외국 기업: Solvay(벨기에), Tulip Food(덴마크), Nexans(프랑스), Baker Hughes(미국) 등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697.1억 유로로 전년 대비 2.8% 감소
 - 실업률: 5.5%(2021년 8월 기준)
 - 독일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연방 주이며, 세계 최대 전시장인 하노버 전시장에서 매년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하노버 전시회(Hannover Messe)'를 개최(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최)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 면적: 34,110km²
- 인구: 1,794.7만 명
- 주도: 뒤셀도르프(Duesseldorf, www.duesseldorf.de)
- 공식 웹사이트: www.land.nrw
- 주요 산업: 기계, 자동차(포드, 오펠, 다임러), 전자, 화학(바이어 등), 에너지(EON, 솔라월드), 철강(튀센크롭)
- 세계 100위 기업 중 4개 기업(EON, 메트로, 도이체 텔레콤, 알디)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본사를 두고 있음.
- 그외 주요 외국 기업: Toyota(일본), Ford(미국), UPS(미국), Vodafone(영국), 3M(미국), Citroen(프랑스), POSCO(한국) 등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46.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3% 감소, 독일의 총 경제 생산에 1.3% 기여
 - 실업률: 7.3%(2021년 8월 기준)
 - 인구 최고 밀집지역, 독일에서 최대로 인구가 많은 주로, 전통적으로 석탄, 철강산업의 중심지였으며 1960년대 후 사양길에 접어든 후 위기에 빠졌으나 기계, 자동차 산업 등의 발전으로 다시 회복 중

○ 라인란트-팔츠(Rheinland Pfalz)

- 면적: 19,854km²
- 인구: 409.4만 명
- 주도: 마인츠(Mainz, www.mainz.de)
- 공식 웹사이트: <https://www.rlp.de>
- 주요 산업: 화학/제약(BASF, 뵘링어잉겔하임), 주류(포도주), 자동차(다임러, 오펠), 식품(비트부르거, 그리손)
- 외국 기업: Novo Nordisk(덴마크), Kimberly-Clark(미국), BorgWarner Turbo Systems(미국) 등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141.9억 유로로 전년 대비 3.1% 감소
 - 실업률: 4.9%(2021년 8월 기준)
 - 중소/중견기업이 많고 GDP 대비 수출이 46%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편임.
 - 리슬링 등 화이트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함.

○ 자르란트(Saarland)

- 면적: 2,569km²
- 인구: 98.7만 명
- 주도: 자르브뤼켄(Saarbruecken, www.saarbruecken.de)
- 공식 웹사이트: www.saarland.de
- 주요 산업: 자동차부품, 철강, 세라믹, 컴퓨터공학
- 외국 기업: Terex Cranes(미국), Michelin(프랑스), Amer Sports(핀란드),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 등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33.6억 유로로 전년 대비 5% 감소
- 실업률: 6.8%(2021년 8월 기준)
-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지배를 번갈아 받았고, 1957년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에 합류할 것을 결정.
- 독일에서 가장 작은 연방 주 중에 하나

o 작센(Sachsen)

- 면적: 18,420km²
- 인구: 407.2만 명
- 주도: 드레스덴(Dresden, www.dresden.de)
- 공식 웹사이트: www.sachsen.de
- 주요 산업: 자동차(폴크스바겐), 기계, 전자, 출판(라이프치히)
- 외국 기업: Dow Chemical(미국), Hitachi Automotive Systems(일본), Transcom (룩셈부르크), Magnetto Automotive(이탈리아)

아)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125.6억 유로로 전년 대비 2.6% 감소
- 실업률: 5.7%(2021년 8월 기준)
- 구(舊) 동독지역이면서도 외국투자유치가 활발하고 산업화된 지역임.
- 독일 정부에서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지역을 주로 개발해 인근 지역이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부유함.
- 구 동독지역 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으며, 교통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철도역에서 15km 이상 떨어진 마을이 거의 없음.

o 작센-안할트(Sachsen Anhalt)

- 면적: 20,452km²
- 인구: 219.5만 명
- 주도: 막데부르크(Magdeburg, www.magdeburg.de)
- 공식 웹사이트: www.sachsen-anhalt.de
- 주요 산업: 화학, 기계, 식품, 관광, 생물공학 등
- 외국 기업: Solvay Chemicals(벨기에), Polytec Plastics(호주), Hanwha Q Cells(한국), Coil Aluminium(벨기에)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62.7억 유로로 전년 대비 2.2% 감소
- 동독 시절, 화학기업들이 90년 이후 파산하면서 실업률이 21%까지 증가했으나, 2010년대 경제 발전을 통해 실업률 7.1%(2021년 8월 기준)까지 떨어짐.
- 그러나 아직도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 하나이며, 1990년대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작센 안할트 주의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동 주의 인구가 30%까지 감소될 가능성도 있음.

o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 Holstein)

- 면적: 15,800km²
- 인구: 290.4만 명
- 주도: 킬(Kiel, www.kiel.de)
- 공식 웹사이트 :www.schleswig-holstein.de
- 주요 산업: 관광업, 농업, 해운
- AstraZeneca(영국)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97.2억 유로로 전년 대비 1.5% 감소
- 실업률: 5.4%(2021년 8월 기준)
- 구 서독지역에서 가장 경제가 약한 주 중 하나로, 함부르크 인근을 제외한 분야에는 산업이 적으며 농업, 관광업이 발달되어 있음.

o 튀링엔 (Thuringen)

- 면적: 16,173km²
- 인구: 213.3만 명
- 주도: 에어푸르트 (Erfurt, www.erfurt.de)
- 공식 웹사이트: www.thuringen.de
- 투자입지 정보: <http://www.invest-in-thuringia.de/en>
- 주요 산업: 정밀기기(카를 차이스, 옌옵틱), 자동차부품(보쉬), 식품, 전기/전자, 유리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61.5억 유로로 전년 대비 2.8% 감소
- 구 동독지역 중 가장 발달한 주로 실업률은 5.4%(2021년 8월 기준)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uerttemberg)

- 면적: 35,751km²
- 인구: 1,110.0만 명
- 주도: 슈투트가르트(Stuttgart, www.stuttgart.de)
- 주요 기관: 연방 대법원과 연방 헌법재판소(칼스루에 소재)
- 주요 산업: 자동차(다임러, 포르세, 보쉬), 기계(트루프, 페스토, 보이트 등) 경유 산업(Karlsruhe), 소프트웨어 (SAP) 등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500.8억 유로로 전년 대비 5.2% 감소
 - 바이에른과 포함하여 경제 수준이 가장 높고 가장 발달
 - 실업률: 3.9%(2021년 8월 기준)
 - GDP 중 4.8%를 R&D 분야에 투입하며 유럽에서 혁신이 가장 많은 주로 알려져 있음.
 - 칼스루에 대학을 중심으로 다수의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소재

○ 바이에른(Bayern)

- 면적: 70,550km²
- 인구: 1,312.5만 명
- 주도: 뮌헨(Muenchen, www.muenchen.de)
- 주요 산업: 자동차(BMW, 아우디, MAN 등), IT(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인피니온 등), 국방산업(EADS, 크라우스-마파이 등), 관광(알프스의 산악지대, 구름 지대, 호수, 독일 최초의 국립공원)
- 외국기업: 외국 기업 Adobe(미국), Microsoft(미국), Johnson Controls(미국), Faurecia(프랑스), Fujitsu(일본) 등 진출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610.2억 유로로 전년 대비 4.1% 감소
 - 경제 수준이 가장 높고 가장 발달한 주로 실업률은 3.3%(2021년 8월 기준) 로 독일 1위로 낮음
 - 독일 1,000대 기업 중 200여 개가 바이에른에 소재하는 등 독일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
 - 바이에른의 주도인 뮌헨 물가는 독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가장 늦게 독일 제국에 합류하는 등(1871년) 전통 문화, 음식, 의복 등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함,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Oktoberfest 10월 개최(뮌헨)

○ 베를린(Berlin)

- 면적: 892km²
- 인구: 366.9만 명
- 주도: 베를린(Berlin, www.berlin.de)
- 주요 기관: 연방의회(Bundestag 및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주요 산업: 스타트업(잘란도, 로켓인터넷 등), 미디어(악셀슈프링어), 관광, 정보통신, 운송 시스템 발달
- 외국 기업 Vattenfall(스웨덴), Ikea(스웨덴), Philip Morris(미국) 등 진출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154.6억 유로로 전년 대비 1.4% 감소
 - 실업률은 9.7%(2021년 8월 기준) 로 독일에서 2번째로 높음
 -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 중 하나인 베를린에는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매우 잘 형성돼 있으며, 잘란도, 로켓인터넷, 헬로프레쉬, N25, 오토 1 등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베를린에서 창업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 면적: 29,484km²
- 인구: 252.2만 명
- 주도: 포츠담(Potsdam, www.potsdam.de)
- 공식 웹사이트: www.brandenburg.de
- 주요 산업: 농업, 강철, 풍력, 바이오 등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73.9억 유로로 전년 대비 1.2% 감소
 - 실업률: 5.6%(2021년 8월 기준)
 - 과거 농업 및 철강 등을 주로 생산했으나, 최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모. 포츠담 지역에는 바이오 기업 160개가 소재하고 있어 유럽 최대 바이오클러스터 중 하나임.

○ 브레멘(Bremen)

- 면적: 419km²
- 인구: 68.1만 명
- 주도: 브레멘(Bremen, www.bremen.de)

- 주요 산업: 해상교통, 항공/우주, 자동차, 식품, 전기, 철강 등
- 외국 기업 : Mondelez International(미국), Arcelor Mittal(룩셈부르크), Univeg (벨기에) 등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31.6억 유로로 전년 대비 5.4% 감소
 - 실업률은 10.7%(2021년 8월 기준) 로 독일에서 제일 높음
 - 유럽 2개의 도시(Bremen, Bremerhaven)가 하나의 연방주 구성, 면적과 인구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작은 연방주이며 경제 규모도 가장 작음.

○ 함부르크(Hamburg)

- 면적: 755km²
- 인구: 184.7만 명
- 주도: 함부르크(Hamburg)
- 웹사이트: www.hamburg.de
- 주요 산업: 조선, 정유, 수입가공무역, 항공/우주, 소비재 및 관광, 재생에너지, 생명과학 등 서비스 산업
- 외국 기업: Airbus(프랑스), Philips Medical, Shell(네덜란드), BP(네덜란드/영국),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중국), Cosco(중국) 등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118.1억 유로로 전년 대비 4.4% 감소
 - 실업률은 7.3%(2021년 8월 기준) 로 독일에서 높은 편에 속함.
 -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함부르크 항은 세계 20위의 컨테이너 항구 보유. 독일 1,000대 부자 중 92명이 함부르크에 사는 등 중세시대부터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함.

○ 헤센(Hessen)

- 면적: 21,115km²
- 인구: 628.8만 명
- 주도: 비스바덴(Wiesbaden, www.wiesbaden.de)
- 공식 웹사이트: www.hessen.de
- 주요 기관 : 유럽중앙은행, 독일중앙은행
- 주요 산업: 금융, 화학/제약, 항공/철도, 자동차, 전기기기, 기계 등
- 외국 기업: Sanofi(프랑스), Procter&Gamble(미국), Goodyear(미국), Hewlett-Packard(미국), Clariant(스위스), BNP Paribas(프랑스), Samsung Electronics(한국), Hyundai Motors(한국) 등
- 특이사항
 - 2020년 GDP는 281.4억 유로로 전년 대비 4.4% 감소
 - 실업률은 5.1%(2021년 8월 기준) 로 독일에서 아주 낮은 편에 속함
 -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중앙은행이 위치하고 있고, 독일 최대 증권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런던과 함께 유럽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임.
 - 유럽 항공화물 1위, 여객 3위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소재
 - 삼성그룹, 현대그룹을 포함한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유럽본부를 설립해 진출해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한국 교민들이 프랑크푸르트 인근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15633.2	48641.4	62073	54062.9	35651.1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63661	86517.5	86244	139278	34949.9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7	173	51	332,788	184	207,999
2018	162	43	387,430	172	282,785
2019	187	41	871,989	193	723,307
2020	198	38	1,061,806	211	731,991
2021	78	13	213,277	88	35,53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1	1	20,376	16	13,600
제조업	68	19	77,459	77	68,95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5	1	5
도매 및 소매업	28	17	10,738	27	9,264
운수 및 창고업	1	1	456	1	468
정보통신업	9	3	1,976	14	12,931
금융 및 보험업	9	1	218,278	11	100,107
부동산업	4	1	557	4	5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2	847	13	84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7	5	2,096	20	1,264

N/A	1	0	0	0	0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0	3,591	8	7,338
제조업	72	16	150,944	67	100,6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2	45,957	4	46,595
도매 및 소매업	23	10	8,578	22	9,059
운수 및 창고업	2	1	88	1	31
숙박 및 음식점업	1	1	334	1	334
정보통신업	14	1	8,348	16	8,490
금융 및 보험업	3	1	36,988	6	31,919
부동산업	7	4	119,176	8	65,9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2	2,848	9	2,84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	3	5,586	27	4,664
교육 서비스업	2	1	524	2	49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4,468	1	4,47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856	13	3,784
제조업	110	19	621,850	95	540,57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0	8,702	3	8,360
건설업	1	0	200	0	0

도매 및 소매업	39	15	10,043	38	10,313
운수 및 창고업	1	1	341	2	398
정보통신업	8	2	14,017	8	14,017
금융 및 보험업	3	0	193,672	9	129,831
부동산업	4	0	5,461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2	5,357	3	5,35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	1	2,749	18	2,26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1	8,741	4	8,40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0	811	6	1,156
제조업	106	9	210,166	111	264,06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0	57,078	0	0
도매 및 소매업	39	11	91,441	34	89,697
운수 및 창고업	5	3	2,663	6	2,560
숙박 및 음식점업	1	1	28	1	28
정보통신업	14	6	41,006	18	37,958
금융 및 보험업	6	3	375,889	10	198,235
부동산업	6	1	68,725	3	39,9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4	201,964	8	86,77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	0	12,035	13	11,26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0	0	1	32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52	7	34,459	60	24,467
도매 및 소매업	15	4	3,461	14	3,296
운수 및 창고업	1	0	149	0	0
정보통신업	4	1	168,608	3	752
금융 및 보험업	1	0	558	3	1,3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3,064	1	3,02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0	1,839	5	1,5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0	1,139	2	1,14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Samsung Electronics GmbH

진출연도	198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Hyundai Motor Europe GmbH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 및 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Kia Motors Europe GmbH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 및 부품
모기업명	기아자동차그룹

○ SK Hynix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반도체
모기업명	SK 하이닉스

○ Nexen Tire Europe GmbH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

○ Il Heung Europe GmbH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일흥공업

○ Lotte Fine Chemical Europe GmbH

진출연도	2009
------	------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화학제품
모기업명	롯데정밀화학

◦ BIXOLON Europe GmbH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프린터 기기
모기업명	빅솔론

◦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건설
취급분야	시설관리, 건설
모기업명	현대엔지니어링

◦ OnNet Europe GmbH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컴퓨터 게임
모기업명	온네트

◦ Hotel Lotte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숙박
모기업명	롯데그룹

◦ Lock and Lock GmbH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주방생활용품
모기업명	락앤락

◦ Kumho Tire Co., Inc., European Technical Centre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연구소
업종	연구개발
취급분야	타이어 연구 및 개발
모기업명	금호타이어

◦ INNO Instrument Europe GmbH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통신기기
모기업명	이노인스트루먼트

◦ Daewon Kang Up Frankfurt R and D Support Office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연구소
업종	연구개발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개발
모기업명	대원강업

◦ Nexen Tire European Technology Center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연구소
업종	연구개발
취급분야	타이어 관련 연구개발
모기업명	넥센타이어

◦ ICT Europe GmbH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임플란트
모기업명	덴티움

◦ ATNS Europe GmbH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SAP컨설팅
모기업명	에이티앤에스

◦ KB AutoTEch Co., Ltd. Frankfurt Representative Office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갑을오토텍

◦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Rep Office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해외 사업장 안전진단, 해외인증지원
모기업명	한국 가스안전공사

◦ Samsung SDI Europe GmbH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모기업명	삼성 SDI

◦ Ceragem Europe GmbH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의료기기
모기업명	세라젬

◦ Humax Automotive Europe GmbH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모기업명	휴맥스오토모티브

◦ GIT Europe GmbH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 진단기
모기업명	지아이티

◦ LOTTE GLOBAL LOGISTICS (GERMANY) GMBH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포워딩, 창고, 3PL 등 운송 서비스
모기업명	롯데글로벌로지스

◦ KPF Europe Rep Office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케이피에프

◦ KDK Automotive GmbH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인수)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갑을상사그룹

◦ ACI Worldwide Express GmbH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에이씨아이 월드와이드

◦ Doosa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연도	2014
------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건설 중장비
모기업명	두산중공업

○ INZI Controls Co. Ltd. Germany Branch Office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인지컨트롤스

○ Hyundai Sungwoo Casting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Xiom Europe GmbH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탁구용품
모기업명	엑시옴

○ InnoVision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소프트 콘택트렌즈

모기업명	이노비전
------	------

◦ GigaTera EU GmbH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LED 조명
모기업명	케이엠더블유

◦ Iksung Europe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익성

◦ Biodent Europa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치과용 의료기기
모기업명	디에스엠

◦ Introsa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CCTV 시스템
모기업명	(주)우택

◦ Hyundai L&C Europe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인조대리석 및 가구용 데코시트 등
모기업명	(주)현대엘앤씨

○ Unitech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산업용 접착제
모기업명	유니텍

○ Sebang Batteries Europe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용 배터리
모기업명	세방전지(주)

○ Naver Business Platform Europe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IT인프라 운영 및 솔루션 개발
모기업명	네이버클라우드(주)

○ SoluM Europe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전자부품
모기업명	솔루엠

◦ Vieworks EU GmbH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의료기기
모기업명	뷰웍스

◦ Meta Biomed Europe GmbH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의료기기
모기업명	메타바이오메트

◦ Blackyak Co. Ltd.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아웃도어 용품
모기업명	블랙야크

◦ All of Nature GmbH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생활용품 유통
모기업명	올오브네이처

◦ Hyundai, Marine and Fire Insurance Co.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사
업종	금융서비스
취급분야	보험
모기업명	현대해상

◦ Hyundai Capital Bank Europe GmbH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금융서비스
취급분야	자동차금융
모기업명	현대캐피탈(주)

◦ TmaxSoft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소프트웨어
모기업명	티맥스소프트

◦ LG Electronics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전기/전자제품
모기업명	LG 전자

◦ Woori Bank Europe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금융서비스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우리은행

◦ SK Innovation Frankfurt Office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전기차용 배터리
모기업명	SK 이노베이션

◦ Hanwha Total Petrochemical Co., Ltd. German Branc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에너지
모기업명	한화토탈

◦ GIIR Germany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광고서비스
모기업명	HS애드

◦ Ray Europe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치과용 영상진단장비
모기업명	레이

○ M3 Mobile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산업용 PDA, 스캐너, POS 등 기기
모기업명	엠쓰리모바일

○ Seegene Germany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채외진단시약
모기업명	씨젠

○ DRTECH EUROPE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모기업명	(주)디알텍

○ I-Sens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진단기기
모기업명	아이센스

○ Hyundai Electric Frankfurt Branch

진출연도	2018
------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전기전자 제품
모기업명	현대일렉트릭, 앤에너지시스템(주)

○ NVH Germany GmbH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엔브이에이치 코리아(주)

○ Hexa GmbH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주)원시스템즈

○ Cap Corporation Ltd. Germany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캐프

○ Celltrion Healthcare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의약 및 화학제품

모기업명	(주)셀트리온헬스케어
------	-------------

◦ GC&Q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인증기관
모기업명	GC&Q Co. Ltd.

◦ LogisALL Europe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로지스올컨설팅앤엔지니어링(주)

◦ AB Pharm Laboratories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화장품
모기업명	(주)에이비팜코리아

◦ Aurora World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캐릭터완구
모기업명	(주)오로라월드

◦ Inbody Europe B.V. Deutschland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체성분분석기
모기업명	(주)인바디

◦ Kukdo Chemical Co. Ltd. Europe R&D office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에폭시수지, 경화제용수지와 폴리우레탄 원료 등
모기업명	국도화학(주)

◦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 Zweigniederlassung Deutschland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운송 서비스
모기업명	(주)한진

◦ CJ Mainfrost Foods GmbH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현지법인 (인수)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식품
모기업명	CJ제일제당(주)

◦ DaeHeung Europe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용 방진고무 등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모기업명	(주)대흥알앤티

◦ GENESIS MOTOR EUROPE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LG Energy Solution Europe GmbH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리튬이온배터리
모기업명	(주)LG에너지솔루션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 개요

해외 기업이 독일에 회사(Tochterunternehmen)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형식이므로, 영업신고나 상업등기와 관련해 독일 규정이 적용된다. 회사 설립 주체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회사 설립, 영업신고 및 상업등기부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독일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지 법인은 독립성을 갖기에 소재지 관할 구법원의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에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신고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면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독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장 보편적인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GmbH)이다.

○ 특징

법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은 독일 세법에 따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매년 전자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당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모기업과 독립된 별개의 조직체로서 모기업의 책임은 주주로서 납입한 자본금에 국한된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모기업은 투자한 자본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만, 그 이상의 채무 변제 의무는 없다.

주의할 점은 본국의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독일 내 영업 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절차가 종결돼도 회사 상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상업등기번호 발급 후에도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개인적 책임이 면제된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독일 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한국을 생활중심지로 삼는 것이 가능해져, 자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독일 내에 주소지를 둘 필요가 없다.

○ 설립절차 및 비용 (유한책임회사 기준)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 상호 결정, 현지법인 주주결의서 및 정관 작성, 법인 대표 선임,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 세법의 경우 법인 등기 완료 전 발생한 비용은 인정이 되나, 정관 서명일 후 비용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신설법인을 위해 구매할 물품이 많다면 정관 서명일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저 25,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회사 등록 시점에서는 그 절반인 최소 12,500유로가 은행계좌에 이체되어야 한다. 상기 사항의 서류를 구비 후, 현지 독일 공증인을 통해 상업등기부 등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상업거래등록소(Gewerbeamt)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장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적으로 거주 및 노동허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청에 제출한 비자 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며 현재 외국인청의 검토 중이라고 하면 공무원 재량에 따라 등록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공증인의 등록신청 후, 상업등기부 등기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나, 서류 준비과정에 따라 대략 4~6주 소요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등기·공증 수수료 등의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1,039.84유로가 소요된다. 자세한 비용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설립 공증비용: 125유로
- 정관 공증비용: 250유로
- 집행비용 (주주명부, 상공회의소 확인, 위임장): 96유로
- 위 3개 서류 번역비용: 112.5유로
- 등기신청 초안, 통신비, 등기신청비(번역비용 포함): 105.45유로
- XML 데이터 생성비용: 37.5유로
- 관리비용(자본금입금확인): 62.5유로
- 문서 스캔비용, 통신비 등: 20유로
- 위임장 공증비: 38.4유로
- 기타 우편비용: 7.68유로

- 총액: 870.03유로
- 부가세(19%) : 165.31유로
- 부가세 포함금액: 1,039.84유로

출처: Huette Rechtsanwaelte(<https://huetten-legal.com>)

자본금이 3만 유로가 넘을 경우 법인 설립 금액도 증가한다.

대부분 진출기업은 독일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수수료는 업체마다 상이하다.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상업거래등록소는 정보를 세무청과 상공회의소에 전달한다. 세무청은 신설법인에게 세적등록과 납세번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가입은 독일에서 필수 사항이다. 회원사 가입번호 통지서를 받고 매년 회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것인데, 이도 법인의 법적 의무 중 하나로서 제때 송금해야 한다.

지사

○ 개요

지사는 크게 상업등기가 요구되는 등기지사(Zweigniederlassung)와 관할 시청 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비등기지사(Betriebsstaette - 이하 연락사무소에서 자세히 설명)로 나뉜다. 지사는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모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법에 종속되고 지사의 채무에 대한 의무는 모기업에 있다. 지사는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지사명에 소재지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지사설립 시 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같은 필수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체 정관(Gesellschaftsvertrag)이 없으므로 모기업의 정관을 독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한다.

독일에 설립된 등기지사는 인보이스 발행을 비롯한 상업적 계약이 가능한 반면, 비등기지사의 경우 모기업을 대신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인보이스는 모기업 이름으로 발행해야 한다.

○ 특징

지사의 경우, 모든 영업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모기업에 있기 때문에 설립 시 모기업이 자본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지사는 가장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의 의무가 있으나 재무제표 공시의무는 없다. 또한 지사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 및 판매 실적은 독일에서 과세(법인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은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하여 지사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기초를 모기업이 위치한 본국의 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중과세 상황을 피하도록 하였다. 다만 창출 수익에 대해 어느 부분까지를 지사의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해 독일 조세당국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독일 진출 시 지사보다 법인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사 설립 및 상업등기부 등록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이유다. 예를 들면, 독일에 설립될 지사가 한국 대형기업의 지사로 등록돼야 하는 경우이면 본사와 관련된 한국 상업등기부상 내용을 모두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아울러, 법인과 달리 책임부담의 위험이 자본금에 제한되지 않다는 사정도 지사 설립 빈도가 낮은 이유이다.

○ 설립절차 및 비용

지사의 설립은 법인과 동일하게 독일 상업등기부 등기 및 등록번호 취득을 통해 완료된다. 지사의 신청서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돼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한 경우, 서류를 독일 법원이 인정하는 번역가를 통해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사가 한국에 소재하므로 한국 상업등기부 등본, 본사 정관, 현지대표에 대한 위임권 등 본사의 서류를 반드시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아포스티유의 절차를 거친 후, 독일 공증인에 의해 등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등기-공증 등의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비용이 소요되며, 번역료는 별도로 소요된다. 법무법인 등을 통한 절차 대행 시 소요비용은 법인설립과 비슷하나, 모기업의 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지사설립 시 공증인의 상업등기부 등록 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나, 등록신청 이전 서류준비 절차기간도 별도로 소요됨을 주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 개요

연락사무소(Representanzbüro)라는 개념은 독일 상업법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비등기지사(비독립사업장)가 그 개념에 부합한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영업에 필요한 시장 정보 즉 산업 및 비즈니스 정보 조사 등 모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Ttigkeiten vorbereitender Art oder Hilfsttigkeiten)에 국한돼 운영되는 조직이다.

○ 특징

연락사무소는 상업 등기소 등록, 자본금 납입,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 없다. 연락사무소는 인보이스 발급, 고객의 유치를 위한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고객으로부터 상품주문이나 계약의 수령과 관계된 서신 혹은 서명행위 등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와 영업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지만, 이익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급여 소득세(Lohnsteuer)와 부가세(Umsatzsteuer)는 신고해야 한다. 만약 연락사무소 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지사(Zweigniederlassung)로 파악되어 법인세, 영업세 등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연락사무소의 유지기간이 5~10년을 초과하고 동시에 사무소의 직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세무서는 서류상의 연락사무소가 실제로 지사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로 법인세와 영업세가 확정될 경우 세무조사 시점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급으로 몇 년에 대한 과세가 한꺼번에 누적으로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진출 초기단계에서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유럽 및 독일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실현 시 세무상 위험을 피하고 현지 영업의 효율성과 거래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점 혹은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립절차 및 비용

연락사무소는 공증 및 상업등기부 등록절차 없이 상업거래등록소(Gewerbeamt)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이때 한국 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연락사무소 대표에 대한 위임장, 체류허가증 등 서류가 요구되며 소요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40유로 수준이다. 상업거래등록소에 등록되면 회사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회사 등록사실이 해당지역 세무서, 상공회의소, 기타 행정기관에 자동 통보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법인설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나, 등기 신청의 경우, 자본금의 1/2, 예를 들어 25,000유로를 자본금으로 지정했다면 12,500유로만 납부한 확인서가 있으면 등기신청은 가능하다. 공증 이후, 등기신청 전에 자본금 납부를 증명해야만 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법인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공탁으로 가능하다면 좋으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즉, 설립중인 법인명의 계좌가 있어야 하며, 그 계좌에 자본금이 납부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 최소 25,000유로의 자본금 예치가 독일 내 법인(GmbH) 설립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25,000유로 이상은 문제가 안되나 25,000유로 미만의 경우는 GmbH가 아닌 UG를 설립해야 하며, UG는 1유로부터 25,000유로 미만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 자본금을 현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신청하는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다. <p>2) 공장 및 창고설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이나 창고에서 폭발물이나 화학제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다뤄지는 물질과 이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법에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계나 소음이 있는 경우는 법에 따라 방음을 해야 하며 방음은 구역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다. 공장지대의 경우, 시내의 상업지구나 거주지역이 혼합된 지역에 비교하여 요구되는 방음의 기준이 다르다. ○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사(Berufgenossenschaft)에서 확인하고 실사를 마쳐야 사용이 가능하다. 화학물질의 경우는 환경보호법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또한 근무조건을 제한하는 법령도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식품의 경우는 위생법에 따르며, 또한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물도 제한하고 있다. 각각의 제품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칙이 매우 상이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체로 영업청에서 접수하여 위생청이나 소방재청에서 실사를 하게 된다. <p>3) 법인의 청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법인의 청산은 해산 개시일 결의가 등기되면서 효력이 발생하며, 청산 종료까지 최소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 법인의 청산을 알리게 되며 등기상으로 법인이 청산을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 정리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선임한 세무사나 회계사는 청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최종 재무제표를 회계사로부터 전달받은 공증인이 법원에 청산 신고를 하며, 이로서 법원의 등기에서 삭제된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 특징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본을 주식시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영업지분을 양도할 경우, 공증인이 그 과정을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비교적 쉽다. 주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존속이 보장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대기업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호되는 회사 설립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설립절차부터 비교적 복잡하고 설립 이후에도 모든 관련 법규의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나 조직과 재정조달에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주식회사가 가진 신뢰성과 전문성을 통해 훨씬 더 유리한 기업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증권시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단기간 내에 증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기자본을 통한 자원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있으나 독일 증권시장에 상장한 한국 기업은 아직 없으며, 자원 조달을 대부분 모기업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독일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유한책임회사(GmbH) 형태를 선호한다.

○ 설립요건

1인(소규모 주식회사) 또는 다수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1인 이상의 이사와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한다. 주식회사 정관에는 ① 회사명 ② 소재지 ③ 자본금 규모 ④ 주식 최소 비용 ⑤ 발행 주식의 총수 ⑥ 주식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 ⑦ 주식 발행 종류(무기명 주식 또는 기명 주식) ⑧ 이사회 감사의 수 ⑨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된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법정 최소자본금은 50,000유로이며, 자본금 납입은 상업등기 이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해 최소 12,500유로를 계좌로 이체해야 하고,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 특징

- 독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법인의 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GmbH)의 경영은 정관에 명기되거나 출자자가 신임하는 1인이나 복수의 법인장이 담당하며 등록 시 법인장의 소재지는 반드시 독일일 필요는 없다. 원칙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재산에 한정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법인장 및 직원의 개인 재산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장의 경영권 남용, 불법적 횡령, 독일 관련법이 요구하는 각종 문서화 의무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등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법인장의 개인 자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추가로 형사 소송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추가로 주의할 사항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절차가 종결해도 상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법인장 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상업등기번호 발급이 완료되면 개인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의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업무집행에 관한 대표권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권은 제 3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제 3자에 대한 대표권은 법인장에게 있다. 이사회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및 대표권의 종료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된다.

- 유한책임회사는 책임이 제한된다는 면에서 무한책임회사에 비해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소액의 자기자본을 가진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 투자가 또는 은행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책임의 제한으로 인해 파산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본금의 액수가 실제 거래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으로 표기되며, 지분의 이전과 양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에 의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2008년 11월 1일 이후 영국의 유한책임회사(Ltd.)와 유사한 설립 자본금 1유로의 미니 유한책임회사(UG: UnternehmensGesellschaft) 설립이 가능해졌다. 단, 자본금이 25,000유로가 될 때까지 연 매출의 25%를 자본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후 유한책임회사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유한책임회사(GmbH)로 법인 변경이 가능하다.

- 유한책임회사는 독일의 법인세, 영업세, 부가세 징수 대상이며, 독일의 회계원칙에 따른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어 매년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를 독일 소재지 관할 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독일 상법(Handelsrecht)상 매년 전자연방관보(elektronischer Bundesanzeiger)에 재무제표를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세무 처리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전가격(Konzernverrechnungspreis)인데, 독일 현지 법인은 대부분 모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 현지 법인이 모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가격이 너무 높았다고 세무조사관이 평가하게 되면 독일법인의 세전 이익이 상향 조정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단, 소자본 회사의 경우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종업원 500명 이하의 회사는 정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한 감독위원회(Aufsichtsrat)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 500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감독위원회의 1/3은 근로자 대표로 구성돼야 한다. 또한,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기업(석탄, 철강제조업 제외)은 동의절차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감독위원회 위원 중 1/2이 근로자 대표여야 한다.

○ 설립요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 등록으로 설립할 수 있다. 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장을 선임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 상업등기 전 자본금의 25%, 최저 12,500유로만 예치하면 된다.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이 경우 현물출자의 대상과 그 평가액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정관 작성은 의무이며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는데, ① 상호 ② 법인의 소재지 ③ 영업목적 ④ 자본금 ⑤ 회사를 구성하는 각 사원의 출자액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 기재해야 한다. 정관상 회계연도의 기재는 임의 규정이지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기업의 존립기간을 설정했을 경우나 혹은 출자자인 사원이 자본출자 이외에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정관에 담을 필요가 있다. 또 출자자 명단과 영업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임을 반드시 상호에 명기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 특징

개인회사는 독일에서 가장 간단한 회사형태이다. 1인 소유이며, 법적으로 최소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재 독일에서는 대다수의 1인 소유 영업소(이발소, 과일 가게, 빵집, 정육점 등)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회사는 설립 후 관리비용 또한 비교적 낮다. 회계의무와 관련해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가 요구되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인회사는 단순한 현금주의 회계가 허용된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사는 공시의무도 없다. 독일 공시법에 의거하여 개인회사는 자산 총계가 6,500만 유로 이상이고 매출액이 1억

3,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소유 사업자의 개인 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게 돼 있다.

○ 설립요건

개인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자영업 신고(Gewerbeanmeldung)를 통해 자동으로 개인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소유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운영된다. 공증인은 필요 없다. 회사명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소유자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예: Peter Meier 혹은 EDV-Versand Peter Meier).

개인사업자의 경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단순한 수입지출내역서만 제출하면 되고 이를 토대로 과세를 한다. 단, 규모가 커져서 매출이 60만 유로 또는 이익이 6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생긴다.

유럽회사(SE)

유럽회사(Societas Europaea)는 유럽연합 내의 주식회사를 통칭하는 법인 형태이다. 유럽연합(EU)은 2004년 말부터 통일된 법 형식에 의거한 법인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유럽회사는 유럽의 기업들이 유럽 전 회원국에서 동일한 법 형식을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을 지주회사(Holding)에 결합할 수 있다. 또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적 토대를 지닌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존 방식 대신, 유럽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단일 규범을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유럽회사의 경우 유럽 전역에 걸쳐 활동하는 Allianz 등 소수 대기업만이 법적으로 유럽 회사로 전환했다.

합자회사(KG)

합자회사(KG)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인적회사로 무한책임 사원들만이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경영권 및 대표권은 무한책임 사원들에게만 주어진다. 대표 1명(Unlimited partner - Komplementar)이 무제한 책임을 지고(상법상 무한 책임사원)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 - Kommanditist)는 소유한 주식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상법상 유한 책임사원) 형태로, 최소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합자회사(KG)나 합명회사(OHG)와 같은 인적회사는 주식회사(AG) 혹은 유한책임 회사(GmbH) 등의 물적회사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다. 공시의무는 거래처와 은행들이 회사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인적회사는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이상의 채권자 보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본인적회사(GmbH & Co. KG)는 합자회사의 변형된 형태로서 유한책임회사 자체가 무한책임주주이며 그 외 1인 이상의 유한 책임주주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 인적회사는 일반 합자회사와 달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공시의무가 있다.

합명회사(OHG)

합명회사(OHG)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출자자로 설립 가능하며, 출자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를 구성하는 무한책임 사원에게는 경영에 참가할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된다. 경영의 범위는 영업활동에 따른 모든 업무를 포함하며, 법적 수속을 거쳐 회사의 경영에 해를 끼친 사원의 경영 참가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한편, 무한책임 사원은 각각 제3자에 대해 회사의 대표성을 부여받으며, 이 대표성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 합명회사는 아래 조합 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온전한 상인(Vollkaufmann)'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독일 상법(Handelsgesetzbuch, HGB)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합명회사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되고 정확한 회계장부 덕분에 올바른 재정분석도 가능하며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래처와 은행의 신뢰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유리하다. 합명회사는 독일 상법에 따라 반드시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한다.

조합(GbR)

조합(GbR)은 최소한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해 설립 가능하며, 특히 소액의 사업자본만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알맞은 회사형태이다. 조합은 인적회사 중 가장 간단한 회사형태로 최소한의 설립 관련 구비서류만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면상의 정관을 추천한다. 법정 의무 자본금이 없고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의 등기 의무와 공시 의무가 없다.

조합은 상업 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영업 활동이 있어야 하는 조합은 자발적으로 합명회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세무사

, 공인회계사, 의사 등 자유업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무소 또는 병원을 운영할 경우 많이 이용한다. 합명회사는 상법에 따라 무조건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하나, 조합은 상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주의 회계도 허용된다. 다만, 독일 조세법(Abgabenordnung) 제141조에 따라 1년 매출액이 500,000유로 이상이거나 1년 순이익이 50,000유로 이상일 경우 회사형태를 막론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o EUKO Consulting GmbH

전화번호	+49 (0)6171 586690
주소	Karl-Hermann-Flach-Strasse 25, 61440 Oberursel
홈페이지	http://www.eukogroup.de
이메일	info@eukogroup.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정준 상무(Park, Cheong-Joon), 조은영 변호사(Cho, Eun-Young))

o Fidelis Accounting GmbH

전화번호	+49 (0)6196 77666 10
주소	Ludwig-Erhard Strasse 30-34, 65760 Eschborn
홈페이지	http://www.fidelisaccounting.wordpress.com/
이메일	rizzop@fidelisaccounting.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병구 대표 및 독일공인회계사(Kim, Byung Koo))

o Hütte Rechtsanwälte

전화번호	+49 (0)69 247 561 20
주소	Schaumainkai 69, 6059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huette-legal.com/
이메일	t.kim@huette-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태은(Kim, Tae Eun) Korea Desk 담당)

o KPMG AG

전화번호	+49 (0)69 247 561 20
주소	The Sqaire, am Flughafen, 6054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kpmg.de/
이메일	t.kim@huetten-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비고	문의 : https://home.kpmg.com/de/de/home/misc/kontakt.html

○ Pricewaterhouse Coopers AG(PWC)

전화번호	+49 (0)69 9582 6282
주소	Friedrich-Ebert Anlage 35-37,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pwc.de/en
이메일	webkontakt_anfragen@de.pw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백종환 회계사(Baek, Jonghwan))
비고	추가 이메일 문의: jong-hwan.baek@kr.pwc.com

○ FPS Rechtsanwälte und Notare

전화번호	+49 (0)69 95957 0
주소	Escherheimer Landstrasse 25-27, 60322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fps-law.de/
이메일	frankfurt@fps-law.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조익제 파트너 변호사(Cho Ikze))

○ Janolaw Chung Rechtsanwälte

전화번호	+49 (0)6196 7722 550
주소	Otto-Volger Strasse 3c, 65843 Sulzbach
홈페이지	http://www.jc-law.de/
이메일	info@jc-law.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정하성 박사 및 변호사(Dr. Chung, Ha-Sung))

○ Hanyang IPLC

전화번호	+49 (0)6196 973 8445
주소	Ludwig-Erhard-Str. 14, 65760 Eschborn

홈페이지	http://www.hanyang-law.com/
이메일	info@hanyang-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정희 변호사(Lee, Jung Hoi))

◦ Lee • Tourbar • Von Schwech • Burghartz Rechtsanwälte

전화번호	+49 (0)211 303 301 10
주소	Steinwayhaus Immermannstrasse 14-16, 40210 Duesseldorf
홈페이지	https://www.rechtsanwalt-lee.de
이메일	kanzlei@rechtsanwalt-lee.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동준 변호사 (Peter Lee))

◦ Lee & Partners

전화번호	+49 (0)6196 400139
주소	Mergenthalerallee 10-12, 65760 Eschborn
홈페이지	http://leepts.com/corp/
이메일	blwhang@leept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황백림 변호사 (Baek-Lim Whang))

◦ Bornhausen-Consulting GmbH

전화번호	+49 (0)96 9291 050
주소	SteinlestraBe 6, 6059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bornhausen-consulting.de/en/welcome
이메일	info@bornhausen-consulting.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윤선 한국데스크 매니저)

◦ Dentons Europe LLP

전화번호	+49 (0)89 244 408 415
주소	Jungfernturmstr. 2, 80333 München
홈페이지	https://www.dentons.com
이메일	raphael.suh@denton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서원필 변호사)
--------------	------------

◦ LM.S.KIM Anwaltskanzlei

전화번호	+49 (0)40 6591 1680
주소	Kaiser-Wilhelm-Str. 89, 20355 Hamburg
홈페이지	http://kimlegal.de
이메일	mail@kimlegal.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무상 변호사)

◦ DTAX Trusted Advisors AG

전화번호	+49 (0)69 400 500 835
주소	Vilbelerstrasse 27-29, 6031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dtax.ag/
이메일	s.ryu@dtax.ag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Samuel P. Ryu 회계사, Director Korea Desk)

◦ M.S. Kim Anwaltskanzlei

전화번호	+49 (0)40 6591 1680
주소	Kaiser-Wilhelm-Strasse 89, 20355 Hamburg
홈페이지	http://kimlegal.de/koreanisch
이메일	mail@kimlegal.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무송 변호사)

◦ Anwaltskanzlei Sohn

전화번호	+49 (0)6152 9560 174
주소	Klein-Gerauer Str. 10, 64521 Gross-Gerau
홈페이지	http://www.anwaltskanzlei-sohn.de/kr_Kanzlei.htm
이메일	sohn@anwaltskanzlei-sohn.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손정연 변호사)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999년 1월부터 유럽경제통화연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 가입국의 외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독일 정부의 자체 외환관리 정책은 없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화 사용국의 외환관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담당하고 있다. ECB의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는 통화 안전성, 즉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이며, 주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EU의 경제정책을 지원한다는 두 번째 목표가 있다. ECB가 발행하는 유로화는 변동환율제도(Free-Float) 전략을 추구한다.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EU 국가 간 편차가 존재하는데, 독일의 경우 해외송금 또는 해외로부터의 송금 시 일부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외환 규제

독일의 경우, 해외송금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 시 대외경제규정(AWV-Aussenwirtschaftsverordnung) 67조 1항에 의거해, 12,500유로 이상의 해외 송금은 독일연방은행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2013년 9월 1일 발효된 대외경제규정에 따르면, 기업, 은행,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직접 독일 연방은행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서면을 통한 신고를 받지 않고, 전자 보고서 양식을 필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독일 연방은행의 신고 포털사이트 : <https://extranet.bundesbank.de/bsvpub/changeLanguage.do>)

EU 역내 거래일 경우에는 5만 유로 이상을 보고대상으로 한다. 이 보고는 원칙상 금융 거래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이 이를 대신한다. 보고 양식은 독일 중앙은행이 제공하며, 해외발 국내 입금인 경우와 해외향 송금인 경우에 대해 각각 Z4와 Z1 서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 서식에는 송금계좌와 수취인 계좌 및 계좌 소유자의 이름, 주소, 송금 목적 등이 기재된다.

한편, 제품 수출입 관련 자금 및 해외대출 자금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 입출금의 경우 독일 자금세탁 방지법(GwG)에 의거해 15,000유로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출금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 출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전까지 계좌가 동결 될 수 있다.

독일 입국의 경우 EUR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EU 역내에 입국 및 경유하거나 EU를 출국하는 여행자들은 관할 관청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독일에서는 세관에서 현금신고의무 준수를 감독하며, 소지한 현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독일 세관법 제31b조에 의해 1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및 세관 검사가 자유로운 자금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을 소지하는 것 자체는 위반사항이 아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수화물을 찾은 후 초록색 통로(Nothing to declare)가 아닌 빨간색 통로(Good to declare)로 통과하셔서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스위스에서 입출국하는 철도 이용객은 여객 검사 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며, 선박으로 EU 역내에 입출국하는 여행객은 세관 관리에 의한 선박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도착지 관할 세관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보통 적발된 금액의 15%, 외화를 허리춤의 복대에 숨기거나 가방바닥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 밀반출입 의도가 분명한 경우, 적발된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납부한다. 신고해야 할 현금 종류는 현금 외에도 수표(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약속어음도 포함된다.

- 신고방법: 독일세관 또는 독일세관 홈페이지(www.zoll.de)에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세관에 EU 입출국시 서면으로 제출

- 기입사항: 신상정보, 여행지, 교통수단, 소지한 현금의 정확한 금액과 출처, 사용처, 소유자 및 수령자

. 돈세탁이나 테러지원 의혹이 없을 경우, 소지한 돈을 가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세관 관리의 확인 및 서명이 있는 신고서 한 부는 돌려받게 되며, 여행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혹 여행자의 진술이 의심되거나 돈세탁이나 테러지원 관련 단서가 있을 경우, 조사 기간 동안 현금은 세관에서 압수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85유로(2021년 9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557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524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1
비고	최저임금: 2021년 기준				

<자료원 : Absolventa, Ausbildungspark (2021년 5월 기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계약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 근무 시작일
- 수습 기간 및 계약 기간
 - 대부분 직장은 6개월의 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측정하며, 수습 기간 내에는 2주 전에 통보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년 이내의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근무 장소
 - 피고용자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경우 피고용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
- 직책 및 근무내용
- 급여
 - 대부분의 독일 기업은 13개월 치 보너스를 지급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기업의 다른 직원들이 수년간 13개월 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직원도 13개월 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13개월 치를 벗어난 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독일 진출기업은 한국 일반 신입사원과 비교를 하여 월급의 적정선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독일 노동청의 기준은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독일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현저히 낮은 월급이 지불되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연방 주마다 평균월급에 차이가 있으므로 취업체류권 신청 전에 해당하는 주에서 어느 정도의 평균월급이 지불되는가를 알아본 후 이를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근로시간
- 연차휴가기간
- 노동관계 해지를 위한 예고기간
 - 노동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사업장협정, 복무협정 등에 관한 일반적인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근로시간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이다. 6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와 1년에 최대 60일은 하루 10시간으로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동안의 휴식은 필수이며, 다음 근무 전까지 11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휴식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아침 10시부터 15분의 휴식시간을 주게 돼 있다. 사무

실에서 일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약 15분은 '짧은 휴식'으로 보장돼 있다. 짧은 휴식의 경우 15분이 최소 단위이며 6시간 이상 휴식 없이 근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노동시간법(ArbZG) 4조).

주당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와 시간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초과근무란 예외적인 상황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합의로 도출된 시간 내 업무가 연장될 수 있음을 말한다. 고용주와 합의가 되었거나 고용주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업무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초과근무 시간수당에 관하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합의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초과근무 시간수당 금액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합의된 근로계약서를 1차적으로 따른다. 초과근로에 대해 금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 일수의 상향 조정으로 보상하거나 특정 시간의 초과 근로 또는 모든 초과 근로에 대해 미리 임금으로 보상한다고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초과 근로에 대해 휴가 또는 임금 지급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 근로 시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다. 슈피겔지 보도에(2020년 7월 12일 자) 따르면, 독일 주당 초과시간은 2009년 6.5시간 이후 10여 년이 지난 2020년 주 3시간으로 감소하여 경제호황과 워라밸(Work-Life-Balance) 문화가 강조된 2020년 독일 사회를 반영해준다.

그러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곳이 많다. 철강 산업의 경우 주 근무 시간은 서독지역은 35시간이며, 동독지역은 38시간이다. 소매업계의 경우 평균 37.5시간, 공공 업계는 38.7~42시간이다. 또한, 산업별로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즉, 일반 직장의 평균적인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직장이나 개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를 신청한 경우가 빈번하다. 금요일에는 평일보다 1~2시간 일찍 종료하는 회사가 많다. 일반 관공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12시까지만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휴가

독일 근로자의 최소 연차는 주 5일 근무의 경우 20일, 주 6일 근무일 경우 최소 24일이나, 대부분 기업은 25~30일의 휴가를 허용한다. 연방휴가법(BUrlG) 제7조에 따라 휴가는 해당 년도 12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회사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급한 경우(예를 들어 질병)에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이월된 휴가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진다. 근로자가 직업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연 5일 교육휴가(Bildungsurlaub)를 가질 수 있다. 독일 대부분의 주가 현재 교육휴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년마다 10일씩 받을 수도 있다. 단, 바덴 뷔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작센주, 튀링엔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휴가 일수는 총 14주로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주이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출산을 계기로 육아를 위해 임금을 계속 지급받지 않고 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때에는 만 8세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이다.

해고

독일에서는 해고보호법(Kündigungsschutz)과 같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노동 법규를 통해 고용인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는 크게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해고,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 및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고로 나뉜다.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면 대부분의 경우 해고 후 직원은 노동법원에 소송할 것이며, 직원이 매우 큰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원은 고용주와 직원의 합의를 권한다. 통상적으로 고용주가 1년 근무에 0.5~1개월 급여를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기업은 소송을 피하고 직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고하고 싶은 직원에게 보상금, 휴가 등을 제시하며 노동계약을 종결하는 종결계약(Aufhebungsvertrag)을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소송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는 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은 어느 정도의 협상 후 종결계약에 표기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독일의 경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직원의 노동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이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연 수입이 64,350유로 이하(월 5,362.5유로)이면 의무적으로 공보
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입이 더 높으면 공보험 또는 사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주로 사보험 수입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자, 연금
생활자 및 실업자 수당 수령자들이 공보험을 사용하며, 고소득 근로소득자, 공무원 및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보험을 사용한다.

2021년 공보험 건강보험 지불액은 세전 소득의 14.6%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7.3%)이 부담한다. 사보험의 경
우 보험사별로 혜택 및 보험료가 상이하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독일에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실업이 되면 1년간 마지막 급여의 70% 정도를 지불한다.

고용보험 지불액은 2021년 1월 1일부로 세전 소득의 2.4%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1.2%)이 부담한다.

산재보험

근로자가 부상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 지불액은 2021년 기준 세전 소득의 최대 1.6%이며, 고용주가 100% 부담한다. 산업별로 지불액이 다르다.

국민연금

독일에는 한국처럼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 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연금보험에 급여의 일부를 납부하며, 이 금액은 곧바로
연금 수령자에게 전달된다. 연금보험 지불액은 2021년 세전 소득의 18.6%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9.3%)이 부
담한다.

요양보험

'4대 보험'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 근로자는 4대 보험 외 '요양보험' 에도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질병이 생겨서 장기요양을 받아
야 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요양보험 지불액은 2021년 세전 소득의 3.05%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이 (각각 1.525%) 부담한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며, 법인이 창출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Krperschaftssteuer), 영업세(Gewerbesteuer), 및 통독세(Solidarittzuschlag)가 부과된다.

법인이 정관에 의해 법적 소재지를 독일 내에 두거나 경영의 중심지를 독일에 유지하는 경우, 독일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 소재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인은 비소재지로 간주된다. 독일 소재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지 독일 원천 소득만 과세할지가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독일을 소재지로 하는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으며, 비소재 법인은 독일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독일 원천소득에는 독일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창출된 소득, 독일 회사 주식의 양도소득, 농업 및 산림소득, 임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 특정소득이 포함된다. 회사의 상장 여부에 의한 차이는 없으며, 독일에 위치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도 독일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독일의 세금계산 목적의 세무 회계는 기업회계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세법규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결정하고 있다. 회계 장부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표준을 추정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 설립 또는 증자로 인해 발생한 창업비 등은 자본화하지 않으며, 이들 비용은 발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된다. 창업비는 회계사와 변호사 수수료 및 등록비를 포함한 것이다.

독일의 법인세율을 과세 대상 수입의 15%이며, 영업세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개인소득세

현재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구분돼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독일 거주자 법인의 국외 원천소득은 독일에서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독일 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이런 목적에 따른 국외 원천소득에는 농업 및 산림소득, 다른 상업적 소득, 특정 자산 및 주식양도소득, 특정투자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항목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목이 독일 법인세/소득세와 동등한 성격의 세금이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관해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한 기간에 세액공제 혹은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 납부 세금은 이월이 불가능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독일 개인소득세의 기본 공제상한가는 9,744유로이다(2022년 9,984유로).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는 높아지며, 2021년 기준으로 세전 소득이 265,327유로 이상인 경우는 소득세율 45%가 적용된다.

2018년 부터는 소득신고 기한이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2021년 소득신고는 2022년 7월 31일까지 마치면 된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여부, 주요 관리장소, 청구/지불의 장소 등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독일 내에서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

한다. 독일의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세무 행정과 관련해 하나의 세무등록 번호가 주어지며, 신청 시 추가로 부가세 번호가 각 등록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2007년 1월 이후 독일의 부가가치세율은 19%이나, 서적, 신문 및 식료품(음료수 제외) 등의 특정재화 및 서비스에는 기존의 7%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으로는 의료, 교육, 자선,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호텔 및 숙박업계에는 기존의 19%에서 인하된 7%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초 1968년 10%로 적용된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독일 전체 세금 징수액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독일 연방정부의 세수 중 이 중 부가가치세 수입이 944억 유로(30.4%)를 기록했다. 2020년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가세를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16%(인하된 부가세는 5%)로 인하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19%로 인상하였다.

▣ EU 개정 부가가치세법(2021년 7월 1일부 적용)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2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할 목적으로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규정(VAT e-commerce package)'을 채택하였다. 동 규정 개정은 소액 역외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온라인 거래에 대한 느슨한 부가세 징수 관리가 역외국 대비 역내 기업이 불공정 경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요 회원국의 문제 제기가 EU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이해된다. 동 개정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EU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제도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종전에는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 가치가 22유로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EU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EU 역외 상품이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 즉, 종전에는 제품 가격 22유로 이하인 경우 부가세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주류, 담배, 향수 등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며, 제품가격 22유로 초과 15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7-19%에 이르는 수입부가세 부과, 제품가격 150유로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입부가세와 특별소비세가 모두 부과되었으나 규정 개정 이후에는 부가세 면제 금액 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 온라인 거래의 경우 EU 부가가치세 규정 준수 책임이 개별 판매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이전되었다. 이는 플랫폼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부가세 미신고 등 탈세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가세 납부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역외 상품 판매자의 부가세 미신고 및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에 따른 탈세 규모를 연간 500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규정 준수 책임이 플랫폼 사업자로 이관되었으나, 실행에서는 아마존 등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의 규정 준수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셀러 등록 시 세금번호 및 부가세 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배송비 포함 150유로 이하의 B2C 역외 수입품에 대하여 EU 통합 부가세 신고 플랫폼(IOSS)을 신규 도입, 효율적인 징수 체계 마련을 통해 통관 지연 방지와 부가세 신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 부가세 신고 : IOSS(EU 온라인 거래 부가세 신고 시스템))

현지 세무법인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U 소재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세금번호(Tax Number)와 부가세 번호(VAT Number)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이후 IOSS 포털을 통해 IOSS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부가세 관리 의무가 플랫폼 사업자로 이전됨에 따라 아마존 등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부가세 관리 의무가 플랫폼 사업자로 이전됨에 따라 아마존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IOSS 틀을 제공하거나, 아마존 판매자가 IOSS 등록을 증빙할 경우 셀러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내기업과 같은 EU 역외 기업의 경우, EU내 세무 대리인(회계 법인 등)을 지정하여 IOSS를 통해 부가세 납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IOSS에 등록된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이 EU 회원국 소재 구매자에게(B2C 거래) 배송되는 시점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세율은 상품 도착 예정 국가의 부가세법에 따라 상이하다. IOSS 시스템으로 부가세 신고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EU 소재 최종 소비자가 상품주문을 완료하기 전까지 상품 구매에 따른 부가세를 최종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상품 판매 시 온라인에 별도 표시해 주어야 한다.

- ② 판매자는 모든 적격상품 공급에 따른 부가세 징수를 상품 배송 목적지의 EU 회원국에 보증해야 한다.
- ③ 수화물의 형태로 발송된 적격 상품의 가치가 배송비 포함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④ 판매자는 등록된 EU 회원국의 IOSS 포털을 통해 최초 2년간은 매월, 이후에는 분기별 누적 거래액이 7,500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월별로 진행했을 경우 납부도 월별로 진행하고, 분기별로 신고한 경우 납부도 분기별로 진행한다.
- ⑤ 신고 이후 10년간 IOSS를 통한 신고 건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외 B2C 직접 거래 시 부가세 신고: 독일의 경우 전자세관시스템 이용)

상기 IOSS 이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B2C 거래를 전제하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 직접 발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B2C 직접 거래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독일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 세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배송비 포함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세관신고사이트(www.zoll-portal.de)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전자신분증명서(안드로이드 또는 iPhone용 AusweisApp2에서 다운로드 가능)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동 신고를 위한 전용 사이트인 ATLAS-IMPOST를 2022년 1월 22일부로 오픈할 예정이다.

신고 주체는 물품 수취인(개인), 우체국 등 배송 주체, DHL 등 국제 특 기업으로 되어 있어 B2C 직거래시 국제 특송 운송기업에 상기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 단, 대행 수수료는 특송 기업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어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독일전자세관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독일 세관 서비스 안내 데스크(Service Desk Zoll)에 접수할 수 있는바, 연락처는 이하와 같다.

<독일 세관 서비스 안내 데스크(Service Desk Zoll) 문의>

- 전화: +49-(0)800-8007-5452(월-금 07:00~18:00, 공휴일 제외/현지시간 기준)

- 이메일: servicedesk@zoll.bund.de

특별소비세

독일에서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는 담배, 커피, 전기, 에너지(구 석유세)와 맥주, 중간제품(와인과 증류주 사이 단계), 스파클링 와인 등을 비롯한 알코올 및 알코올 포함 음료수 등에 적용된다. 2020년 특별 소비세 부과에 따른 세수 규모는 약 626억 유로로 연방정부의 총 세수의 20.1%에 해당한다. 이 중 에너지세가 총 376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솔린의 경우 리터 당 0.72유로(2020년 0.65유로에서 인상), 디젤의 경우 리터 당 0.55유로(2020년 0.47유로에서 인상)가 적용된다. 전기세는 연 세수 규모가 66억 유로에 달하며, 일반적으로 전력공급 기업으로부터 징수되는데, 이는 전기가격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청구된다.

영업세

독일의 영업세(Gewerbesteuer) 세율은 8.5%~20.3%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제도다. 베를린은 14.35%, 함부르크는 16.45%, 뮌헨은 17.15%, 프랑크푸르트는 16.1%를 적용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독일 평균 영업세는 14.1%이다. 한국 기업들은 프랑크푸르트에 인근 지역에 주로 소재하는데, 프랑크푸르트보다 영업세율이 저렴한(11.55%) 이유로 15분 거리인 에쉬본(Eschborn)에 소재지를 두는 경우가 많다. 영업세는 법인세와 달리 법인뿐만 아니라 과세소득 규모가 일정 한계를 넘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부과된다. 단, 수익이 24,500유로 이하인 경우 영업세 대상이 아니다.

기타/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외국 법인은 독일에서 유한 납세자로 간주되며, 오로지 독일 원천소득에 근거해 과세된다. 원천소득에 근거한 납세로 인해, 배당금이나 로열티와 같은 수동적인 소득에 근거한 조세는 독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 소득세로 정산된다. 조세협약(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적용되는 곳에는 세무부담 없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 사무소의 피고용인은 연락이나 부수적인 업무의 영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로 간주될 만한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독일 소재 대한민국 법인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96개국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해 세금 감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형적으로 조세 조약에는 소득 원천 국가나 소재 국가 중 한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상대국은 동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허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사회보장세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 파견되는 근로자는 양국의 연금제도에 이중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됐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독일은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에서 발표한 2021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92.72점을 획득하여 3위에 랭크 되었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80년 12월 16일에 특허법을 공포하였고, 1876년부터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하며 1988년 7월 1일부터는 독일 국내 및 국외 거주자가 독일 특허청(DPMA)에 등록할 수 있게 하였고, 1896년에는 기만적 광고 등을 비롯한 특별한 유형의 불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는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에 대하여, 그것이 신규하고, 발명 행위에 근거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경우에 부여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견이나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인 창작물, 정신적 활동, 유희, 영업 활동을 위한 계획, 규칙, 절차 또는 데이터처리장치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은 발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특허법 제1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디자인보호법 제2조),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인 외관에 대해 인정된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5년간 보호가 가능하며,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까지 가능하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 영업상의 표지, 원산지 표시 등이 보호되며(상표법 제1조),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제한 없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경쟁자, 소비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를 기만적 광고행위 등 부정한 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한편, 독일은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를 통한 특허출원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다. 해당 권리는 EU 가입국(특허의 경우 EPC 회원국)내에서 보호 받도록 할 수 있다.

추가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상표 및 유럽공동체디자인의 출원은 영국을 제외한 EU27개국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유럽지식재산청을 통하여 출원된 유럽상표 및 유럽공동체디자인이 당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 및 디자인은 영국에 그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만약 영국에도 그 권리가 필요한 출원인은 올 해 9월 30일까지,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해당 지재권을 재출원 하여야 한다. 올 해부터 영국에 상표권 및 디자인권 보호가 필요한 우리기업은, 더 이상 유럽지식재산청이 아닌 영국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 하여야 한다.

9. 청산 및 철수

독일에 설립된 회사의 청산(Liquidation)은 파산(Insolvenz)과 엄격히 구별된다. 회사 청산은 회사가 채무를 이행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를 청산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반드시 일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사등기법원이 동 요건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기본적으로 독일 법인 철수 및 청산은 해산(Auflösung), 청산(Liquidation), 종결(Lschung)의 3단계로 구분된다. 해산은 기업의 청산과 법인격 소멸을 목적으로 하며, 주주총회 시 주주 75% 이상이 해산에 찬성하면 해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파산을 통해 강제로 해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도 있다. 해산절차 개시 일시를 명시하지 않으면 즉시 유효하다. 청산은 회사가 상업등기부에서 말소되는 것을 뜻하며, 해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청산은 법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결은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해 주주에게 배분한 후 상업등기소 등기부에서 법인 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이다. 청산소요기간은 채권자보고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며 비용은 청산절차 및 법적 서비스업체 선임 등에 따라 상이하다.

1) 청산 절차

(1) 해산

○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원인은 되나 청산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기업은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다. 회사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투표 참가 자본 75% 이상이 해산에 동의하면 해산절차를 개시한다. 해산 결의는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유효하나, 해산 결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해산과 함께 법인장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0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62조 1항)

○ 법인이 해산을 결정하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청산인을 통해 상업등기소에 등기할 의무가 있다. 즉 독일 공증인의 입회하에 청산인이 관련된 신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5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63조)

○ 해산 개시 후 법인은 기업명 뒤 'i.L(in Liquidation - 청산 중)'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법인이 해산 중이라는 사실을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통지는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1번 공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인의 목적을 경제적 영업에서 법인 자산의 청산으로 변환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5조 2항, 주식회사법(AktG) 267조)

○ 동 통지 내용을 개시해야 하는 기간은 없으나, 공고가 이루어진 기점으로 1년 동안은 회사 재산의 분배가 정지되는 채권자 보호기간이 있어 적합한 시기에 공고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3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2조)

(2) 청산

○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인은 대외적으로 청산기업을 대표한다.

- 통상 법인장이 청산인 역할을 부여받지만 제3자를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6조, 주식회사법(AktG) 265조)

○ 청산인은 공증형식을 거치면서 상업등기소 신고를 통해 등기법원에 자신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실과 관련하여 형법, 영업법 또는 직업법에 비추어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이는 법인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도 동일하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7조 3항, 주식회사법(AktG) 266조 3항)

○ 청산인은 아래 사무활동을 통해 기업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며 청산 법정 규정을 어기면 청산인이 개인 자산으로 손해 금액을 충당해야 한다.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0조, 주식회사법(AktG) 268조 1항)

○ 공증인은 채권신고 요청을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공고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법인의 청산 개시

관련 법 및 절차

를 공시해야 하고, 1년 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를 상업등기부에서 말소할 수 없다. 공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은 없다.
- 1회 채권신고 공고가 이루어진 기일을 기점으로 1년 동안은 회사 재산의 분배가 정지되는 채권자 보호기간이 된다.
-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 청산인은 청산종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1조 1항, 73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2조 1항)

○ 청산인은 모든 채권을 변제한 후 현금화한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 분배 후 법인의 기타 자산이 존재할 경우 추가청산이 필요하며, 새로운 추가청산 청산인을 임명해야 한다. 청산 후 발견되는 세금 상황, 매출채권 등이 추가청산의 대상이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2조, 주식회사법(AktG) 271조)

(3) 종결

○ 법인 채권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상업등기소에 기업의 종결을 공증하여 신청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4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3조 1항)

○ 청산이 종결된 이후에도 회사의 장부와 문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4조 2항, 주식회사법(AktG) 273조 2항)

○ 해산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업등기부 사본에 삭제 표시가 이루어지는데, 이로써 법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4) 청산 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 청산 시 과세 문제는 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산 소득은 청산 종료 시 주주에게 배분될 자산의 시장 가치에서 청산개시 시 순 장부 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세무 목적으로 청산 기간은 통상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주주의 입장에서 청산 소득은 본질적 청산 소득과 순자기자본, 즉 세법상의 자본금 계정(tax-specific capital contribution account) 상황에 속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익 준비금이나 은닉 적립금에서 주주에게 지불되는 형태의 청산 배당은 일반 규정에 의해 자본 투자 수익으로 과세되며 95% 면세 적용을 받는다.

자본금 계정으로부터의 상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 법인세 규정에 의거하여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95%가 면세된다.

2) 파산 절차

부득이하게 독일에서 파산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GmbH) 등 법인일 경우에도 파산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파산이 임박할 경우 전문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파산 신청의 경우, 법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Insolvenzverwalter)이 주주의 유한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영향력 상실, 향후 유럽 내 영업제한에 따른 불이익, 한국계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이미지 상실, 파산신청 및 절차에 대한 복잡성, 파산관재인에 대한 높은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파산을 통한 회사정리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독일 진출 국내기업 대부분은 주주의 임의청산 방법을 통해 독일 내 사업을 정리한다.

○ 유한책임회사(GmbH)가 파산위기에 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은 지켜야 할 의무가 많아진다. 독일 관련법상 이행해야 할 법정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 책임은 물론 형사 소송절차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 법인장이 독일 파산법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의 채무를 법인장의 개인 자산으로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50% 가 손실되었을 경우 법인장은 독일 유한책임회사법(GmbHG) 제49조 3항

에 의거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자본금의 손실을 연말 재무제표에 의하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연중에도 월말결산을 통하여 자본금 50%의 손실이 확인되면 주주총회 소집 의무가 발생한다. 주주총회 소집은 향후 법원의 조사 시 증거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서면상으로 통보할 것을 권장한다. 임시 주주총회의 목적은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영업정책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있다.

- 주주총회 이후에도 회사의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한다면 법인장의 신고 의무는 더 확장된다. 독일 파산법 (Insolvenzordnung) 제15 a조 1항에 의거 법인장은 지급불능(Zahlungsunfaehigkeit) 또는 채무초과 (Uberschuldung)의 인지 후 즉시(늦어도 3주 이내에) 파산 신청(Insolvenzantrag)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급불능은 채무자(파산 위기의 유한책임회사)가 만기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채무초과는 완전자본잠식을 뜻한다.

- 채권자(예: 은행, 의료보험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인장의 파산신청 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법인장은 파산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파산신청 시 파산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이에 관한 서술은 파산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파산신청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임시 파산관리인(vorlaufiger Insolvenzverwalter)을 지명하여 파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검토한다. 파산절차 비용이 자산 부족으로 충당이 안되면 파산신청은 거부당한다. 그러면 검찰청에 통보되어 형사소송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파산절차를 개시하게 되어도 파산관리인은 파산신청 시점을 먼저 조사한다. 파산신청을 너무 늦게 제출했다고 판단되면 파산지연이라는 범행으로 법인장이 형법의 대상이 된다.

○ 파산관리자는 파산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의 채권만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법적 행위를 취소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독일 파산법 제129조). 특히 파산법 제133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가해의사를 알고 취득했을 경우, 파산관리자는 채무자의 파산절차 개시 10년 전 법적 행위까지도 취소할 수 있다. 더불어 파산신청과 관련된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파산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임시 관리자 임명
- 채무자에게 처분할 경우 임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처분금지를 지시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 지시 가능 등

○ 만약에 도산재단 (insolvency assets)이 충분히 존재하고 파산 이유 (지급불능, 지급불능 위협 또는 채무초과)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의를 가지며 동시에 파산관리자를 임명하게 된다. 관할 법원은 파산관리자 임명 관련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제의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임시 파산관리자가 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파산관리자로 지명된다.

○ 파산 절차의 개시는 홈페이지(www.insolvenzbekanntmachungen.de)에 공표되며, 등기 및 상업 장부에 등록된다. 동시에 파산 절차 개시 결의에는 채권자 회의 일자가 정해지며, 파산관리자 보고서 기반으로 파산 절차 진행에 관한 내용이 결정된다. 동 일정은 파산 개시 후 최대 3개월 안에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일정도 결정된다.

3) 독일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파산신고 의무 유예 조치

독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을 배려하여 2020년 3월부터 파산신고 의무 유예를 결정하였다.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였어도 파산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조치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는데, 정부는 2021년 5월 1일부로 유예조치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독일 인구는 8,319만 명(2020년 9월 기준)이며 독일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다.

<자료원 : 독일 통계청>

소비 성향

독일의 연간 GDP 규모는 2020년 3조 3,362억 유로, 2021년 3조 4,850억 유로에 달한다. (2021년 GDP는 추정치). 했다. 2020년 2분기부터 독일 GDP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치를 기록했다. 특히, 락다운으로 인한 상점의 영업 운영 중단 조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20년 민간소비는 상당히 위축되었다(-6.1%). 그러나 2021년 2분기부터 코로나 19 백신 보급 확대 속에 상황에 다시 호전, 수요 회복에 따른 성장세가 진행 등으로 '21년도 개인소비는 0.8%로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6.1%)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독일 시장은 대체로 자유시장원리가 지배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및 자국 산업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인들은 'Made in Germany'의 제품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내수시장이 활발하다. 또한 독일은 Hannover 산업 박람회, 자동차박람회(IAA), Automechanika 등의 대형 전시회를 개최하는 국가로, 국제 교역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EU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일은 유럽 경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노동 시장의 비유연성과 세금 및 신규 사업 확립에 있어 과도한 규제, 높은 사회보장비용 등은 정부 차원의 다방면 제도개혁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독일 산업의 주된 분야는 자동차, 기계, 화학, 첨단 기술 분야이다. 지난 몇십 년 간 주요 제조기업은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겨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 부품 조달이 일시 중단된 이후 독일, EU 내에서 부품 조달을 하려는 노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독일에는 언택트 소비가 정착, 코로나19 제재(하드 락다운) 완화 이후에도 온라인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확대 및 시장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연방온라인유통및주문판매유통협회(behv)에 따르면, '21년 상반기 온라인 거래는 452억 유로로 전년 동기(367억 유로) 대비 +23.2% 증가했으며, 주요 유통기업의 마켓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DIY 용품/꽃(+37.3%), 식료품(+34.9%), 생활위생용품(+34.2%), 가정용 섬유용품(+31.5%), 의약품(+30.6%) 등의 품목군에서 '20년 대비 온라인 구매도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원 : '21년 7월 연방온라인유통및주문판매유통협회(Bevh)) 독일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프레쉬(Amazon Fresh)로 식품 시장 진출 후 식품 유통시장 석권 목표, 식품유통기업 테구트(Tegut)와 협력해 아마존 프레쉬 런칭, 베를린/포츠담('17,5), 함부르크('17.7), 뮌헨('17.11)에서 시범 운영 후 현재 제품 포트폴리오를 5만 개로 확대한 바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과에 힘 입어 IT,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품목에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2021년 3분기 판매량 기준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시장점유율 20.8%로 독일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TV 가전의 경우 삼성(32.9%)과 LG 전자(19.2%)가 독일 TV 시장의 점유율 1,2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 진단기기를 중심으로 한 방역제품의 대독일 수출이 급증하며 대독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20년 및 '21년 6월 누계 독일의 대한국 마스크(HS 630790) 수입은 각각 +2,292.8%, -47.3%, 진단키트(HS 382200)는 각각 +2,153.7%, +1,440.8%, 수송배지(HS 382100)는 +355%, -74.1%, , 손소독제(HS 380894) +99.4%, -99.8%, 검체 채취 키트(HS 300590)는 +37.8%, +41% 등으로

'20년 수입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료원 : GTA) 이와 같은 우리 상품의 독일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상승에 따라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BTS, 블랙핑크를 비롯한 K-Pop,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 등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이 독일에서도 목격되고 있어 상품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도 눈에 띄게 증가 추세이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사전 연락 및 늦은 회신 가능성

휴가 중(7~8월 여름과 부활절 및 방학 시즌,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2~3주) 또는 퇴근 후(탄력근무는 오후 4시 이후) 개인 연락처로는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출장 계획 시 또는 독일 바이어와의 교신 시 반드시 연계 휴일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약속은 반드시 최소 6주에서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시간 관련 이메일 송부 시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기업과 미팅을 잡는 것은 어려우나 일단 잡히면 중도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미팅 당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미팅에 임하는 편이다.

2) 신용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KOTRA를 통해 신규 잠재 바이어를 소개받았을 경우, 제품 상세정보가 있는 자료와 거래조건(가격, 결제조건, 최소수량)에 대해 궁금해한다. 관련 제품 판매업체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구성돼 있는지 미리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독일 회사를 가장 하면서 사기를 치는 기업들도 요즘 늘어났기 때문에, 온라인 상업등기소(www.handelsregister.de)에서 이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공시 사이트(www.bundesanzeiger.de)에서 기업의 재정상태를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소개자료 준비 시 글꼴은 Arial, Times New Roman 등 독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글꼴을 사용하고, 글꼴색은 검정, 파란색만을 사용하며, 원어민의 감수를 받아, 전문적인 첫인상을 주는 것이 필수다. 이메일 송부 후 회신 검토기간은 2~3주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품과 관련해 세부 기술 데이터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인증이 없는 경우는 취득 후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이어가 알만한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리하며, 현재까지의 파트너 업체 및 공급업체 정보 및 수출 경험 등을 간략하게 공개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독일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높은 품질과 함께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 독일 바이어들의 경우 물량 및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일 경우, 독일 내 물류창고를 보유한 기업을 선호한다. 제품 A/S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려해두는 것이 독일 시장 공략에 중요한 점 중 하나이며, 일부 대형 바이어는 독일 연락사무소 또는 지사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3) 현지 비즈니스 관행 이해 필요

Sales, Marketing, Purchasing 등의 담당자가 나뉘어 있고, 담당자 부재 시 업무 대행은 불가능하며, 규모가 작은 경우는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접촉 시 대표 이메일로 정식 문의 후 반드시 유선 접촉을 통해 메일 수신 여부와 정확한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가 모르면 대표 메일로 연락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꼭 유선으로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독일 업체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 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 신규 거래선 발굴이 어려우나,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장기적으로 거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4) 결제조건 제시

거래를 문서 위주로 진행하며,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대금 결제방법 및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대금 결제조건이 DDP(Delivery Duty Paid)인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관세, 현지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부가세(2007년부터 19%로 인상)는 수입자가 선납 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계약서(Sales agreement)상에 부가세는 하주(consignee)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다.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index.do>)가 운영하는 '환변동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결제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분쟁 발생을 대비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재지역에 자국을 선호하나, 제3국을 중재지로 지정할 수 있다(참조: www.kcab.or.kr). 불만이 있으면 즉각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5) 계약 내용 점검

독일은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를 더 신뢰하는 편이다. 독일 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 세부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할 경우 문제 발생 시 매우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 있으며, 독일인들은 계약을 매뉴얼

처럼 지키려 하고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이 계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조항과 다른 선적으로 이해 클레임을 당하거나 수출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6) 영문 카탈로그와 홈페이지는 필수

독일 바이어들은 상세한 제품 카탈로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첫 미팅에서 즉시 전달하는 것이 좋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팅 후 곧바로 메일로 카탈로그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카탈로그 디자인을 물론이고 완벽한 영문으로 작성된 카탈로그를 송부하는 것이 상거래 시 유리하다. 카탈로그가 조잡해 보이거나 오타자가 많을 경우 문서를 중요시 여기는 독일 바이어에게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독일 비즈니스 관행은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보다 보수적인 편이다.

1) 복장과 선물

공식적인 미팅에서 정장은 특히 초면이나 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적이다. 안면이 있으면 평상복 차림도 무난하며, 공장 방문일정이 있거나 공장 관련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완벽한 정장차림보다는 노트이 등 세미 정장이 더 적합하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캐주얼한 복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선물의 경우 부담이 없는 선물을 사전에 준비해 전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독일 대부분 기업의 경우 10~2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상사나 내부 감사실에 보고해야 하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만약 2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된다. 한국 전통제품 중 10유로 이내의 한국차, 전통 무늬 기념품, 태극무늬 부채, 열쇠고리, 장식품 등은 부담이 없으면서도, 특색 있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20유로 이하인 레드 와인 한 병 정도가 적당하다. 향수나 의류, 50유로 이상의 선물, 특히 양주나 고급 선물 등은 뇌물의 성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꽃 선물은 포장하지 않고 홀수로 하되, 13송이를 선물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 아울러 선물을 포장할 때 흰색, 검정색, 갈색 포장지는 장례식을, 장미는 구애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선물은 가급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푸는 것이 예의로 받아들여지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 받는 이가 자신의 선물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선물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쁜 표정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물을 주는 시기도 중요하다. 협상이나 방문의 마지막 단계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사와 호칭

공식적인 만남에서 인사는 남녀불문 악수하며 손을 힘차게 잡고 눈을 맞추며 한다. 악수를 할 때, 다른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는 안되며 등 뒤로 가게 하면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 여성과('Ladies first') 먼저하고, 상급자와 한다. 여성이 악수를 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대부분 독일 비즈니스맨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이나, 독일어를 사용할 경우 호칭할 때 이름이 아닌 성을 부르며, 성 앞에 Herr(Mr.) 또는 Frau(Ms./Mrs.)를 붙이고,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Herr/Frau Dr. Meier 또는 Herr/Frau Prof. Dr. Meier 등으로 직함을 꼭 넣어주도록 한다. 중간 간부 이상이면 대부분 석사, 박사학위 소위자이며, 직함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칭하는 것은 큰 실례이다. 미팅을 진행할 경우에는 경어인 '당신(Sie)'을 사용하고, 친한 동료 사이에서도 회의 석상 혹은 외부인이나 상관 앞에서는 성이나 공식직함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은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도 Du(너)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대화와 제스처

첫 대면에서 스몰토크(Small Talk)보다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치'나 '히틀러' 시대에 대한 언급이나 정치/종교에 대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나이, 연봉,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등 개인적인 질문은 본인이 먼저 언급하지 않는 이상 삼가야 한다. 독일인들은 '눈치' 또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잘 통하지 않는다. 독일 문화는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편이라 파트너의 주장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되고 숨은 의도 등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주로 미팅 시간 내에 협의를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악수 외 어깨를 가볍게 치는 등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대화 도중 상대방에게 손을 대거나 살짝 치는 행동은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다. 중지 위로 세우기, 검지로 머리 윗부분 옆쪽을 톡톡 치기, 손바닥을 얼굴 앞에

두고 흔들기 등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코가 막히면 들이마시거나, 과도한 감정 표현, 대화 중에 수시로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코나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웃을 때 손을 가리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만취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은 큰 실례이다.

4) 식사예절

업무상 식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독일인들은 식사예절을 상당히 중시한다. 식사 매너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찹찹 거린다거나, 후루룩거리며 마시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크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입에 음식을 넣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술이나 물을 따를 때 잔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 잔을 묻지 않고 채워주는 행위는 예의에 어긋나며, 음식이나 술 등을 권할 때에도 한 번 권해서 'No'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식탁에서 코를 푸는 행위는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성과 동행했다면 오른쪽 좌석에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뒤로 빼주고, 함께한 모든 여자 손님이 앉은 후 착석한다. 식사 도중 손목은 무방하지만, 팔꿈치를 올리지 말고, 팔짱 끼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등은 금물이다. 또한 식사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는 행위도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부득이하게 전화하거나 문자에 답을 해야 할 경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업무 관련 대화는 자제하고 식사 전 후에 하는 것이 좋다. 주최자에게 모든 결정권을, 예를 들어 와인에서부터 식사메뉴, 대화 주제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건배 시에는 '프로스트(Prost)!' 또는 'zum Wohl(Zum Wohl)'이라고 함께 외치고, 주최자가 건배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며 잔을 부딪치도록 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Amazon(www.amazon.de)

- 개요: 독일 Amazon은 미국 Amazon에 이어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독일이 Amazon의 두번째 본거지로 여겨지는 만큼, 2010년부터 Amazon은 독일에 인프라 및 시설에 28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5년 미국에서 설립된 Amazon은 1998년 독일 시장에 진출하였다. 2020년 기준 독일 내 매출규모는 3백억 달러, 고용인원은 약 20,000명(정규직)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서적, 음반, IT 및 잡화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회원들에게 신속한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아마존의 회원제도인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의 일환으로, 일상 품목의 경우 주문 후 한, 두 시간 내에 배송이 진행되는 아마존 나우(Amazon Now)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식료품 배달에 초점을 맞춘 아마존 프레쉬(Amazon Fresh)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2) Douglas(www.douglas.de)

- 개요: 유럽 화장품, 향수 분야 선두기업으로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상점, 뷰티 마켓플레이스 및 2,000개 이상의 지점에서 13만개 이상의 뷰티, 라이프스타일 제품 또한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Douglas는 2020년 40,6% 성장한 온라인 영업에 집중할 예정임을 밝힌 상태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 본사를 둔 Douglas는 1910년 설립되었으며, 2019/2020년 기준(동사의 회계연도는 전년 10월~다음해 9월) 매출규모는 32억 유로, 고용인원은 약 5,2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화장품과 향수를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피부, 헤어 케어를 위한 영양제 및 액세서리 또한 제공하고 있다.
- 특징: 유럽 화장품, 향수 분야 선두기업으로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총 13만 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으로 총 14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224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다.

3) LH Brands Gmbh(lhbg.de)

- 개요: 유럽과 독일 전역에 한국 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체로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뷰티 브랜드를 꾸준히 유치하고 있다. 또한, LH Brands GmbH는 유럽 전역에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B2B 도매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효과적인 전자 상거래를 위한 'FairCommerce'의 회원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9년에 설립한 LH Brands GmbH는 독일 잉골슈타트(Ingolstadt)에 본사를 두었으며, 2019년 기준 약 47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 주요 판매 품목: 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화장솜, 브러쉬 등 메이크업과 관련된 제품을 비롯하여 액세서리 제품 또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특징: 유럽의 한국 제품 전문 유통업체로 한국산 뷰티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전문 홈페이지 bbcream24.de, kbeautyhouse.de 및 독일 잉골슈타트,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에 K-뷰티숍을 운영 중이다. 또한, Missha, It's Skin, Benton, Apieu, Enature, Fascy, Pureheals 등 약 24개 한국 브랜드의 주요 온라인 공급 플랫폼이다.

4) Conrad(www.conrad.de)

- 개요: 유럽 16개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전자제품을 조달하는 전문 소싱 플랫폼으로 약 600만 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23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된 전자제품 전문 유통점으로, 현 소재지는 히르샤우(Hirschau)이다. Conrad는 연 매출 약 10억 유로를 달성하고 있으며, 고용 인원은 약 2,1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주로 컴퓨터, IT 및 각종 전자전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 Voltcraft(측정 및 충전기술), Conrad Energy(배터리 및 전지), Toolcraft(공구) 등 다수의 자체 브랜드(PL)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배송건수는 약 720만 건(150여 개국, 1,200만 개의 제품)이다.

5) QVC(www.qvc.de)

- 개요: 독일 홈쇼핑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한 QVC는 독일 내 시장 점유율을 약 55% 차지하는 독일 홈쇼핑 업계의 선두 기업이다. 동사의 기업명 Q(Quality), V(Value), C(Convenience)는 기업의 모토 상징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86년 미국에서 설립된 텔레쇼핑 기업으로, 1996년 1월 독일에 진출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86년 미국에서 설립된 텔레쇼핑 기업으로, 1996년 1월 독일에 진출하였다. QVC는 독일 홈쇼핑 업계 매출액 1위(9억 7,800만 달러, 2020년 기준)를 기록하였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화장품, 보석 및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QVC, QVC Zwei, QVC Style 등 3개의 TV 채널을 비롯하여 온라인 상점, QVC 앱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TV 채널의 경우, 독일 및 오스트리아 내 총 4,100만 가구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고객수는 170만 명에 달한다. 1일 평균 50,000건의 주문 통화, 1일 평균 배송건수 45,000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Best Top 10 제품의 경우 벤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변속기 부품 수출 성공사례

H사는 전기차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기어류, 치절부분 가공을 위해 전폭적인 기술적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독일, 일본제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현지에서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독일어 가능한 엔지니어를 배치하여 독일 바이어들의 신뢰를 받은 것이 큰 몫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KOTRA의 글로벌 파트너링사업(GP)도 적극 참여하였는데 GP 사업은 글로벌 기업들의 부품 수요를 파악한 후 적합한 한국 중소기업을 찾아 매칭시킨다는 점이 기존 KOTRA 지원프로그램과 다른 점으로 성사율이 높다. 따라서 시장진출을 위해 GP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2) 마스크팩 수출 성공사례

유독 독일인들은 유기농 제품을 선호한다. A사는 이런 점을 살려 쌀, 콩, 동백, 자스민, 여성초 등 식물성 추출물 등 유기농 성분만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화장품 관련 제품은 EU 화장품 등록 포털(CPNP)상 등록과 인증획득이 유럽 및 독일 시장 진출에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A사는 시장 진출 전 관련 인증을 모두 획득하였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주최로 개최된 유통망 사업을 통해 홈쇼핑채널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현장에서 제품을 체험해보도록 했는데 이 점이 시장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3) 벽지 수출 성공사례

A사는 기존 벽지와 다르게 벽지 뒷면에 물을 적시면 발포된 풀이 녹아 개인이 직접 작업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의 제품은 당분간 중국에서도 기술 복제가 어려운 제품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18년도 초 관련 독일 소비재전시회 참가와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을 통해 제품을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같은 해 6월에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주최로 개최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사전에 연락을 취했던 담당자와의 1:1 미팅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유럽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변형해 독일 바이어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2018년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수출을 개시했다. 뛰어난 품질로 중국 유사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뛰어넘은 사례이다.

4) 녹차 수출 성공사례

독일 소비자들은 가격을 더 지불해도 친환경/무공해 식품을 선호한다. B사는 까다롭고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생산된 고품질 녹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일본 녹차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높다. 한국의 고급 녹차 제품을 시음한 바이어 및 전문가들은 한국의 녹차 제품은 경쟁국(중국, 일본)의 고급 녹차와 비교했을 때 품질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B사는 이를 성공적으로 마케팅하여 독일 바이어와의 계약에 성공했다. B사 관계자는 독일 내 한국산 녹차 제품의 인지도가 아직 낮아 바이어 접촉 시, 충분한 제품 설명 및 샘플 시음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며, 대중적인 중저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보다는 녹차 애호가들의 주요 구매처인 차 전문 판매점 등 전문매장을 공략하여 고급 차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차량용 난연소재 수출 성공사례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산업 위축에도 차량용 난연 소재는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유망 품목이다. KOTRA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는 A사는 난연섬유제품을 특화하고 독일 내 주요 바이어와의 꾸준한 교류를 진행하면서 독일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증을 갖추었다.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원가절약 압박을 받음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A사는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독일 바이어와 장기간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일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6) 공작기계용 정밀부품 수출 성공사례

공작기계용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독일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OTRA 월드챔프사업에 장기간 참여하면서 독일 주요 전시회를 집중하여 출품하였다. 특히, 세계 최대 금속가공 및 공작기계 전시회인 2019년 하노버 공작기계 전시

회(EMO)에 참가하여 바이어 풀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 독일 기계산업도 침체 우려가 지속하고 있지만, S사는 독일 수출액과 바이어 저변을 모두 확대하고 있다.

7) 치과 의료기기 수출 성공사례

의료기기 기업 M사의 간편한 실용성 디자인을 보유한 치과용 3D 스캐너의 독일 수출이 증가 중이다. M사는 현지 현장 애로사항(업무 효율성 및 시간 절약)을 해결해줄 수 있는 3D 스캐너(Scanner) 기술 보유하고 있다.

수출에 중요한 유의사항 - 1. (인증)기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무조건 최소 CE인증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마케팅) 지속적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 개발도 중요하고, 언어 장벽이 있다면 통역/번역을 통해 수월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지 전문가 및 의사들이 자주 보는 잡지와 전시회 관련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전시회) 전시회 기간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제품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바이어도 많다. B2B의 핵심인 전시회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8) 3D 프린터용 신소재 수출 사례

3D 프린터 전문기업 K사는 3D 프린터 신소재(광경화성수지) 수출에 성공했다. 동 제품은 덴탈 투명교정장치를 제작을 위한 3D프린터용 신소재이다. K사는 소비자들의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미적 선호도 증가로 샘플 6,000 달러를 수출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강경화 수지와 비교하여 고내열성, 고내마모성, 고강도, 고경도의 특성을 가진신소재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과 냄새가 없어 덴탈 투명 교정 장치에 최적화된 소재이다.

수출에 중요한 유의사항 - 필라멘트 공법이 일반적인 유럽 3D프린터 시장에서 관련 주요특성을 어필하여 바이어를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3D프린터 장비기업과 협업을 잘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인 이유로 전시회를 통한 협업 포인트 및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광경화성의 신소재로 이물감이나 투명한 견본에 대한 바이어의 의구심에 대하여 시연을 통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

9) 공기청정기 수출 성공사례

실내 공기청정기 전문기업 B사는 KOTRA 지사화 사업으로 독일 수출에 성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독일에서도 호흡기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야외활동 제약과 재택근무 등으로 자택 체류시간이 늘어난 독일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사 제품은 디자인 측면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산 제품과 큰 차이가 없으나, 공기청정기 내부의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확실한 품질 격차를 시현하여 바이어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였다. 또한 바이어의 샘플 테스트에 빠르게 응대할 점도 주효하였다. 독일 등 유럽국가로 전자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CE, RoHS 등 관련 인증을 필수 취득해야 하며, 바이어가 샘플 테스트를 요구할 시 가능한 빨리 응대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10) 밀키트 배달서비스 스타트업 현지진출 성공사례

아시아 밀키트 배달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E사는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0년 1월 밀키트 배달서비스를 런칭한 E사는 사업 초기인 2020년 1월 중국의 춘절 박스를 판매했으나, 아시아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국 음식 등 아시아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였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독일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였고, 일상적으로 먹는 빵이나 파스타를 제외한 색다른 음식을 체험해보고 싶은 독일인들의 온라인 밀키트 주문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동사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반경이 제약되는 점을 파악하고 `Explore Asia in your kitchen and travel later`라는 컨셉을 도입해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한 여행`에 주목했던 것도 현지 시장공략에 효과적이었다. 동시에 2020년 베를린 IFA 가전전시회 스타트업 한국관에 참여하여 잠재 고객과 투자가를 만나는 등 동사는 코로나19로 사업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초 Pre Seed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독일은 2020년 3월 말부터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으며, 2020년 6월 10일부로 EU 국민의 독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나 EU 역외국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로 독일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독일 입국 제한을 해제했다. 따라서 해당 시점부터 대한민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허용되고, 3개월 동안 독일 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단, 독일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또는 백신접종 완료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이는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단, 6세 미만이나 항공기 승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는 현지 담당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독일 입국 48시간 이내(검체 채취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항공사에서 검사를 시행하거나 제 3자가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핵산 증폭검사(PCR, LAMP, TMA) 및 항원검사가 인정된다. 신속항원검사는 WHO에서 권장하는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되며, 항체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결과는 입국 후 최소 10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독일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어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아래 비자를 신청해야 했다.

1)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 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일반체류허가는 기간형과 무기한 형으로 나뉜다. 대부분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2년 기간인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받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아래 조건의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형 일반 체류허가가 교부된다.

2) 유학생 비자

유학생 비자의 최초 교부 체류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 교부된다. (대학 입학 지원용 비자는 최고 9개월이다) 이 체류허가는 연중 120일 취업이나 학생 아르바이트를 허가하고(240일의 반일 취업도 가능), 학업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18개월 체류허가(구직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에서 얼마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이 있는 비자이다. 각 주의 해당 외국인관청 또는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유용하다. 계속해서 독일에서 일하고자 계획할 경우, 별도의 출국 없이 유효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정식취업을 위한 체류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독일에서 직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로 독일에 들어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각될 확률은 아주 높으며, 사전에 독일에서 다른 체류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독일에서의 직접적인 신청이 허용된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는 만 18~30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족 동반은 불가능하고,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 사진(1매, 3.5 x 4.5cm), 최소 2,000유로 이상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의료보험계약서, 체류 기간 내 배상책임보험(최소 30,000유로) 및 의료보험(사고와 질병

시 각각 최소 30,000유로), 신청 수수료이다. 취업증명서는 불필요하고,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한다. 1회만 가능하여 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4) 취업준비비자

독일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며 구직하는 비자로, 기간 안에 고용되면 노동비자 또는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 비자로는 일할 수 없으며, 거주 동안 일자리를 찾는 비자이다. 각국 독일대사관에서 취업준비비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인터뷰 일자를 받고 이 인터뷰 뒤에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자격조건

- 독일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대학 학위
- 최소 5년의 전공 관련 직무 경험
- 재정증명서 (독일에서 구직 기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상태)
- 독일에서 인정되는 건강/여행 보험

*증빙서류

여권, 여권 사진 3매, 구직계획서(어떻게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또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경우 대체 계획),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예상거주지 정보, 건강보험서, 재정증명서

5) 노동비자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미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 및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관청에 거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독일에서 노동을 위한 장기거주 비자 타입은 아래와 같다.

- 노동비자(Employment): 독일에서 고용된 경우
- 자영업비자(Self-Employment): 독일에서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일 할 경우
- 취업준비비자(Job Seeker): 6개월간 독일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
- 오페어(Au Pair): 독일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한 청년 대상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약을 맺은 국가의 청년 대상

노동비자의 경우 독일에서의 고용이 확정되면 각국 소재 독일대사관/영사관/비자신청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기타 필요서류 제출 후 인터뷰가 진행되며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제출서류

비자신청서 2매, 여권 사진 2매, 여권, 거주증명서, 건강보험증, 고용계약서(연봉과 직무 상세히), 이력서, 증빙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등), 범죄경력회보서 (그 외 추가서류 요청 가능함)

6) EU 블루카드 제도

EU는 역외에서 IT, 엔지니어 등의(컴퓨터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물리학, 생물학, 수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연구자)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고급 전문 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해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외국인 관청에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봉이 56,800유로 이상(IT 등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부족 직업군'의 경우 44,304유로) 이면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블루카드 소유자는 33개월간 4대 보험을 납부할 경우 독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독일어 실력이 B1 이상일 경우 21개월)

※ 코로나19로 인한 독일 행정절차 마비현상으로 2021년 12월 현재 기준 외국인청 방문 일정 예약(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와의 면담일정이 필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무비자 체류 가능 90일 훨씬 지나 비자청과의 일정이 잡힐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청의 상황은 각 자치주 및 도시에 따라 다르므로 평균적인 소요 기간 예상이 어렵다.

※ 2021년 12월 17일 기준으로는 아직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는 없는 상황이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남아프리카 등 기타 국가(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말라위, 레소토,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발 입국자는 독일 시민 또는 독일 거주인만 독일 입국이 허용된다.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인 전원 대상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및 14일간의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경비로 USD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출국할 수 있으나, 독일로의 반입의 경우 또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EUR 10,000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10,000유로 미만을 반출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위반 시 독일 세관법 제31a조에 의해 1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국 시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에 제한이 있다.

○ 주류: 우선 주류 소유자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알코올농도 22% 이상인 경우는 1리터, 또는 22% 이하인 경우는 2리터가 통관 기준이다. 일반 와인인 4리터, 맥주는 16리터까지 허용된다.

○ 담배: 소유자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담배(cigarette)는 200개비, 시가(cigar)는 50개비, 시가릴로(cigarillos)는 100개비, 기타 담배류는 250g까지 면세된다.

○ 여행 중 사용할 물품도 보석, 전자제품 등 고가 물품의 경우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은 총액 430유로(500달러) 이하(육로 여행객은 300유로 이하)만 면세대상이고, 소유자가 만 15세 미만의 경우 175유로 이하만 인정된다.

○ 여행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적당량 의약품(권장 복용량을 고려하여 의약품 당 최대 3개월 치) 및 마약류(예 : 모르핀)를 포함하는 의약품일 경우, 의사의 영문 처방전 및 소견서 지참했을 시 허용된다. 일부 식품(감자, 육류, 우유, 유제품, 계란 등)은 반입불허 품목이다. (고기류, 우유의 경우 송장첨부 필요하며, 꿀은 최대 2kg, 개인 소비에 한하여 생선 및 수산물은 총합 20kg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무게의 생선 1마리 반입 가능)

불법 마약류, 허가가 필요한 무기류 및 탄약, 폭죽 등, 필요한 분량 이상의 식품, 약품, 음란물,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도서 출판물, 불법 복제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경우에도 같다. (애완동물의 경우 개체인식시스템을 요구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및 수의검역문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국가 간 이동 시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 면세한도 초과인 경우 3유로 미만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정해진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 이후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선호) 직접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 완료 시까지 반출은 제한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독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49 (0)30 260 650
주소	Stuelerstrasse 8-10, 10787 Berlin, Germany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de-ko/index.do
비고	이메일: koremb-ge@mofa.go.kr, cons-ge@mofa.go.kr

○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전화번호	+49 (0) 69 956752 0
주소	Lyoner Strasse 34, 60528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de-frankfurt-ko/index.do
비고	이메일: gk-frankfurt@mofa.go.kr

○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본분관

전화번호	+49 (0)228 94379 0
주소	Godesberger Allee 142-148, 3. OG, 53175 Bonn, Germany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de-bonn-ko/index.do
비고	이메일: admin-bn@mofa.go.kr

○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전화번호	+49 (0)40 6506 776 00
주소	Kaiser-Wilhelm-Strasse 9, 3. OG, 20355 Hamburg, Germany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de-hamburg-ko/index.do
비고	이메일: gkhamburg@mofa.go.kr

○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 69 23 32 26
------	---------------------

주소	Baseler Strasse 35 - 37, 5. OG, 60329 Frankfurt am Main, Germanyse 51-53,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http://german.visitkorea.or.kr/ger/index.kto
비고	이메일: kto@euko.de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 69 743487 0
주소	Friedrich-Ebert-Anlage 49, Messeturm 29. OG,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비고	이메일: bokffm@bok.or.kr

○ KDB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 69 920 713 00
주소	Bockenheimer Landstrasse 51-53,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비고	이메일: frankfurt@kdb.co.kr

○ 금융감독원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 69 2724-5898
주소	Feuerbachstrasse 31,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비고	이메일: frankfurt@fss.or.kr

○ 재독한인 총연합회 프랑크푸르트

전화번호	+49 6173 9668919
주소	Hauptstrasse 336, 65760 Eschborn, Germany
홈페이지	http://homepy.korean.net/~germany/www/
비고	이메일: yoo@onbiz.eu

○ 한국국제교류재단 베를린 사무소

전화번호	+49 (0) 30 2606 5458
주소	Stuelerstrasse 8-10, 10787 Berli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kf.or.kr/?menu=3315

비고	이메일: kfeurope@kf.or.kr
----	------------------------

○ 글로벌혁신센터(KIC) 유럽 사무소

전화번호	+49 (0) 30 3551 2840
주소	Charlottenstrasse 18, 10117 Berlin, Germany
홈페이지	https://kiceurope.eu/
비고	이메일: info@kiceurope.eu

<자료원 : 자료원 :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한국은행 홈페이지, 산업은행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재독한인 총연합회 홈페이지, 코트라 홈페이지,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글로벌혁신센터(KIC) 유럽 사무소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독일 연방 국회

전화번호	+49 (0) 30 227 0
주소	Platz der Republik 1, 11011 Berli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bundestag.de
비고	이메일: mail@bundestag.de

○ 독일 연방 정부

전화번호	+49 (0) 30 18 272 0
주소	Dorotheenstrasse 84, 10117 Berli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bundesregierung.de
비고	이메일: internetpost@bundesregierung.de

○ 헤센 방송국(hr, Hessen Rundfunk)

전화번호	+49 (0) 69 15 51
주소	Bertramstrasse 8, 60320 Frankfurt, Germany
홈페이지	http://www.hr-fernsehen.de
비고	TV 방송사/이메일 : hzs@hr.de

○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FAZ)

전화번호	+49 (0) 69 7591 0
주소	Hellerhofstrasse 2-4, 60327 Frankfurt, Germany
홈페이지	http://www.faz.net
비고	신문사/ 이메일 : Info@faz.net

○ 유럽중앙은행(ECB)

전화번호	+49 (0) 69 1344 0
주소	Sonnemannstrasse 20, 60314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https://www.ecb.europa.eu/home/html/index.en.html
비고	유럽 중앙은행으로 유로존 통화정책 및 유로화 발행을 담당 /이메일: info@ecb.europa.eu

○ 독일 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전화번호	+49 (0) 69 9566 0
주소	Wilhelm-Epstein-Strasse 14, 60431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bundesbank.de
비고	독일 중앙은행으로 독일 대부분 경제 및 금융 통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이메일: info@bundesbank.de

○ 독일상공회의소(IHK)

전화번호	+49 (0) 30 20308 0
주소	Breite Strasse 29, 10178 Berli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dihk.de
비고	이메일: info@dihk.de

○ 쥐드도이체 짜이퉁(Süddeutsche Zeitung)

전화번호	+49 (0)89 2183 0
주소	Hultschiner Strasse 8, 81677 München, Germany
홈페이지	https://www.sueddeutsche.de
비고	신문사/ 이메일: redaktion@sueddeutsche.de

○ 슈피겔(Spiegel)

전화번호	+49 (0)40 3007 0
주소	Ericusspitze 1, 20457 Hamburg, Germany
홈페이지	http://www.spiegelgruppe.de/
비고	신문사/ 이메일: spiegel@spiegel.de

<자료원 : 각 정부 및 언론기관 홈페이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89Euro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06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6.920
3	식품	김치찌개	1인분	16.92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21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	4.50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1.5L	0.21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1.5L	1.680
8	의료	아스피린	20정	8.9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3.1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3.1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3.95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1회	39.470
13	서비스	휘발유 1L	1L	1.82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39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3D)	일반	14.100
16	여가	담배 (말보로레드)	1갑	9.020
17	여가	소주 (한식당)	350ml	18.040
18	임금	최저임금	1시간	10.83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9800.000
20	금리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	0.000

<자료원 :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유로(Euro)로 통화기호는 €, 약칭은 EUR이다. 1 유로는 100센트(Cent)이며 주화로는 1, 2, 5, 10, 50 센트(Cent) 및 1, 2유로가 있다. 지폐로는 5, 10, 20, 50, 100, 200, 500유로 지폐가 사용되고 있다. 200유로 및 500유로 지폐는 대부분 상점에서 잘 받지 않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2019년 4월부터 500유로 지폐가 테러지원, 마약거래 및 자금세탁에 자주 악용이 된다는 이유로 신규 500유로 지폐를 발행하지 않는다. 기존 500유로 지폐는 사용 가능하다. 독일은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를 공용 화폐로 전면 도입 및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 마르크화는 2002년 2월 28일까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

환전방법

독일은 미국 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며 한화와의 환전은 어렵다. 환전 수수료도 비싼 편이라 입국 전 유로화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 은행 또는 공항에서 원화를 환전해 오는 것이 유리하며, 달러화는 공항, 기차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Wechselstube)에서 수시 가능하다. 신용카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수수료 면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2021년 9월 17일 기준 1유로당 원화 평균 환율은 약 1,385.10원이고, 1유로당 달러 환율은 약 1.17달러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 통화로 유로화를 바꿀 경우에도 독일보다는 해당국에서 환전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 이용

독일의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이나 점점 더 많아지는 편으로, 인터넷 결제의 경우에는 많이 이용된다. 고급 호텔, 고급 식당, 쇼핑센터나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상점, 슈퍼마켓, 시장, 일반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특히 도시 지역을 떠나면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독일인들은 대부분 현금이나 체크카드(EC-Card) 사용을 선호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면, 환전한 현지화가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율 면에서 유리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독일과 같이 인구의 분포가 고르게 퍼져 있어 어느 한 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지 않고, 교통정체 또한 그다지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할 때가 많다. 독일에는 전차(Straßenbahn/Tram), 지하철(S-Bahn/U-Bahn), 기차, 버스, 택시 등이 주요 교통수단이며, 간혹 부퍼탈(Wuppertal)처럼 모노레일(Schwebebahn) 기차를 활용하거나 함부르크처럼 배(Fahre)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대중교통은 모두 정거장(Haltestelle)에 시간이 명시돼 있고, 대도시의 경우 디지털 안내기로 잔여대기시간이 표시된다. 지하철, 버스 주요 노선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많게는 5분에 한 대씩, 적게는 10분에 한 대씩 운행하고, 평상시에는 10분에 한 대 정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30분~60분 간격으로 1대를 운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승차권은 한 장으로 목적지까지 몇 번이든 갈아탈 수 있으며, 이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연결해 이용할 수 있다(예: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기).

1) 자가운전

고속도로는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가 없고, 원칙적으로 속도 제한이 없으나, 공사 구간(60~100km/h), 커브구간이나 시내 부근(100~130km/h)의 경우 속도제한이 있다. 추월할 경우 반드시 좌측으로 추월해야 하며, 1차선을 달릴 경우 뒤 차가 빠른 속도로 접근할

경우 2차선으로 피해야 한다. 시내 최고 속도는 통상 50km/h이며, 골목길의 경우는 30km/h이다. 국도에서는 100km/h가 최고 속도인데, 마을이나 도시 안내판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최고속도가 50km/h로 제한된다. 프랑크푸르트 시는 중심지에서는 2021년부터 최고 속도를 40km/h로 제한하는 등 일부 도시는 속도 제한 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 교차로 등에서는 별다른 표지판이 없으면 우측에서 오는 차가 우선권을 가진다(국내처럼 직선 차량 우선이 아님). 대부분 독일 대도시의 경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나 구간별 정비공사가 자주 있는 편이고, 특히 차선을 좁힐 경우 도심진입구간에서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

2) 지하철

독일의 전차는 지상철과 지하철이 있다. 지하철은 도시의 중심부를 지나는 U-Bahn과, 도시의 외곽지역까지(경우에 따라 다른 도시까지) 다니는 S-Bahn이 있다. 독일 지하철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 버튼을 터치하거나 손잡이를 옆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아울러 티켓은 자동판매기에서만 판매하고, 최근에는 각 도시 교통공사가 만든 앱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다. 정기권은 역 앞에 있는 가판대에서 살 수 있다. 독일 지하철은 대부분 표 검사를 하지 않는데, 검표원이 불시로 지하철에 들어와서 표를 보자고 한다. 표를 보여줄 수 없을 경우 약 60유로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상에 다니는 전차를 슈트라센반(Strassenbahn) 또는 트램(Tram)이라고 한다. 가격은 지하철과 같다. 지하철과 지상철 모두 한 정거장에서도 여러 노선의 지하철이 정차하기도 하기에 버스처럼 번호를 확인하고 승차를 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상세 요금과 이용은 버스와 동일하게 www.rmv.de/c/de/start/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베를린: <https://www.vbb.de/> 함부르크: <https://www.hvv.de/de/>, 뮌헨: <https://www.mvv-muenchen.de/>)

정기권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통상적으로 쓰이는 정기권은 한 달 정기권(Monatskarte)이며, 프랑크푸르트 한 달 정기권의 경우 2021년 9월 기준 가격이 약 93.10유로다. 1일권(Tageskarte)의 경우, 1일 24시간 내 여러 번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교통수단의 2~3회 정도의 가격으로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경우 단거리(3정거장 이내) 5.35유로, 그 외는 9.95유로이다. 학생, 견습생(Azubi), 65세 이상 노인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페라나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티켓에는 행사장과 집의 왕복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중결제야 안 되게 주의를 요한다.

3) 기차

독일 각 도시는 독일 철도청(Deutsche Bahn AG)에서 운영하는 기차를 통해 연결돼 있으며, 철도 요금은 우리나라보다 비싼 편이다. 좌석 예약 가격은 편도 2등석은 4유로, 1등석은 5.30유로이다. 또한, 기차 안에서의 기차표 구매도 가능하다. 기차표는 몇일~몇주 미리 구매할 경우 독일 철도청 인터넷 사이트(www.bahn.de)구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 정규 가격이 100유로가 넘는 노선을 19.90유로에 다닐 수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단, 구입한 날짜에 모든 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정규 티켓과 달리 할인 티켓은 지정된 기차를 사용해야 하며, 환급 시 일부 요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독일의 고속 열차는 이체에(ICE)라 불리는데 독일 및 인접 국가를 기차로 여행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더욱 신속한 여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일 출퇴근 시간에 운행되는 이체 스프린터(ICE Sprinter)도 좋다.

독일의 경우 기차 연착이 잦은 이유로 직행인 경우 예상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거나, 환승할 경우 갈아타야 하는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은 약속 시각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는 열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독일 정부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1.1.1부로 장거리 열차의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인하했다.

4) 자동차 렌트 등

자동차도 1일 기준 약 50~120유로(자동기어 기준)로 소형과 준중형급 차량 임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한국 면허증, 신용카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렌터카를 임차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회사로는 헤르츠(Hertz), 아비스(Avis), 식스트(Sixt), 유로카(Europcar) 등이며, www.billiger-mietwagen.de에서 모든 렌터카 회사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그 외 최대 규모 카셰어링 플랫폼은 Car2go(www.car2go.com), 최대 규모 카풀 플랫폼은 블라블라카(www.blablacar.de) 이다.

버스

시내버스는 쾌적함과 안전함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버스가 벤츠(Benz)의 고급차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시간에 발착함은 물론이고 버스 운전사도 한국보다 매우 안전하게 운전하는 편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두 대의 차량이 연결된 버스를 운행할 때도 있다. 요금은 구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시내버스의 경우 구역에 따라 기본 도심구역이면 요금은 2.75유로이다. 약 세 정거장 미만의 단거리면 1.50유로로 이용할 수 있다.(한 정거장의 거리는 대체로 우리나라 버스 정거장의 1/2~2/3 정도의 거리이다.) 상세한 요금은 www.rmv.de/c/de/start/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교통수단별 요금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적정 교통편을 찾아주는 길 안내 기능도 있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독일 내 고속 버스(Fernbus)의 경우는 플릭스버스(Flixbus), 유로라인(Eurolines) 등이 있고 저렴하게 도시 간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자주 운행하는 편은 아니다. www.busliniensuche.de 또는 관련 앱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독일 버스의 최고 속도는 100km이다.

버스를 임차하는 경우 독일 버스 운전사는 1일 9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며, 1주 2일은 1일 10시간 운전할 수 있다. 아울러 1주일 56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며, 2주일간 90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 버스 운전사는 4시간 반 운전을 할 경우 45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버스 이동이 끝나면 버스 운전사는 하루에 최소한 1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하며, 이 중 버스에 시동을 걸 수 없다. 2주 3번은 휴식시간을 9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모든 시간 규정은 버스 내 전자기기가 기록하며, 법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버리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택시

택시는 도시 변화가, 중앙역, 공항, 주요 호텔, 대학가 등에 택시 대기 구역을 제외하고는 예약방식이나 호출방식으로 운행된다. 최근에는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유사한 My taxi라는 앱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 대부분 호출 후 4~15분 이내로 택시가 온다.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한국과의 차이이다. 호출은 많은 짐이 미리 알려면, 패밀리밴 등 큰 차를 불러줄 것이다.

탑승할 어린이 승객은 유아용 카시트는 승객이 준비해야 하고 12살 미만이거나 신장이 150cm가 안되면 카시트가 없는 경우 택시는 승차를 거부한다. 현재 베를린, 뮌헨,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쾰른 5개 도시에서 우버(Uber)를 사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거리 병산제가 적용되며 기본요금은 도시마다 편차가 있으나 약 3.50유로이다. 이동거리가 15km 미만일 때에는 킬로미터당 2유로, 15km 이상일 때는 킬로미터당 1.75유로가 가산된다.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까지 2021년 9월 기준 약 40유로가 나온다.

음주했을 경우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서는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 2대가 오고 가격은 택시 가격의 2배를 받는다. 대리기사들은 대부분 중동계 외국인이나 '대리' 라는 단어를 알아듣는다.

다. 통신

핸드폰

독일의 주요 이동통신회사는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O2, 보다폰(Vodafone) 등이 있으며,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기 사용료(후불)를 지불하거나 선불 충전카드(USIM)를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선불 충전카드는 2017년 이후 통신사 상점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슈퍼나 기타 상점에서 구입할 경우 영상 채팅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신업체를 통한 장기 가입 신청은 시내 곳곳에 통신회사 지점들이 위치해 있으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원하는 서비스(전화, 인터넷, 케이블TV)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여권(Pass), 거주지등록증(aktuelle Meldebescheinigung), 은행 현금카드(Bankkarte), 이메일 주소(E-Mail Adresse)가 필요하다. 핸드폰 신청 후 반나절쯤 지나면(대략 3시간)에 개통된다.

인터넷(와이파이)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인터넷과 유선전화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개설의 경우 유선전화번호는 필수로

주어진다. 패키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월 20~80유로 정도이다. 인터넷 및 유선 번호 설치에 한국과 달리 통신사에 따라 최소 1주일, 길면 한 달이 소요됨으로 거주지가 정해진 직후 인터넷 신청을 할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계약기간은 2년이며, 도중에 해지할 경우 해약고지기간 3개월 후에 해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독일에서의 체류를 말소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으나 체류 2주 전에만 해지할 수 있다.

독일의 모든 공항과 고속전철(ICE), 대부분 호텔, 식당, 카페 및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다.

라. 관광명소

○ 잘부르크 로마요새(Saalburg Roman Fort)

도시명	Bad Homburg
주소	Am Roemerkastell 1, 61350 Bad Homburg
운영시간	3월~10월: 월~일요일 9~18시 11월~2월: 화~일요일 9~16시
휴무일	11월~2월(월요일 휴관)
명소소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고대 로마의 요새이다. 번잡함을 떠나 고대 로마의 성곽 등이 발굴되어 보존되어 있어 고대유적 공원을 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입장료는 7유로이다. 계절에 따라 요일별, 개방시간이 달라짐에 주의를 요한다.
비고	전화: +49 (0) 61 75 9374 0 홈페이지: www.saalburgmuseum.de *코로나 19 사태로 문을 닫을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 요망,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 해당자만 입장 허용, 의료용 마스크 착용 의무

○ 괴테 생가(Goethe Haus)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rosser Hirschgraben 23-25, 60311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월~금: 10~18시 주말: 10시~17시30분
명소소개	괴테의 유년기, 소년기를 보낸 곳으로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짧은 시간에 큰 울림을 주는 시내명소이다. 입장료는 7유로이고 아이 동반 가족은 10유로이다.
비고	전화: +49 (0) 69 138 800 홈페이지: www.goethehaus-frankfurt.de *코로나 19 사태로 문을 닫을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 요망,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 해당자만 입장 허용, 의료용 마스크 착용 의무

○ 파울 교회 및 구시가지(St. Paul Church)

도시명	Frankfurt am Main
-----	-------------------

주소	Paulsplatz 11, 60311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월~금: 10~17시 주말: 10~17시
명소소개	1848년에 독일의 첫 의회가 소집된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괴테 하우스에서 300m 거리에 있으며 입장은 무료이다. 인근에 100m 범위안에 신성로마제국 대관식이 열리던 13세기 건축물인 카이저돔(Frankfurt Cathedral)과 축구 우승 등 시민행사가 열리는 뢰머광장(Roemer)이 있고 바로 옆 라인 강에는 사랑의 자물쇠가 걸려있는 아이제너 다리(Eiserner Steg)가 있다.
비고	전화: +49 (0) 69 212 34920 *코로나 19 사태로 문을 닫을수 있으니 확인후 방문 요망

○ 슈테델 미술관(Staedelsches Kunstinstitu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Schaumainkai 63, 60596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화~수 및 주말: 10~18시 목~금: 10시~21시
명소소개	아이제너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800m 강가에 위치해 있다. 안반에이크, 모네, 드가, 르누와르, 렘브란트 등 부터 피카소, 샤갈, 몽크에 이르기까지 14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가의 작품들을 소장한 유럽에서 손꼽히는 미술관으로 티슈바인의 괴테 그림으로도 유명하다. 입장료는 주중 14유로 주말 16유로, 가족은 24유로이다.
비고	전화: +49 (0) 69 138 800 홈페이지: www.staedelmuseum.de/de *코로나 19 사태로 문을 닫을수 있으니 확인후 방문 요망,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 해당자만 입장 허용

○ 쟈켄베르크 자연사박물관(Naturmuseum Senckenberg)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Senckenberganlage 25, 60325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9~17시 수: 9~20시 주말: 9~18시
명소소개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박물관에는 30m 크기의 공룡 뼈 화석 및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입장료는 12유로, 가족티켓은 30유로이다.
비고	전화: +49 (0) 69 75 420 홈페이지: http://www.senckenberg.de *코로나 19 사태로 문을 닫을수 있으니 확인후 방문 요망

○ 백조의 성(Schloss Neuschwanstein)

도시명	Füssen
주소	Neuschwansteinstraße 20, 87645 Schwangau

운영시간	9~18시(4월~10월15일), 10~16시(10월 16일~3월)
휴무일	1월 1일, 12월 24~25일, 12월 31일
명소소개	이에른의 왕 루트비히 2세(1845-1886)가 로맨틱 가도 남부 끝인 바이에른 주 뤼센(Füssen)근교의 호헨 슈반가우(Hohenschwangau)에 지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현재 바이에른 주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디즈니랜드 성의 모티브가 된 성으로 유명함.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바이에른의 유명 관광지임.
비고	홈페이지 : http://www.neuschwanstein.de *21년 5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바이에른주 내 모든 관광명소 폐쇄, 개장 확인 후 방문 요망 (관광지가 위치한 지역의 일주일 코로나 감염자 수치에 따라 폐/개장 결정) /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 해당자만 입장 허용

○ 로렐라이 언덕(The Lorelei)

도시명	Goarshausen
주소	Auf der Loreley, 56346 Strasse Goarshausen
운영시간	연중 무휴
명소소개	로렐라이가 속한 지역인 라인 강 중상류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지정되었다. 로렐라이까지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차량 이동으로 1시간 20분 거리이다. 매년 2백만 명이 중간에 위치한 뤼데스하임(Rudesheim)을 방문하여 그 경치를 누린다.
비고	전화: +49(0) 62 21 53 84 72 홈페이지: www.loreley-besucherzentrum.de/home/

○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Elbphilharmonie Hamburg)

도시명	Hamburg
주소	Platz der Deutschen Einheit 1, 20457 Hamburg
운영시간	10시~23시 45분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독일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17년 1월 개장하였으며, 건물 내에는 2,100석의 그랜드 콘서트홀, 호텔, 아파트 그리고 시민의 광장 등을 갖추고 있음. 근처 Landungsbrücken역에서 출발하는 수상버스 탑승 시 필하모니 전경을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https://www.elbphilharmonie.de)에서 공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시간이 상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함부르크 미니어처 박물관 (Miniatur Wunderland)

도시명	Hamburg
주소	Kehrwieder 2-4/Block D, 20457 Hamburg

운영시간	월~목요일: 8시~24시 금요일: 8시~1시 토요일: 7시 30분~1시 일요일: 7시 30분~24시 (특정기간에는 운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요망)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2000년 설립된 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긴 미니어처 철도를 가지고 있으며, 총 9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아기자기한 미니어처 모델로 함부르크, 이탈리아, 미국, 스칸디나비아 및 가상 세계를 시현하고 있다. 낮과 밤을 구별하는 등 실제 생활과 근접하게 구성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명소이다.
비고	홈페이지(http://www.miniatur-wunderland.de/besuch/tickets/)에서 입장권 예약이 가능하며 입장권 가격은 20유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시간이 상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 미카엘 교회(Hauptkirche St. Michaelis)

도시명	Hamburg
주소	Englische Planke 1, 20459 Hamburg
운영시간	교회: 9시~20시 교회 탑 & 지하 납골당: 9시 30분~16시 30분
휴무일	연중무휴(특정 행사일 제외)
명소소개	1750년 첫 완공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수리된 교회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피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타워에 걸린 시계는 독일에서 가장 큰 침탑시계이며, 타워에 올라 함부르크시 및 항구를 조망할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https://www.st-michaelis.de/)에서 운영시간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입장권은 현장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6유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시간이 상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하이델베르크 성(Heidelberg Castle)

도시명	Heidelberg
주소	Schlosshof 1, 69117 Heidelberg
운영시간	월~일요일, 공휴일 : 10~17시
명소소개	독일에서 제일 방문객이 많은 명소 중에 한곳으로 차나 고속철(ICE)로 1시간 거리이다. 거대한 포도주 통은 세상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17세기에 완성된 정원에서 내려다 보는 전경 또한 유명하다. 입장료는 9유로(내부), 성의 정상과 정원은 무료이다. 정상까지는 개인차량으로 이동, 또는 아래 주차장에서부터 모노레일을 왕복 2유로로 이용하여 갈 수 있다.
비고	전화: +49 (0) 62 2153 84 72 홈페이지: www.schloss-heidelberg.de/ *코로나 19 사태로 문을 닫을수 있으니 확인후 방문 요망

○ 바이에른 왕국 궁전(레지덴츠)(Munich Residence)

도시명	München
------------	---------

주소	Residenzstraße 1, 80333 München
운영시간	9~18시 (하절기/4월20일~10월21일), 10~17시 (동절기/10월 21일~3월)
휴무일	1월 1일, 사육제 화요일(2020년 2월 25일), 12월 24~25일, 12월 31일
명소소개	1385년에 뮌헨 외곽에 Neuveste라는 성(城)을 쌓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수 세기에 걸쳐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 1508년부터 1918년까지 바이에른 공작, 선제후, 왕들의 집무실 및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함.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양식으로 장식된 100여개의 방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이에른 왕실의 왕관이 전시되어 있는 보물의 방(Schatzkammer)인데, 이 밖에도 비텔스바흐(Wittelsbach) 가문의 초상화 등 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residenz-muenchen.de *21년 5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바이에른주 내 모든 관광명소 폐쇄, 개장 확인 후 방문 요망 (관광지가 위치한 지역의 일주일 코로나 감염자 수치에 따라 폐/개장 결정)

○ 뮌헨 신시청(Munich New Townhall)

도시명	München
주소	Marienplatz 8, 80331 München
운영시간	10~19시(월~토), 10~17시(일, 휴일)
휴무일	1월 1일, 1월 6일, 사육제 화요일(2020년 2월 25일), 5월 1일, 11월 1일, 12월 25,26일
명소소개	뮌헨 마리엔 광장(Marienplatz)에 위치하며 신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음. 매일 오전 11시, 낮 12시, 오후 5시에 시간을 알리는 글로켄슈필(사람 크기의 인형)이 유명함. 1867~1908년 신시청사 개축 시 43개의 종과 32개의 실물사이즈 인형으로 만들어졌음. 처음에는 1568년에 있었던 바이에른 공작 빌헬름 5세(Hofbruhaus 건립자)와 레나타의 결혼식이 재현되고 이어서 무용수들이 나와 즐겁게 춤을 추는데 이는 1515년부터 1517년까지 유행했던 페스트가 사라짐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의식임.
비고	전화번호 : +49 (0)89 23300 *21년 5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바이에른주 내 모든 관광명소 폐쇄, 개장 확인 후 방문 요망 (관광지가 위치한 지역의 일주일 코로나 감염자 수치에 따라 폐/개장 결정)

○ 독일 과학박물관(Deutsches Museum)

도시명	München
주소	Museumsinsel 1, 80538 München
운영시간	9~17시
휴무일	1월 1일, 사육제 화요일(2020년 2월 25일), 성금요일(2020년 4월 10일), 5월 1일, 6월 26일, 11월 1일, 12월 11일, 12월 24~25일, 12월 31일
명소소개	1903년에 개관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 과학박물관. 독일 및 세계의 과학 기술 발전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음. 지하 1층에는 박물관 소장 전시품 중 최대(42m)인 잠수함(U1, 1906년 진수)이 전시됨
비고	홈페이지 : http://www.deutsches-museum.de *코로나 19 사태로 문을 닫을수 있으니 확인후 방문 요망

○ 마인 타우누스 쇼핑몰(Saalburg Roman Fort)

도시명	Sulzbach
주소	Am Main-Taunus-Zentrum 1, 65843 Sulzbach
운영시간	월~토: 9시 30분~22시
휴무일	일요일 휴관
명소소개	시내에서의 쇼핑몰인 갤러리아(Galeria kaufhof)나 자일(Zeil)과는 다른 북적거리는 쇼핑 거리를 방문하려 할 때 가보면 유용한 곳이다. 중앙역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가족 단위나 연인 단위 방문객들이 많다. 늘어서 있는 쇼핑의 거리와 식당들 사이를 오고 가는 모습도 이채롭다. 3시간까지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kidsclub 오후 1-7시)도 유료(홈페이지참조)로 운영된다.
비고	전화: +49(0) 69 300 90 169 홈페이지: www.main-taunus-zentrum.de *코로나 19 사태로 문을 닫을수 있으니 확인후 방문 요망

<자료원 : www.saalburgmuseum.de, www.goethehaus-frankfurt.de,
https://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828&ffmpar%5B_id_inhalt%5D=1240072,
www.staedelmuseum.de/de, <http://www.senckenberg.de>, <http://www.neuschwanstein.de>, www.loreley-besucherzentrum.de/home/, www.schloss-heidelberg.de/, <https://www.residenz-muenchen.de>,
<https://www.muenchen.de/sehenswuerdigkeiten/orte/120394.html>, <http://www.deutsches-museum.de>, www.main-taunus-zentrum.de>

마. 식당

- 현지식당

○ 린덴브로이 (Lindenbru)

도시명	Berlin
전화번호	+49 (0) 30 2575 1280
주소	Bellevuestrasse 3-5, 10785 Berlin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11시 30분~23시 금/토요일: 11시 30분~24시
휴무일	연중무휴(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소개	베를린 포츠담 광장 근처에 위치한 식당으로 자체 양조장을 보유하고 있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맥주와 독일식을 즐길 수 있다.
비고	https://www.bier-genuss.berlin/lindenbraeu-am-potsdamer-platz/

○ 와인슈투베 임 뢰버(Weinstube im Roeme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91331
주소	Roemerberg 19, Frankfurt am Main
가격	10~30유로
영업시간	금~일: 12~21시 공휴일: 오후 12시부터 일: 11시 30분~21시
소개	뢰머광장에 있는 독일 전통식당으로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비고	http://www.weinstube-roemer.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와인하우스 브뤼켄켈러(Weinhaus Brueckenkelle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980070
주소	Schuetzenstrasse 6, Frankfurt am Main
가격	50~60유로
영업시간	문의 요망
소개	10명~250명의 단체가 식사와 이벤트를 할 수 있게 준비된 곳이다. 방문전 미리 예약과 문의가 필요하다.
비고	http://brueckenkeller.blogspot.com/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모제바흐(Mosebach)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4930396
주소	Sandweg 29, Frankfurt am Main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수요일~일요일 17~21시 (코로나 사태로 2021년 5월 17일 기준, 음식 주문은 take-out 만 가능)
휴무일	월요일~화요일
소개	Zeil에서 400미터 떨어진 식당, 외진곳에 위치하나 주문 배달 서비스를 한다.

비고	https://www.mosebacht-frankfurt.de/ www.lieferheld.de/ 라는 배달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

○ 아들프 바그너(Adolf Wagne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125 65
주소	Schweizer Strasse 71, Frankfurt am Main
가격	10~30유로
영업시간	11시~14시 & 18시~21:30시
소개	전통식당으로 저렴한 식사도 가능하다. 예약없이 기다리며 분위기를 미리 즐기는 것도 좋은 식당이다. 슈테델 미술관에서 12분 거리에 있다.
비고	http://www.apfelwein-wagner.com/ (해외에서 링크가 정상 작동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리스토란트 콜로세오(Ristorante Collosseo)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14386
주소	Moerfelder Landstr. 122, Frankfurt am Main
가격	6~25유로
영업시간	12시~14시 30분, 18시~23시 30분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피자부터 해산물요리까지 즐길 수 있는 이태리식당이다. 프랑크푸르트 남부역(Frankfurt Sued)에서 5분 거리이다.
비고	http://colosseo-frankfurt.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빌라 레온하르디(Villa Leonhardi)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898847
주소	Zepphallee 18,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메뉴 24.5유로, 13~36유로
영업시간	화~토: 12~15시 목: 18시 30분 일: 12~17시
소개	시내공원에 위치해서 외곽의 식당같은 분위기에 적당한 가격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이태리식당이다.
비고	http://www.villa-leonhardi.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카페 하움트바헤(Cafe Hauptwach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21998627
주소	An der Hauptwache 15, 60313 Frankfurt am Main, Germany
가격	15~30유로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10~23시 토요일 11~20시
소개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인 Hauptwache에 소재한 식당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전통 식당
비고	https://www.cafe-hauptwache.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파울라너 암 돔(Paulaner am Dom)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20976890
주소	Domplatz 6, 60311 Frankfurt am Main, Germany
가격	15~25유로
영업시간	11~24시
소개	전통 독일 음식인 학세(Haxe), 슈니첼(Schnitzel) 등을 바이에른 주 스타일로 조리를 했으며, 프랑크푸르트 유명 관광지인 뢰머광경 인근지에 소재한다.
비고	https://www.paulaner-am-dom.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블록 하우스(Block Hous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	-------------------

전화번호	+49 (0)69-78079474
주소	Europa-Allee 12-22, 60327 Frankfurt am Main
가격	16~30유로
영업시간	월~일요일: 12시~21시
소개	스테이크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https://www.block-house.de/restaurants/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요 알브레히트 (Brauhaus Joh. Albrecht)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40-367740
주소	Adolphsbrücke 7, 20457 Hamburg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12시~21시 30분
휴무일	연중무휴(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소개	독일 정통 레스토랑으로 맛있는 요리, 수제 맥주와 정감가는 분위기의 3박자가 고루 갖춰져 현지 단골고객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음식점이다. 함부르크 랜드마크인 시청, 시내 최대 변화가, 관광명소인 알스터(Alster) 호수와 모두 인접해 출장 기간 중 잠시나마 함부르크를 둘러보고 싶은 출장자에게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비고	https://www.brauhaus-joh-albrecht.de/hamburg/

○ 라 세피아(La Sepia)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4322 484
주소	Neuer Pferdemarkt 16, 20359 Hamburg
가격	15~50유로(단품부터 세트메뉴까지 가격대 다양)
영업시간	월~목요일: 12시~23시 금~일요일: 12시~23시 30분 아침식사: 10시~12시(매일)
휴무일	연중무휴(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소개	함부르크 대표 변화가 Sternschanze에 위치한 포르투갈 해산물 요리 전문점
비고	https://la-sepia.de/

○ 라츠크엘러(Ratskeller)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21 99 89 0
주소	Marienplatz 8, 80331 München
가격	10~45유로
영업시간	11~24시(월~토), 11~23시(일)
소개	뮌헨 신시청사 지하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격은 저렴하지 않지만 정통 독일 요리를 맛볼 수 있음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ratskeller.com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호프브로이하우스(Hofbraeuhaus)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 89 290 136 - 10
주소	Platzl 9, 80331 München
가격	5~17유로
영업시간	9~24시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1589년 개관한 뮌헨의 대표적인 맥주 홀. 연중 관광객으로 붐벼 빈 자리를 찾기 어려움. 히틀러가 나치당 정강 정책을 발표했던 곳임
비고	홈페이지 : http://www.hofbraeuhaus.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뮌헨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식당 홈페이지>

- 한국식당

○ 바첸하우스(Batzenhaus)

도시명	Bad Soden (Taunus)
전화번호	+49 (0) 6196 23430
주소	Knoenigsteiner Strasse 157, Bad Soden (Taunus)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월~일: 18시~22시
소개	인근 타우누스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25분, 대중교통 40분이상 걸리는 거리이며 단체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호텔겸 한식당이고 주말점심은 부페가 제공된다.

비고	http://www.batzenhaus.com/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

◦ 스시마루(Sushimaru)

도시명	Eschborn
전화번호	+49 (0) 6196 6546045
주소	Hauptstrasse 82, Eschborn
가격	5~20유로
영업시간	월~토: 11시 30분~14시 30분, 17시 30분~22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인근 에쉬보른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16분, 대중교통(S-Bahn 4) 16분의 거리이고 일식을 겸한 한국식 식당이다.
비고	https://www.sushimaru.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단골(Dangol)

도시명	Frankfurt a.M
전화번호	+49 (0)157 3334 7233
주소	DreiknigsstraBe 4, 60594 Frankfurt am Main
가격	저녁 20 USD
영업시간	월~토: 17시30분~23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프랑크푸르트 작센하우젠 지역에 2020년 9월에 새로 생긴 한식당
비고	https://www.facebook.com/dangolffm-110904430733318/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서울포차(Seoul Pocha)

도시명	Frankfurt a.M
전화번호	+49 (0)69 9498 5508
주소	Hausener Obergasse 49, 60488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 11 USD 저녁 20 USD
영업시간	화~목: 12시~14시, 17시~20시 금: 12시~14시, 17시~22시 토~일: 17시~22시
휴무일	월요일
소개	포차 스타일 한식당
비고	https://www.facebook.com/Seoul.Pocha/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미소(Misho)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77 89647
주소	Adalbert Strasse 13, 60487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월~토: 11시 30분~15시, 17시 30분~22시
소개	메세인근 한식당으로 전시장(Messe)에서 도보 15분 거리(1km), 중앙역에서 차량, 대중교통 14분 거리(2km)에 위치하였고 특히 점심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한식당이다.
비고	www.facebook.com/pg/FrankfurtMisho/about/?ref=page_internal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서울푸드(Seoulfood)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0168645
주소	Weserstrasse 17, 60320 Frankfurt am Main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월~일: 12시~20시
소개	중앙역에서 도보 6분 거리(400m)에 위치한 한국식 분식집 메뉴가 있는 저렴한 한식당이며 점심식사에 특화되어 있다.
비고	https://www.seoulfood.eu/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미스터 리(Mr. Le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51198
주소	Gutleutstrasse 153,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서류 15~30유로
영업시간	월~금, 일요일: 11시 30분~14시, 17시 30분~21시
휴무일	토요일 휴무
소개	중앙역에서 도보 9분 거리(750m)에 위치한 전통 한식의 맛을 추구한다.
비고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코코(Coco)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2034786
주소	Grosse Eschenheimer Strasse 41, Frankfurt am Main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월~금: 오후 12~15시, 18~22시 토: 12~22시
소개	중앙역에서 도보로 16분(1,5km) 떨어져 있으나 쿠테하우스에서 8분 거리(650m)로 구시가지관광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가격도 저렴하다.
비고	http://www.coco-restaurant.com/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강남(Restaurant KangNam)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6611 3939
주소	Lyoner Strasse 44-48, 60528 Frankfurt am Main
가격	20유로 선
영업시간	월~금: 오전 11시 30분~14시 30분, 17시 30분~22시 토: 17시 30분~22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인근(400m)에 위치한 한식부페 음식점으로, 중앙역에서 차량, 대중교통 15분 거리(5km)로 단체식사가 가능하다.
비고	홈페이지 운영 안 함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산마루(Sanmaru)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5112750
주소	Ginnheimer Landstrasse 183, 60431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화~일: 12~15시, 18~22시30분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 16분, 대중교통(Tram 16) 22분의 위치에 떨어진 산마루 호텔안에 위치한 한식당이다.
비고	http://www.frankfurthotels24.com/ko/property/sanmaru.html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소나무(Sonamu)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0437250
주소	Berger Strasse 184, 60385 Frankfurt am Main
가격	10~30유로
영업시간	화~일: 12~23시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으로 19분,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이고 주차장은 외부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비고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그레이스(Grac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4788 3230
주소	Hortensienring 13, 65929 Frankfurt am Main

가격	10~30유로
영업시간	월요일 11시 30분~14시 30분, 18시~21시 화~토요일 11시 30분~14시 30분, 18시~23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코로나 사태로 2021년 5월 기준 온라인 주문만 가능
비고	http://restaurantgrace.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한국(Hankook)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500 7185
주소	Hainer Weg 100, 60599 Frankfurt am Main
가격	20~30유로
영업시간	월~토요일 12시~14시, 18시~21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한식 고기 부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비고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강나루(Gang Na Ru)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629090
주소	Mainzerlandstr.791, 65934 Frankfurt am Main
가격	10~30유로
영업시간	일~금요일: 11시30분~14시 30분, 17시 30분~22시30분
휴무일	토요일 휴무
소개	메뉴와 밑반찬이 다양, 점심과 저녁 가격 동일, 중앙역에서 차량 20분 정도, 주차 가능
비고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한미(Hanmi)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7801 0777
주소	Kleine Seilerstr. 1, 20359 Hamburg
가격	점심식사 : 7~10유로 저녁식사 : 15~20유로
영업시간	화~일요일: 11시 30분~15시/17시 30분~23시(15~17시는 재료준비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휴무일	월요일
소개	함부르크 지역 매거진 `Szene Hamburg`가 선정한 함부르크 지역 최고의 아시아 음식점('19년 4월)으로, 점심메뉴와 저녁메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점심메뉴의 경우 10유로 이하로 식사 가능하다.
비고	http://www.hanmi.de/

◦ 만남(Mannam)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4309 7171
주소	Feldstr. 60, 20357 Hamburg
가격	점심식사: 7~10유로 저녁식사: 15~20유로
영업시간	화~목: 12~15시/18시~23시(15시~17시 30분 재료준비 시간) 금: 12~15시/18~24시 토: 18~24시 일: 18~23시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휴무일	월요일
소개	함부르크전시장 인근인 지하철 U2 Messehalle 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전시회 출장자들이 식사하기에 용이하다. 짜장면, 짬뽕 등 중식도 판매하고 있다.
비고	https://www.man-nam.de/speisekarte/

◦ 김치가이스(Kimchi Guys)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3496 0088
주소	Große Bleichen 35, 20354 Hamburg
가격	7~15유로
영업시간	월~금요일 12시~20시 토요일: 14시~20시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휴무일	일요일
소개	함부르크 시내 중심인 Jungfernstieg 근처에 위치한 비빔밥 및 김밥 전문점
비고	https://kimchiguys.de/ ,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레스토랑 산(San Restaurant)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40 3085 8885
주소	Koppel 76 Hamburg
가격	6~10유로
영업시간	화~토요일: 12시~15시/17시 30분~21시 30분(15시~17시 재료 준비 시간) 일요일: 16시~21시 30분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휴무일	월요일
소개	함부르크 중앙역 10분 거리에 위치한 비빔밥 및 불고기 전문점
비고	https://www.facebook.com/sanrestauranthh/

○ 서울 1988(Seoul 1988)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2985 5953
주소	Müggenkampstr. 86 20257 Hamburg
가격	8~20유로
영업시간	화~목요일: 17시~21시 30분 금~토요일: 12시~21시 30분 일요일: 17시~21시 30분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휴무일	월요일
소개	떡볶이 등 분식류부터 비빔밥, 중식(짜장면 및 짬뽕), 불고기, 치킨 등 다양한 한식 취급
비고	https://1988seoul.com/

○ 도모(Domo)

도시명	Kronberg im Tanus
전화번호	+49 (0) 61 7378898
주소	Westerbachstrasse 23, Kronberg im Tanus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월~토요일: 오전 11시~15시, 18~23시 일요일: 18~23시
소개	인근 타우누스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21분, 대중교통 25분 거리이고 주차장은 무료이다. 점심 식사가 저렴하고 중국식을 겸한 한식당이다.
비고	홈페이지 운영 안함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영업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 (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아리수(ARiSu)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2424 3594
주소	Triftstraße 1, 80538 München
가격	점심 7.5~9유로, 저녁 12.8~13.8유로
영업시간	점심 (월~금) 11시 30분~14시 30분 저녁 (월~토) 17시 30분~21시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소개	뮌헨 중심가 마리엔광장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
비고	https://www.a-ri-su.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영업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서울식당(Restaurant Seoul)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348 104
주소	Leopoldstrasse 120, 80802 München
가격	식사류 15~29유로
영업시간	저녁(화~일) 18시~22시
휴무일	월요일
소개	뮌헨에서 가장 오래된 한식당
비고	https://www.seoulrestaurantmunich.com/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영업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유유미(YUYUMI)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330 39 228
주소	Lothringer Straße 7, 81667 München
가격	식사류 12~22 유로
영업시간	점심 12시 ~14시 30분 저녁 17시 30분~20시 30분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뮌헨 시내 중심에 위치한 캐주얼한 스타일의 한식 전문점
비고	https://www.yuyumi.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하이데크룩(Heidekrug)

도시명	Oberursel (Taunus)
전화번호	+49 (0) 6171 971 600
주소	Koenigsteiner Strasse 30, 61440 Oberursel (Taunus)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월~일: 11시 30분~14시 30분, 17시 30분~22시 30분
소개	인근 타우누스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26분, 대중교통 35분 이상 걸리는 거리이며 점심식사가 저렴하고 저녁식사에는 숯불구이나 전골식사가 제공되고 주차장이 넓다.
비고	http://www.heidekrug.com/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파더스(Fathers)

도시명	Schwalbach
전화번호	+49 (0) 6196 9216826
주소	Feldstrasse 10, 65824 Schwalbach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월~일: 12~14시, 18~21시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 20분, 대중교통 28분 거리
비고	https://www.facebook.com/pg/fathersfrankfurt/posts/?ref=page_internal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고궁(Gogung)

도시명	Steinbach/Ts.
전화번호	+49 (0) 6171 70370/79451
주소	Bahnstrasse 28, Steinbach/Ts.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문의요망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 20분, 대중교통 27분 거리
비고	http://www.hotel-steinbach.de/de/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이도(IDO)

도시명	Sulzbach T/s
전화번호	+49 (0)6196 7672250
주소	Cretzmarstr.6a ,65843 Sulzbach (Taunus)
가격	점심 11 USD 저녁 20 USD
영업시간	월~토: 12시~14시30분, 17시30분~22시30분
휴무일	일요일
소개	호텔 가야에서 오픈한 레스토랑, 한식과 일식 따로 구성, 중앙역에서 차량 25분 정도, 주차 가능
비고	https://www.facebook.com/idosulzbach/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3-G 규칙(접종 완료, 코로나 테스트 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실내 입장 허용

◦ 레스토랑 김치(Restaurant Kimchi)

도시명	함부르크
전화번호	+49 (0) 40 493 871
주소	Heussweg 10, 20257 Hamburg
가격	8~20유로
영업시간	월 : 17시~23시 화~금 : 12시~15시, 17~23시(점심시간 후 중간 휴식) 토~일 : 12~23시 토: 18~24시 일: 18~23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부대찌개, 파전 등 다양한 한식 메뉴 구비
비고	https://www.kimchi-hamburg.de/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함부르크무역관, 뮌헨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식당 홈페이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매리어트 호텔(Marriott Hote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amburger Allee 2-10, 6048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fradt-frankfurt-marriott-hotel/?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319유로, 2인 1박 334유로, 조식 별도 30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4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5성급 호텔

○ 마리팀 호텔(Maritim Hotel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Theodor-Heuss-Allee 3, 60486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578 0
홈페이지	https://www.maritim.de/de/startseit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19유로, 2인 1박 243유로, 조식 별도 25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4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5성급 호텔

○ 뫼벤흐픽 호텔(Moevenpick Hotel Frankfurt City)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Den Haager Strasse 5,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88 0750
홈페이지	https://www.movenpick.com/en/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37유로, 2인 1박 264유로, 조식 별도 25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7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4성급 호텔

○ 카프리 바이 프레이저 프랑크푸르트(Capri by Fraser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Europa-Allee 42,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1338877888
홈페이지	https://frankfurt.capribyfraser.com/en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300유로, 2인 1박 300유로, 조식 별도 18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13분, 대중교통 20분 거리이다.
비고	4성급 호텔

○ 마이니거 호텔(MEININGER Hotel Frankfurt/Main Mess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Europaallee 64,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40159052
홈페이지	https://www.meininger-hotels.com/de/hotels/frankfurt-main/hotel-frankfurt-mess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34유로, 2인 1박 244유로, 조식 별도 9,90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9분, 대중교통 20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플레밍스 익스프레스 호텔(Flemings Express Hotel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Poststrasse 8, 6032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73910
홈페이지	https://www.flemings-hotels.com/frankfurt-express-hotel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152유로, 2인 1박 186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3분, 대중교통 11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호텔 모노폴(Hotel Monopo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nnheimer Strasse. 11, 6032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27370
홈페이지	https://hotelmonopol-frankfurt.com/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70유로, 2인 1박 270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양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6분, 대중교통 12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엑셀시어(Excelsio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nnheimer Strasse. 7, 6032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56080
홈페이지	https://hotelexcelsior-frankfurt.d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184유로, 2인1박 213유로, 조식 별도 15유로
소개	중양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6분, 대중교통 12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비엔비 호텔(B and B Hotel Frankfurt-Hbf)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inzer Landstrasse 80-84,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140190
홈페이지	https://www.hotelbb.d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111유로, 2인 1박 111유로, 조식 별도 8.50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전시장(Messe)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2성급 호텔

○ 호텔 아테치(Hotel Attach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oelnerStrasse 10,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59001 0
홈페이지	http://www.hotelattache.d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75유로, 2인 1박 325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3분 거리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그랜드 엘리제 호텔(Grand Elysée Hamburg)

도시명	Hamburg
주소	Rothenbaumchaussee 10,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414120
홈페이지	https://www.grand-elysee.com/
숙박료	200~270 EUR
소개	테라스, 무료 WiFi, 실내수영장, 스파, 약 400m 거리에 함부르크의 CCH 의회 센터(CCH Congress Center Hamburg)와 담토어 기차역(Dammtor Train Station) 있음
비고	5성급 호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슈타이겐 베르거 호텔 함부르크(Steigenberger Hotel Hamburg)

도시명	Hamburg
주소	Heiligengeistbrücke 4
전화번호	+49 (0) 40 368 060
홈페이지	https://www.steigenberger.com/en
숙박료	150~250 EUR
소개	무료WiFi, 스파, 사우나, 피트니스, 함부르크 시청과 300m 거리, 무역관과 200m 거리로 함부르크 항구로 부터 걸어서 10분 거리
비고	4성급 호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노보텔 스위트 함부르크 시티 (Novotel Suites Hamburg City)

도시명	Hamburg
주소	Lübeckertordamm 2, 20095 Hamburg

전화번호	+49 (0) 40-271-40-0
홈페이지	https://all.accor.com/hotel/3756/index.ko.shtml?utm_campaign=seo+maps&utm_medium=seo+maps&utm_source=google+Maps
숙박료	80~100 EUR
소개	테라스, 무료 WiFi, 목요일 저녁 10 분 무료 마사지, 4 박 이상 숙박 시 스마트 자동차 4 시간 무료 대여 서비스, 중앙역 및 시내까지 도보 10 분 거리
비고	3성급 호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호텔 이비스 함부르크 시티 (Hotel Ibis Hamburg City)

도시명	Hamburg
주소	Amsinckstraße 3, 20097 Hamburg
전화번호	+49 (0) 40-3099860
홈페이지	https://all.accor.com/hotel/8740/index.ko.shtml?utm_campaign=seo+maps&utm_medium=seo+maps&utm_source=google+Maps
숙박료	80~120 EUR
소개	스낵바 및 레스토랑 보유, 함부르크 중앙역에서 500m 거리 위치, 쇼핑 중심지인 뮌케버그(Mnckeberg) 거리로부터 700m 위치
비고	3성급 호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햄튼 바이 힐튼 함부르크 시티 센터 (Hampton by Hilton Hamburg City Centre)

도시명	Hamburg
주소	Nordkanalstraße 18, 20097 Hamburg
전화번호	+49 (0) 40-3023720
홈페이지	https://www.hiltonhotels.de/deutschland/hampton-by-hilton-hamburg-city-centre/
숙박료	90~120 EUR
소개	함부르크 중앙역 및 버스터미널 근처에 위치한 호텔
비고	3성급 호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호텔 더 웨스틴 그랜드 뮌헨(The Westin Grand Munich)

도시명	München
-----	---------

주소	Arabellastraße 6, 81925 München
전화번호	+49 (0) 89 9264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mucwi-the-westin-grand-munich/?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1인 1박 430유로, 2인 1박 450유로, 조식 포함
소개	뮌헨 도심에서 10분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이 주택가라 조용하고 한적함
비고	5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 될 수 있음

○ 호텔 홀리데이 인 뮌헨 시티 센터(Holiday Inn Munich - City Centre)

도시명	München
주소	Hochstraße 3, 81669 München
전화번호	+49 (0) 89 48030
홈페이지	https://www.ihg.com/holidayinn/hotels/de/de/munich/muchb/hoteldetail?qDest=Munich,%20Germany&qCiMy=72019&qCiD=2&qCoMy=72019&qCoD=3&qAdlt=1&qChld=0&qRms=1&qlta=99600701&qAkamaiCC=DE&qSrt=sBR&qBrs=re.ic.in.vn.cp.vx.hi.ex.rs.cv.sb.cw.ma.ul.ki.va&srb_u=1&setPMCookies=true&glat=SEAR&qRad=30&qRdU=mi
숙박료	1인 1박 285유로, 2인 1박 285유로, 조식 포함
소개	뮌헨 시내까지 도보로 20분,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비고	4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 될 수 있음

○ 호텔 포시즌 켐핀스키 뮌헨(HOTEL VIER JAHRESZEITEN KEMPINSKI MUNICH)

도시명	München
주소	Maximilianstrasse 7, 80539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21250
홈페이지	https://www.kempinski.com/en/munich/hotel-vier-jahreszeiten/?utm_medium=organic&utm_source=google&utm_campaign=KIMUC1&utm_content=gmb&source=S308962248
숙박료	슈페리어룸 1인 1박 350 ~ 450 유로, 조식 포함
소개	뮌헨 시내 명품거리인 막시밀리안스트리트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비고	5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
----	---

○ 힐튼 뮌헨 파크(Hilton Munich Park)

도시명	München
주소	Am Tucherpark 7, 80538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38450
홈페이지	https://www.hilton.com/en/hotels/muchitw-hilton-munich-park/?WT.mc_id=zELWAKN0EMEA1HI2DMH3LocalSearch4DGGenericx6MUCHITW
숙박료	1인 1박 130 ~ 200 유로, 조식 포함
소개	뮌헨 영국정원 근처에 위치한 호텔로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임
비고	4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어드미랄 호텔(Hotel Admiral)

도시명	München
주소	Kohlstraße 9, 80469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216350
홈페이지	https://hotel-admiral.de/?lang=en
숙박료	119 유로, 조식 포함
소개	뮌헨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호텔
비고	4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

○ H4 호텔 (뮌헨 전시장)(H4 Hotel München Messe)

도시명	München
주소	Konrad-Zuse-Platz 14, 81829 München
전화번호	+49 (0) 89 9400830
홈페이지	https://www.h-hotels.com/de/h4/hotels/h4-hotel-muenchen-messe
숙박료	85~130 유로
소개	뮌헨 전시장 인근에 위치한 호텔 (전시장까지 350m, 도보로 4분 거리)

비고	4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 될 수 있음
----	--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함부르크무역관, 뮌헨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o 바움하우스(Baumhaus)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aiser Strasse 35, 6032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theminda.com/m/1.0/grp_minbak/minbak_view.html?minbak_code=8197
숙박료	2인1박기준 149,4 USD (130유로), 도미토리는 1인1박에 45,45 USD (40유로),朝食 포함
소개	중앙역 도보 5분,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7분, 대중교통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2인실이나 도미토리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박람회기 있을 경우 금액 조정되므로 미리 문의 해야 한다.

o 제이시앤블루 게스트하우스(JC and BLU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aiser Strasse 35, 6032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jcnblue
숙박료	메세기간 기준으로 2인1실 1박기준 149,4USD (130유로), 도미토리는 1인1박에 51,7USD(40-50유로),朝食 포함
소개	중앙역 도보 6분,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7분, 대중교통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2인실이나 도미토리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박람회기 있을 경우 조정된 금액을 주의해야 한다.

o 벤치 민박(Bench)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ufnagel Strasse 32, 6032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theminda.com/main/view.php?goodsno=8153
숙박료	개인실 (1~2인) (59유로),朝食 불포함
소개	중앙역에서 S-Bahn으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Galluswarte역에서 5분거리고 전시장(Messe)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숙소 전체에 총 수용인원이 2인이라는 점에 주의를 요하고, 식사제공이나 취사가 되지 않는다.(홈페이지 운영안함 예약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유로맘 하우스(Euromamhaus)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rxheimer Strasse 5, 6032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euromamhaus.com/
숙박료	1인1박 70,5USD (62유로), 2인1박 106,8(94유로), 조식식 포함
소개	중앙역에서 Tram(11번,21번)으로 8 정거장 떨어져 있는 Wickerer Strasse 역에서 5분거리고 메쎬까지는 대중교통으로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1인실과 2인실 및 도미토리가 제공되어 있으나 개인실도 욕실 등은 공용이다. 유료로 공항픽업을 해준다.

○ 민들레 민박 (Guest House Mindlle)

도시명	Hamburg
주소	HaakestraBe 91, 21075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7914 0072
홈페이지	http://www.mindlle.de/
숙박료	시기별로 가격 차이가 나므로 투숙희망 시기에 연락하여 가격 문의 필요
소개	함부르크 중앙역에서 S-Bahn으로 약 20분 거리
비고	아침 한식 제공,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는 라면, 계란, 김치, 밥, 음료수를 제공(셀프)하며, 저녁식사는 투숙자가 원할 경우 유료로 가능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경보 단계: 독일은 발령된 여행경보는 없는 국가이다. 독일은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사회가 안정돼 도난 등 범죄 발생률이 낮고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테러의 위험도 낮아 치안은 양호하다. 최근 대도시 등의 공항이나 역 주변은 소매치기 피해가 많은 편이며, 단체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 및 식당에서의 소지품 분실 사고가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 전체 거주자 중 자국민 대비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 중인데 외국인유입자의 경우 사회적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시리아내전 이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등 아랍계의 난민유입은 계속되고 있고, 터키계 등 서남아시아 거주자가 지난 50년간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를 옮긴다는 등의 모욕 등을 통한 동양인에 인종차별 범죄가 신고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금융가와 중앙역(Hauptbahnhof) 사이(Mainzer Landstrasse와 Kaiserstrasse 사이 거리)에 유흥가가 있으며,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한 무료 주사기와 마약을 배급하는 국영치료소도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유럽, 터키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유흥을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더 많은 마약 중독자가 몰리는 상황으로 해가 진 이후에는 가급적 이 근처를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경찰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 사고상황을 알리면 구급차, 소방차,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한다. 소방대원이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리고 구급대원이 이송 중에 현장보고서를 작성한다. 차량 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인명피해에도 형사책임은 면책이나 고의 중과실인 경우만 문제 된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하여 현장조사작성에 이용할 수 있으면 좋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담당이 차량을 견인케 하는데 이때 운전자에게 견인될 정비공장을 문의하고 운전자가 추천하는 곳이 없으면 인근 견인장소로 견인되어 추후 처리하게 된다. 민사책임이 다르나,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사고유발운전자가 쌍방이 아닌 경우, 피해운전자는 개인번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추천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 후 경찰의 현장보고서가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되고 이를 작성하여 사고유발운전자를 형사 고소할 지를 정할 수 있으나 제안된 기간 내에 답신을 보내야 한다. 쌍방과실은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것이 추천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보고서를 작성해주며 이 현장보고서가 없이 여권분실을 2회 이상 신고하게 되면 여권을 불법거래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특정국가(예를 들면 미국)는 비자 재발급에 있어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이나 체류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50~53 USD (41~44유로)의 수수료를 납부 후 2~3주 소요
 - 긴급 단수 여권의 경우, 53 USD (44유로) 수수료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12
- 범죄 신고: 110
- 의료지원 : 112 (앰블런스 서비스 포함)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독일 부동산 중개 사이트 중에서는 Immobilienscout24(<http://www.immobilienscout24.de>)가 가장 많이 쓰이며, 주재원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월 임대료의 2.38배인데, 2015년 전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으나 2015년부터는 임대인 책임이 되었다. 임차인은 임차료와 보증금을 부담하는데, 임대료는 순수임대료(Kaltmiete)와 이에 부대경비를 합한 총임대료(Warmmiete)가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순수임대료는 60m² 거주 공간 기준으로 1m²당 평균 월 15.51유로(www.wohnungsboerse.net, 2021년 9월 기준)로 전년 대비 약 5.7% 상승했다.

임차료는 계약 체결 1년 후부터, 해당 지역 '평균 임차료'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으나, 임차료 인상의 상한선은 3년 내 20%이다. 집주인이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3개월 내로 인상을 승낙하거나 집을 비울 수 있다. 보증금(Gesetzliche Mietkaution)은 대부분 임대료 3개월 수준으로 현금으로 주인에게 지불하거나 임차보증금 통장을 주인에게 맡기는 식으로 한다. 주거은행에 임차계약을 제출하면 보증금 통장을 발급해준다.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손상에 대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부대경비는 전년도에 비용을 평균으로 환산하고, 해당연도의 비용을 예측해 미리 자동이체(Dauerauftrag)로 지급하고, 다음 해에 실질 사용 금액을 근거로 정산한다.

임차계약 체결에 요청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여권, 재직증명서(또는 학생증), 지난 3개월간의 소득증명서 등이다. 임대 계약서상 불공평한 점은 집주인과 세무사항을 조율하고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 합의내용을 추가로 기록해 놓는 데, 이를 프로토콜(Protokoll)이라 하고, 작은 문제점, 작은 손상도 명확히 쓰고 집주인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사진을 찍어두면 더욱 좋다.(열쇠개수, 온수 사용 가능 여부, 곰팡이 존재 여부, 바닥 카펫 상태 등). 특히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기돼 있을 경우, Protokoll에 기재 안된 입주 전부터 존재하던 사항을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공제 단체인 Deutscher Mieterbund e.V. (<https://www.mieterbund.de/startseite.html>)에 가입해두면 권익 보호에 좋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변해도 이미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에는 최소 3년 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나, 임대인의 거주 목적인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출산이나 중병 혹은 고령으로 인해 이사를 할 수 없을 경우는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차인은 주택의 보존을 위해 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부엌, 욕조, 샤워실은 3년, 침실, 거실, 복도, 화장실은 5년, 기타 공간은 7년에 한 번씩 새로 페인트칠하고 수리해야 한다. 집을 잘못 관리한 것에 관한 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눈이 내린 다음 날 집 앞 도로 눈을 치울 의무와, 경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 위반 시 행정관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절대 휴식기간(오후 1시~3시, 밤 10시~아침 7시)에는 부모는 아이들의 소음을 제재할 의무가 있다. 난방기간(10월 1일부터 4월 1일) 중, 임대인은 실내온도를 20~22도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난방기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대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난방시간(6~24시) 동안 실내가 16~18도를 넘지 않을 경우 20~25%의 임대료 차감을 요구할 수 있다.

전화

대부분 전화와 인터넷, 때로는 케이블 TV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독일에 유선망을 제공하는 업체는 도이치 텔레콤(Telekom), 보다폰(Vodafone), 유나이티드미디어(Unitymedia)가 있으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나머지 통신사는 상기 3개 업체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사용한다. 각 통신사에서 웹사이트 또는 매점 방문을 통해 전화/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가 당일 또는 다음 날 이루어지는 한국과 다르게 독일 전화/인터넷 개설은 빨라도 1주일, 길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거주지가 확정되는 즉시 신청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전화/인터넷 개설 속도는 더 늦어진 편이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2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현지 변압기 구입이 비싸서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특히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이 날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식수

물은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한다. 가정용 정수기는 필터식인 브리타(Brita)를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수도물은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현지인들은 수도물을 식수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문화이다.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독일에서 신규/중고 차량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사이트는 Autoscout24(www.autoscout24.de)이며, 이 사이트에서 매수 희망하는 차량의 가격을 파악한 후 대리점 또는 중고차 딜러를 방문하여 시승해볼 것을 추천한다.

신차의 경우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 및 옵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고차는 또는 중고차 전문 매장이나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나, 향후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개인 직거래 시 소비제품 판매법규(Vorschriften des Verbrauchsgüterkaufs)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거래법(Kaufrecht)'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간의 법정 개런티 적용을 받지 못하며, 또한 매매계약서에 'Das Kraftfahrzeug wird unter Ausschluss der Sachmangelhaftung verkauft'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구입 후 고장이 나도 법률상의 청구권한이 없으나, 위와 같은 문구가 없을 경우 마모로 인한 손상(Verschleiss-), 일반 사용(Abnutzung-), 차량의 노화로 인한 손상(Alterungsschaeden)을 제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량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중고차량 판매자는 사고차량의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판매자가 이를 숨기거나 속였을 경우 증명하면 차량을 반환할 수 있다. 사고차량인 것 같다는 의심이 생길 경우 차량상태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독일교통클럽(ADAC)이나 일반 정비소에 의뢰할 수 있다.

중고차 전문 매장을 이용할 경우 1년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 유통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소비제품 판매법규(Vorschriften des Verbrauchsgüterkaufs)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인은 '중고차량의 매매에 있어서의 물적 하자에 관한 책임(Sachmangelhaftung beim Gebrauchtwagenkauf)'을 회피할 수 없다.

1년이나 2년의 개런티를 보장받는 경우에도 차량 구입자가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차량 보험, 세금 수리비가 포함된 상품을 월정 사용료를 내고 장기로 이용하고 이용 후 차량을 반납하는 장기 렌트인 아우토 아보(Auto Abo)도 제공되기 시작했다.

차량가격

독일은 자동차 가격이 비싼 편이라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하는 주재원들은 대부분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4~5년 된 중고 차량을 구입하며, 이 경우에도 차량에 따라 15,000~25,000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Autoscout24(www.autoscout24.de)에서 각 브랜드의 신구차, 중고차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독일 체류 기간 중 운전면허는 독일에서 취득하는 방법,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 내에 거주지가 없는 무비자 여행객의 경우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단, i)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ii) 동 면허증에 대한 재외공관 발행의 번역공증서, iii)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독일에 장기간 체류를 위하여 거주등록(Anmeldung)을 한 이후에는 이 시점부터 6개월간만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독일 내에서 독자적 의미가 없고, 우리 면허증에 대한 재외공관 발행의 번역공증서를 대신하는 영문번역서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보통 렌터카 회사나 경찰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면 한국 면허증을 제출하라고 한다.

독일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한국 운전면허를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담당 독일 면허증발급기관(Führerscheinstelle)을 방문하여,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거주등록증(Anmeldung),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여권용 사진, 수수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독일 국내 운전면허 학원 수강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 학원비용은 한국보다 3~4배 정도 비싼 편(약 1,500~2,000유로)이고, 필기 및 주행시험도 한국보다 까다로운 편이며, 운전학원에 직접 가서 의무적으로 이론 수업에도 참석해야 한다. 주행시험에 탈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추가 주행연습을 해야 하며, 연습 비용과 재시험 등록 비용에 약 500유로가 소요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www.deutsche-bank.de)가 독일 제1의 시중은행, 코메르츠뱅크

(Commerzbank(www.commerzbank.de))가 독일 제2의 시중은행이다.

또한 도시마다 저축은행(Sparkasse)이 있으며, 최근에는 N24, ING-Diba, DKB, Comdirect, Consorsbank, Advanzia Bank 등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은행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으로 외환은행(www.kebhana.de), 신한은행(online.shinhan.de)과 우리은행(eng.wooribank.com)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계좌를 개설할 때 경우 여권 및 거주지 등록증(Anmeldung)을 제출해야 한다. 계좌를 곧바로 개설할 수 없고 따로 은행 직원과 약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종이 통장이 없으며, 계좌 개설 후 우편으로 한국의 체크카드 같은 EC 카드, EC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가 각각 2주 정도에 걸쳐서 개별 송부된다.

인터넷뱅킹 및 계좌이체 시 스마트폰으로 은행 전용 앱을 다운받아야 하며, 앱으로 고유 QR Code를 읽으면 이체번호가 뜨는 Photo-TAN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계좌 개설 시 소득수준에 따라 한국과 같이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도 가능하다. 독일에는 계좌 유지비가 있어서 월 5~8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될 경우 계좌 유지비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은행에서 만 30세 이하인 사람들은 계좌 유지비가 없는 계좌(Girokonto)를 개설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계좌 개설 시 쿠폰이나 현금일정액(50~100유로)을 주기도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FIS Frankfurt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8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수업이고 오후 5시까지 돌봄과정 및 특별활동이 이루어진다.
학비	18,860~23,380유로
홈페이지	https://www.fis.edu/index.cfm
비고	1961년에 설립되었고 1997년에 정식 인가되었다. 오버우어젤과 비스바덴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비스바덴은 한국의 초등학교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 ISF International School Frankfurt-Rhein-Main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오전 8시20분부터 학년에 따라 수업은 오후 4시까지, 돌봄은 오후 6시까지 있다.
학비	12,450~19,875유로
홈페이지	https://www.isf.sabis.net/
비고	1995년에 설립되었고, 프랑크푸르트 서쪽 외관인 Sindlingen 구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 Strothoff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Dreieich
커리큘럼	오후돌봄이 있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나, 독일어 입문반이 운영된다.
학비	15,000~19,000유로
홈페이지	https://www.strothoff-international-school.com/
비고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 중간쯤인 Dreieich에 2009년에 개설된 학교로 교복을 착용한다.

○ Metropolitan School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하루 1시간 독일어 수업을 한다.
학비	11,844~16,488유로
홈페이지	https://www.m-school.de/

비고	2007년 설립되었고, 프랑크푸르트 서쪽 지역 뢰델하임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	--

○ Hamburg International School(ISH)

도시명	Hamburg
커리큘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를 아우르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수업료 내역(2020년 8월~2021년 7월 최신 학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부1(Primary 1): 10,940 EUR - 유치부2(Primary 2): 11,780 EUR - 유치부3(Primary 3): 13,400 EUR - 초1~2(Grades 1-2): 17,140 EUR - 초3~5(Grades 3-5): 18,140 EUR - 초6~중2(Grades 6-8): 19,450 EUR - 중3~고1(Grades 9-10): 20,510 EUR - 고2~고3(Grades 11-12): 21,320 EUR ○ 기타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비: 500 EUR - 발전기여금: (1년 수학) 5,500 EUR, (2년 수학) 2,000 EUR
홈페이지	https://www.ishamburg.or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부르크에는 American school이나 British school이 없고 Hamburg Internatioanl School이라는 국제 학교가 유일한 학교임. - 사전에 입학 신청하지 않으면 원하는 학년에 입학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Admission Office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입학 학생의 수행 능력을 테스트함 - 이를 근거로 학생의 학년과 학년별 학업 수준을 정하여 줌

○ BIS(Bavarian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München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imary Years Programme (IBPYP) : 3세-12세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Middle Years Programme (IBMYP) : 13세-16세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IBDP) and Career-related (IBCP) Programmes : 16세-19세
학비	3,000 ~ 12,000 유로
홈페이지	https://www.bis-school.com/
비고	뮌헨 시내와 뮌헨 북부 하임스하우젠에 2개의 캠퍼스 위치

○ European School Rhein-Main

도시명	Niederursel
커리큘럼	오전 8시30분부터 학년과 요일에 따라 대략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있다.
학비	9,600~12,000유로

홈페이지	https://www.es-rm.eu/index.php/de/
비고	2013년에 프랑크푸르트 니더우어젤(Niederursel)에 개설된 신설학교로 독일어 학교와 영어 학교로 나뉘어 있어 독일어 학부의 경우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 MIS(Munich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Starnberg
커리큘럼	PRIMARY YEARS PROGRAMME(1~4학년), MIDDLE YEARS PROGRAMME(5~10학년), DIPLOMA PROGRAMME(11~12학년)
학비	14,374 ~ 21,434유로
홈페이지	https://www.mis-munich.de
비고	뮌헨 시내에서 차로 35분정도 걸리는 뮌헨 남부 슈타른베르크에 위치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뮌헨무역관, 함부르크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기관 홈페이지>

- 현지학교

○ Mendelssohn Bartholdy Schule

도시명	Bad Soden
커리큘럼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오전 7시30분부터 학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수업시간은 오전 7시45분에서 16시이다. 특별 활동에는 연주, 미술, 독서반, 화학, 합창, 밴드, 승마, 배구, 탁구, 연극 등이 있고 독일어 입문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http://www.mbs-mtk.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인근 Bad Soden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Heinrich von Kleist Schule

도시명	Eschborn
커리큘럼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수업시간은 오전 8시에서 13시 25분까지이며 방과 후에는 특별 활동(foerderkurs)을 할 수 있다. 특별활동 중에는 Kpop춤 따라하기 반이 있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 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https://www.kleist-schule.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인근 에쉬본에 위치해 있다. 8학년제로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 9학년제로 변경되었다.

○ Bettinaschul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9학년제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업이 있고, 제1외국어가 영어이고, 제2외국어로 불어, 라틴어, 스페인어가 있고, 제3외국어로 중국어가 있다. 음악중심 인문계 학교로 오케스트라반이 운영된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 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https://www.bettinaschule-frankfurt.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시내 Westend에 위치해 있고 괴테대학교 가깝다.

◦ Goethe-Gymnasium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9학년제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오전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제1외국어는 영어이고 제3외국어로 일본어가 있다. 오후 돌봄과정이 운영된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 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http://www.gg-ffm.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위치해 있고 인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김나지움 중에 하나이다. 문과계열에 집중해서 철학, 일본어, 불어, 라틴어, 러시아어 등을 다룬다.

◦ IBMS International Bilingual Montessori Schoo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자율적인 교육으로 알려져 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 및 돌봄이 있다. 시험 대신에 담임의 관찰이 평가의 주를 이루며, 중고등과정을 일반 학교로 간다면 적응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창의력을 키우는 커리큘럼을 운영한다고 평가받는다.
학비	월 600유로
홈페이지	https://www.ibms-frankfurt.com/
비고	이탈리아 소아과의사인 안나 몬테소리의 교육이념을 따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과정의 사립학교이다. 1996년에 설립되었다.

◦ Freie Waldorfschul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학생별 발달차이에 따른 교육을 추구하고, 담임이 8년간 지속되는 전통이 있다. 안전문제를 제외한 규율에서 자유롭기에 창의력을 키우는 커리큘럼이라고 평가받고, 일반 김나지움으로 진학시 적응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학비	월 332유로, 둘째랑 같이 다니면 월 554유로(학생당 277유로)이다.
홈페이지	https://waldorfschule-frankfurt.de/

비고	오스트리아 인지학자 발도르프의 이념을 따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사립학교이다. 독일에 약 250개의 발도르프 학교가 산재해 있다.
----	---

○ FCSF Freie Christliche Schul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오전 8시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을 한다. 기독교 예배가 필수다.
학비	월 225유로인데 둘째아이를 보낼 때는 110유로로 낮아진다(넷째 아이부터는 무료이다).
홈페이지	http://www.fcsf.de/
비고	1981년에 설립되었고 기독교 재단의 초등,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이다. 입학에 부모의 세례여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다.

○ Gymnasium Christianeum

도시명	Hamburg
커리큘럼	김나지움 과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수업을 한다.
학비	학비 없다.
홈페이지	http://www.christianeum.org/
비고	1738년 당시 덴마크 왕인 크리스티안 6세(Christian VI.)가 설립한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이며, 제 1외국어로 라틴어를 배운다. 함부르크 지역에서 요하네움(Johanneum)과 더불어서 가장 명문 김나지움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뮌헨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마. 병원

○ Dr.김지현(Chi-Hyun Kim)소아과

도시명	Liederbach am Taunus
주소	Eichkopfaller 55A, 65835 Liederbach am Taunus
전화번호	+49 (0) 6196 5255600
진료과목	소아과
비고	이메일: kinderarztpraxis.kim@gmail.com

○ Dr.송지은 피부과

도시명	Bad Homburg
주소	Zeppelinstrasse 24, 61352 Bad Homburg

전화번호	+49 (0) 6172 98780
진료과목	피부과
비고	예약시 Dr. Song과 치료를 원한다면 미리 알려야 함/ 이메일: info@dermasong.de

◦ Charité & Universitätsmedizin Berlin

도시명	Berlin
주소	Charitéplatz 1, 10117 Berlin, Germany
전화번호	+49 (0) 30 450 5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독일 코로나 대처 중심 병원

◦ Dr.박정숙(Jung-Sook Park) 치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elsterbacherstrasse 2a, 60528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79709
진료과목	치과
비고	이메일: parkdent@gmail.com

◦ Dr.문영혜 내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rueneburgweg 12, 60322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5908410
진료과목	내과
비고	홈페이지: www.praxis-am-grueneburgweg.de/ 이메일: info@praxis-am-grueneburgweg.de

◦ Dr.이정훈(Jung-Hun Lee) 내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Nidacorso 1, 6043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571005
진료과목	내과
비고	홈페이지: www.praxis-lml.de / 이메일: anmeldung@praxis-lml.de

○ Dr.김송해(Song-He Kim) 의사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Friedberger Landstrasse 47, 60316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59797470
진료과목	가정의학

○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Universitaetsklinikum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aus 1, Theodor-Stern-Kai 7, 60590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3 01 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현지 병원으로서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의 남쪽 강가지역에 위치/이메일: info@kgu.de

○ 엘리자베스 종합병원(St. Elisabethen Hospital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innheimer Strasse 3, 6048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939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현지병원으로서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을 기준으로 북쪽지역에 위치/이메일: st-elisabethen@artemed.de

○ Asklepios Kliniken

도시명	Hamburg
주소	Lohnmühlenstr. 5, 20099 Hamburg, Germany
전화번호	+49 (0) 40 1818850
진료과목	종합병원으로 코로나19 진료도 진행
비고	https://www.asklepios.com/hamburg/sankt-georg/ 이메일: info.stgeorg@asklepios.com

○ Marien Krankenhaus

도시명	Hamburg
주소	Alfredstraße 9, 22087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2546-0
진료과목	종합병원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
비고	https://www.marienkrankenhaus.org/ 이메일: info@marienkrankenhaus.org

○ 이진영 치과의원(Zahnarztpraxis Chin Young Lee-Lim)

도시명	Hamburg
주소	Friedensallee 43, 22765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7543322
진료과목	치과
비고	https://www.doctolib.de/zahnmedizin/hamburg/chin-young-lee-lim-9bf2ffff-7c51-4eee-9dfa-a08fedf035df 에서 예약 가능/ 이메일: kontakt@doctolib.de

○ Dr.김민성 치과

도시명	Hochheim
주소	Mainzer Strasse 7, 65239 Hochheim
전화번호	+49 (0) 6146 8160999
진료과목	치과
비고	어린이 및 청소년환자 전문, 여의사

○ Dipl. 신속경 상담사

도시명	Mainz
주소	Eibenweg 36, 55128 Mainz
전화번호	+49 (0) 6131 364917
진료과목	심리상담

○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부속 병원 (Klinikum der Universität München)

도시명	München
주소	Marchioninistraße 15, 81377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 4400-0
진료과목	전 과목(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치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비고	이메일: info@klinikum.uni-muenchen.de

○ 뮌헨공대 부속병원 (Klinikum rechts der Isar)

도시명	München
주소	Ismaninger Straße 22, 81675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4140-0
진료과목	전 과목(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비고	이메일: presse@mri.tum.de

○ Dr. 이현경 (Dr. Hyun Kyung)

도시명	München
주소	Friedrichshafener Str. 7, 81243 München
전화번호	+49 89 82040555
진료과목	일반의학 (Allgemeinmedizin)
비고	이메일:

○ 도손 한의원 (Dr. 윤국현 원장)

도시명	Oberursel
주소	Holzweg-Passage 2A, 61440 Oberursel
전화번호	+49 (0) 6171 9784412
진료과목	한의원
비고	이메일: clinic.doson@gmail.com

○ Dipl. 강동협 치료사

도시명	Schwalbach
주소	Ringstrasse 23, 65824 Schwalbach
전화번호	+49 (0) 152 0856 4280
진료과목	물리치료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정보, 각 병원 홈페이지 >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o Alsterhaus 백화점

도시명	Hamburg
주소	Jungfernstieg 16-20, 20354 Hamburg
홈페이지	https://www.alsterhaus.de/
비고	함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백화점으로 꼭대기층에는 레스토랑 운영

o Fuenf Höfe 백화점

도시명	München
주소	Theatinerstraße 15, 80333 München
홈페이지	http://www.fuenfhoefe.de
비고	북경 올림픽 주경기장 설계 회사인 스위스 Herzog & de Meuronanola 사의 설계로 2003년 완공한 연면적 48,000 평방미터 규모의 현대식 쇼핑몰

o MyZeil 쇼핑센터

주소	An der Hauptwache, 6031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myzeil.de/
비고	구시가지 안에 있는 쇼핑센터로 특이한 외관으로 프랑크푸르트의 관광명소

o Skyline Plaza 백화점

주소	Europa-Allee 6, 60327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skylineplaza.de/
비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쇼핑센터

o Galeria Kaufhof 백화점

주소	Zeil 116-126, 6031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galeria.de/
비고	독일에 대도시마다 있는 백화점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쇼핑몰 홈페이지>

- 식품점

◦ Kims Laden 김씨 상회

도시명	Eschborn
주소	Bremer Strasse 2-6, 65760 Eschbor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에쉬본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가 큰 편 / 홈페이지: https://kims-laden.business.site/

◦ Green Mart 그린마트

도시명	Eschborn
주소	Rudolf-Diesel-Strasse 7, 65760 Eschbor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에쉬본에 위치/ 홈페이지 : http://greenmartmall.net

◦ Asia Markt 한인 아시아마트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ohenstaufenstrasse 11, 60327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중앙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 / 홈페이지 : https://asia-markt-koreanisch-japanisch-chinesisch.business.site/

◦ Seoul-Lebensmittel 서울슈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reuznacher Strasse 50, 60486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중앙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

◦ Taisan (태산)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Fahrgasse 95, 60311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구시가지 인근에 있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

○ 한독마트 2호점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Leonardo-da-Vinci-Allee 4-8, 60486 Frankfurt am Main, Germany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독일마트 Tegut 안에 위치하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이다./ 홈페이지: http://handokmall.kr/shopinfo/company.html

○ Y-Mart 와이마트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önigsteinerstr.95, 65929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회히스트(Hoechst)에 위치한 규모가 큰 편 한인마트/ 홈페이지: /www.y-mart.de/

○ Go-Asia 고 아시아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Zeil 90, 60313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시내 백화점 내에 위치한 대형 아시아 식품점/ 홈페이지: https://goasia.net/

○ Mipoong Asia Markt 미퐁 아시아마켓

도시명	Hamburg
주소	Rosenstraße 21, 20095 Hamburg
취급 식료품	한국 및 아시아 식료품
비고	함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식료품점(+49 40-324431)/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asia_market_mipoong/

○ i-Mart 아이마트

도시명	Hamburg
주소	Kieler Str. 278, 22525 Hamburg
취급 식료품	한국 및 아시아 식료품
비고	함부르크 북서쪽에 위치한 식료품점(+49 40-6043 8099)/ 홈페이지: https://i-mart.de/

○ Asiatische Lebensmittel KIM 김식품점

도시명	Hamburg
주소	Mundsburger Damm 39, 22087 Hamburg
취급 식료품	한국 및 아시아 식료품
비고	함부르크 시내 중심부에서 차량으로 5~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식료품점(+49 40 222031)/홈페이지: https://www.kimsasia.de/

○ 뮌헨 한인마트

도시명	München
주소	Mozartstraße 3, 80336 München
취급 식료품	한국 및 아시아 식료품
비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뮌헨 한인 식료품점/이메일: munichamt@gmail.com

○ Handok Mart 한독마트(본점)

도시명	Oberursel (Taunus)
주소	Im Rosengaertchen 43, 61440 Oberursel (Taunus)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오버우어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편./ 홈페이지: http://handokmall.kr/shopinfo/company.html

○ Handok Mart 한독마트 3호점

도시명	Sulzbach
주소	Wiesenstr. 17, Tor 3/4, 65843 Sulzbach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시내에서 먼 곳에 위치하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이다.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정보/홈페이지: <http://handokmall.kr/shopinfo/company.html>>

- 기타 편의시설

○ Louise.26 루이제 26

도시명	Badhomburg vor der Hoehe
주소	Louisenstr.26 ,61348 Badhomburg vor der Höhe
홈페이지	http://louise26.de/

소개	한국식 베이커리 및 카페
----	---------------

○ Sportschule Seou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In der Schildwacht 11, 6593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taekwondo-seoul-frankfurt.de
소개	태권도장

○ DSV-Jugend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Wilhelmshoeher Strasse 34, 6038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wasserfloeh.de/
소개	어린이 수영강습
비고	현지시설

○ SSF Schwimmschule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Rhoenstrasse 117, 60385 Frankfurt am Main (사무실)
홈페이지	http://www.schwimmschule-frankfurt.de/
소개	어른 수영강습
비고	현지시설, 강습장소는 홈페이지 참조

○ SPV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Egenolfstrasse 40, 6031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schwimmpaed.de/
소개	어린이 수영강습
비고	현지시설, 강습장소는 홈페이지 참조하여 가까운 곳으로 고를 수 있음

○ Golf Range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Am Martinszehnten 6, 60437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golfrange-ffm.de/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 Frankfurter Golf Club e.V.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olfstrasse 41, 60528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fgc.de/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 Beyond Style 비욘드 스타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Pariser Str.4, 6048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beyondstyling.org/
소개	헤어샵
비고	칭담동 스타일 헤어샵

◦ Golf Lounge Hamburg

도시명	Hamburg
주소	Billwerder Neuer Deich 40, 20539 Hamburg
홈페이지	https://www.golflounge.de/de
소개	골프클럽

◦ 뷰티 박

도시명	Kronberg
주소	Sodener Strasse 70, 61476 Kronberg
홈페이지	http://beautyparkhair.blogspot.com/

소개	헤어샵
----	-----

○ 찰리 권

도시명	Oberursel
주소	hohemark Strasse 12, 61440 Oberursel
홈페이지	http://www.charlykwonhair.de/
소개	헤어샵

○ Offenbacher Golf-Club

도시명	Offenbach am Main
주소	Dreieichring 18, 63067 Offenbach am Main
홈페이지	https://offenbacher-golf.club/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해외 전용 url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Neujahr)	2022-01-01	독일 전역
성금요일(Karfreitag)	2022-04-15	독일 전역
부활절(Ostern)	2022-04-18	독일 전역
노동절(Tag der Arbeit)	2022-05-01	독일 전역
예수승천일(Christi Himmelfahrt)	2022-05-26	독일 전역
성령강림절(Pfingsten)	2022-06-06	독일 전역
성축제일(Fronleichnam)	2022-06-16	대상 지역 : Baden-Wuerttemberg, Bayern, Hes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Sachsen과 Thuringen 일부 지역)
성모승천일(Mariae Himmelfahrt)	2022-08-15	대상 지역 : Bayern (일부 지역), Saarland
통일기념일(Tag der Deutschen Einheit)	2022-10-03	독일 전역
종교개혁일(Reformationstag)	2022-10-31	대상 지역 : Brandenburg, Bremen, Hamburg, Mecklenburg-Vorpommern, Niedersachsen, Sachsen, Sachsen-Anhalt, Thuringen

만성절(Allerheiligen)	2022-11-01	대상 지역 : Baden-Wuerttemberg, Bayer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속죄의 날(Buss- und Betttag)	2022-11-16	대상 지역 : Sachsen
성탄절(Weihnachten)	2022-12-25	독일 전역, 12.26일까지 2일간

<자료원 : DEUTSCHER GEWERKSCHAFTSBUND >

10. KOTRA 무역관 안내

○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Messeturm, 33. OG, Friedrich-Ebert 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 전화번호: +49 (0)69 242 9920
- 이메일: frankfurt@kotra.or.kr
- 홈페이지: www.kotra.or.kr/frankfurt

공항-무역관 이동

- (지하철) 공항에서 5분 거리인 Regionalbahnhof 역에서 중앙역(Hauptbahnhof) 방향 S8 또는 S9 승차- Frankfurt 중앙역(Frankfurt Hauptbahnhof)에서 하차-복켄하이머 바르테(Bockenheimer Warte) 행 U4 탑승
 - 중앙역에서 하차한 후 중앙역 입구 앞 큰길 건너편에서 지상전철(Tram: 메쎬(Messe) 방면 16번 또는 17번 로 갈아타-페스트할레/메쎬역(Festhalle/Messe) 역에서 하차하는 방법도 있음. 역에서 북쪽 출구로 나와 도보로는 약 10~15분 정도 소요된다.
 - 요금은 성인요금 기준 (만 15세 이상 적용) 공항에서 메쎬까지 4.9유로. 어린이(만6-14세) 2.85유로, 6세 미만은 무료이다.
- (버스) 시내까지 한 번에 오는 버스노선은 없다.
- (택시)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약 35~40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건물 도착 후)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하게 해 주며, 무역관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2021년까지 건물 공사가 지속되어 출입문 위치가 자주 바뀌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무역관 사무실은 33층에 있으나 고객 상담은 29층에서 이루어진다.

○ 함부르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Axel-Springer-Platz 3, Haus B, 20355 Hamburg, Germany
- 전화번호: +49 (0)40 3405-740
- 이메일: info@kotra.de
- 홈페이지: www.kotra.or.kr/hamburg

공항-무역관 이동

- (지하철) S1 Stadthausbrücke 역 혹은 U3 Rdingsmarkt 역 하차, 도보 5분 거리 위치
- (버스) 중앙역 HBF/MnckebergstraBe 역에서 버스 3번 탑승, Axel-Springer-Platz 역에서 하차
- (택시) 무역관 주소(Axel-Springer-Platz 3)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면 도착 가능 (약 25분 소요)
- 참고사항
 - KOTRA 독일 함부르크 무역관은 Hanse Forum 빌딩 B동, 2층에 입주해 있음.

○ 뮌헨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Tal 12, D-80331 München, Germany
- 전화번호: +49 (0)89 2424-2630
- 이메일: munich@kotra.or.kr
- 홈페이지: www.kotra.or.kr/munich

공항-무역관 이동

○ (지하철) 뮌헨공항 역에서 전철(S 1번 혹은 S 8번)을 타고 Marienplatz역에서 하차해 Viktualienmarkt, Tal 또는 Sparkassenstr. 방향의 출구로 이동

- 구 시청 Altes Rathaus/Old Town Hall (참고 : 광장 왼쪽의 검은색 석회석 건물이 신 시청, 구 시청은 출구에서 11시 방향 밝은 건물임)을 왼편에 끼고 그 길을 70~80미터 직진하여 내려오면 오른편에 맥도날드(McDonald) 옆 파울라너(Paulaner im Tal) 건물 1층에 뮌헨 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 München)을 발견할 수 있음.

○ (공항버스) 공항 터미널 1 또는 2에 있는 공항버스 승강장에서 1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공항버스(Lufthansa Air Bus)를 타고 중앙역(München Hauptbahnhof)까지 온 후 전철(S-Bahn) 또는 택시를 이용 추천(요금: 공항에서 중앙역까지 편도 10.50유로)

○ (택시) 공항, 중앙역(Hauptbahnhof) 등 택시 승강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탑승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야 함(Call Taxi 전화번호: 21610).

- 택시 탑승 후 뮌헨무역관 주소(Tal 12, 80331 München)를 택시운전사에게 제시하면 바로 뮌헨무역관 앞까지 올 수 있으며,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60유로, 중앙역에서 뮌헨무역관까지는 약 10유로 소요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